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7권



365열린도서관



B46459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 제7권 |

2012. 7. 1 ~ 2013. 6. 30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차 례

일자리센터 수원역상담실 개소식	17
▶ 2012년 7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19
▶ 2012년 7월 3일	
발카코리아 준공식	21
▶ 2012년 7월 4일	
제17회 경기여성주간기념 콘서트	23
▶ 2012년 7월 4일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 2012년 7월 12일	
조류 관련 팔당 방문	43
▶ 2012년 8월 10일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 2012년 8월 15일	
기우회	49
▶ 2012년 8월 31일	
제41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53
▶ 2012년 8월 31일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개막식	58
▶ 2012년 8월 31일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60
▶ 2012년 9월 3일	
북한인권의 달 선포식	63
▶ 2012년 9월 3일	
9월 월례조회	66
▶ 2012년 9월 4일	
런던올림픽 선수단 격려	73
▶ 2012년 9월 7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75
▶ 2012년 9월 11일	
북부기우회	77
▶ 2012년 9월 12일	
KRA 시흥 승마힐링센터 개원식 및 MOU	81
▶ 2012년 9월 19일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선수단 해단식	83
▶ 2012년 9월 20일	
기우회	85
▶ 2012년 9월 21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90
▶ 2012년 9월 21일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91
▶ 2012년 9월 26일	

노사민정협의회	93
▶ 2012년 9월 27일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	96
▶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일본 NAD사 투자유치 협약식	97
▶ 2012년 9월 27일	
민관군 협력 안보테마공원 개장식	98
▶ 2012년 10월 4일	
제5회 경기도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99
▶ 2012년 10월 5일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 2012년 10월 9일	
2012 경기축산 G-페스티벌	115
▶ 2012년 10월 12일	
광명소방서 이전 준공식	117
▶ 2012년 10월 15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개장식	120
▶ 2012년 10월 15일	
호국 의승군 추모행사	122
▶ 2012년 10월 16일	
농업인의 날 행사	124
▶ 2012년 10월 30일	
2012 IT 청년창업 콘테스트	128
▶ 2012년 10월 31일	

경기도-텍사스주립대학교 기업지원프로그램	131
▶ 2012년 10월 31일	
2012 경기도 산학연 R&D 성과박람회	133
▶ 2012년 10월 31일	
장애청년 바리스타 ‘나는 카페’ 1호점 개소식	136
▶ 2012년 11월 1일	
10구단 유치협약식	137
▶ 2012년 11월 1일	
화성고용센터 개소식	139
▶ 2012년 11월 6일	
11월 월례조회	141
▶ 2012년 11월 7일	
동원대학교 특강	148
▶ 2012년 11월 7일	
아이러브맘 카페 개소식	159
▶ 2012년 11월 12일	
시흥 스마트 허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QWL밸리 비전 선포식	161
▶ 2012년 11월 13일	
G-창업페스티벌	163
▶ 2012년 11월 23일	
특성화고 토크콘서트 청춘불패 초청특강	165
▶ 2012년 11월 26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 공동협약서 체결	168
▶ 2012년 11월 27일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171
▶ 2012년 11월 28일	
북부기우회	183
▶ 2012년 11월 29일	
기우회	188
▶ 2012년 11월 30일	
분당선 복선전철 개통식	191
▶ 2012년 11월 30일	
‘마을기업 성장지원 공동협약’ 체결식	193
▶ 2012년 12월 3일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 2012년 12월 3일	
2012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208
▶ 2012년 12월 6일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210
▶ 2012년 12월 6일	
포천 장자마을 문학의 밤	215
▶ 2012년 12월 7일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217
▶ 2012년 12월 10일	

다이소 남사 물류 허브센터 개소식	222
▶ 2012년 12월 12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224
▶ 2012년 12월 13일	
경기농협 리더아카데미	228
▶ 2012년 12월 13일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232
▶ 2012년 12월 14일	
청산포럼 특강	233
▶ 2012년 12월 18일	
기우회	243
▶ 2012년 12월 21일	
종무식	248
▶ 2012년 12월 31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49
▶ 2013년 1월 2일	
시무식	252
▶ 2013년 1월 2일	
10구단 유치 관련 간담회	254
▶ 2013년 1월 3일	
의왕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5
▶ 2013년 1월 3일	
광명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7
▶ 2013년 1월 3일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0
▶ 2013년 1월 3일	
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3
▶ 2013년 1월 4일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5
▶ 2013년 1월 4일	
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0
▶ 2013년 1월 4일	
오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2
▶ 2013년 1월 7일	
평택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5
▶ 2013년 1월 7일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8
▶ 2013년 1월 9일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82
▶ 2013년 1월 9일	
하광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84
▶ 2013년 1월 9일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 2013년 1월 10일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 2013년 1월 16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304
▶ 2013년 1월 16일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306
▶ 2013년 1월 17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 2013년 1월 21일	
2월 월례조회	318
▶ 2013년 2월 4일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MOU	324
▶ 2013년 2월 4일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초청간담회	326
▶ 2013년 2월 7일	
북부기우회	329
▶ 2013년 2월 7일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333
▶ 2013년 2월 8일	
고지도 자료 기증 MOU	336
▶ 2013년 2월 15일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 2013년 2월 18일	
용인 씨게이트 코리아 R&D 디자인센터 준공식	346
▶ 2013년 2월 20일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348
▶ 2013년 2월 20일	
2013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358
▶ 2013년 2월 21일	

기우회	361
▶ 2013년 2월 22일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363
▶ 2013년 2월 22일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 2013년 2월 28일	
3월 월례조회	376
▶ 2013년 3월 4일	
경기경찰 충혼탑 개막식	383
▶ 2013년 3월 12일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385
▶ 2013년 3월 16일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395
▶ 2013년 3월 18일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399
▶ 2013년 3월 19일	
일본 브이텍스코리아(주) 준공식	401
▶ 2013년 3월 21일	
이승만 대통령 탄신 138주년 기념식	403
▶ 2013년 3월 26일	
동계체전 종합우승 12연패 해단식	406
▶ 2013년 3월 27일	
기우회	408
▶ 2013년 3월 29일	

디딤톡 콘서트	412
▶ 2013년 3월 29일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 2013년 4월 2일	
4월 월례조회	432
▶ 2013년 4월 3일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440
▶ 2013년 4월 4일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446
▶ 2013년 4월 5일	
RCY 단원 리더십캠프 특강	449
▶ 2013년 4월 6일	
안보체험교육	460
▶ 2013년 4월 8일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 2013년 4월 9일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초청특강	480
▶ 2013년 4월 11일	
노사민정 협의회	487
▶ 2013년 4월 11일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492
▶ 2013년 4월 12일	
카네이션하우스 업무협약식	494
▶ 2013년 4월 15일	

세계기자단 초청 투자설명회	496
▶ 2013년 4월 17일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 2013년 4월 25일	
기우회	500
▶ 2013년 4월 26일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505
▶ 2013년 4월 29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09
▶ 2013년 4월 30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워크숍 초청특강	512
▶ 2013년 5월 2일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	517
▶ 2013년 5월 6일	
북부기우회	520
▶ 2013년 5월 9일	
경기·인천권역 화랑훈련 사후검토 보고회	523
▶ 2013년 5월 10일	
한국도자투어라인 개통축제 오픈식	526
▶ 2013년 5월 10일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 2013년 5월 16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 2013년 5월 23일	

캐논코리아 시화MTV 신공장 준공식	551
▶ 2013년 5월 31일	

6월 월례조회	553
▶ 2013년 6월 3일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 2013년 6월 7일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 2013년 6월 12일	

전남도청 특강	578
▶ 2013년 6월 13일	

세종대학교 특강	590
▶ 2013년 6월 14일	

찾아보기	600
------------	-----

일자리센터 수원역 상담실 개소식

일시 2012년 7월 3일

오늘 개소한 일자리 센터는 원래 광고에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센터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원역이 워낙 명당이기에 이번에 이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가시기에, 일자리 찾는 분이 많겠다 싶어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위층인 수원역 2층에는 민원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일자리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형편상 여건이 되지 않고 자리가 협소해 현재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같이 합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노동청에도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업체에서 박람회 참석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제가 도지사로 있던 지난 6년 동안 전국 새 일자리의 52%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충분히는 없습니다. 또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중매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더 늘리겠습니다. 도정의 일자리 정책을 고쳐서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에 관한 한 이곳이 경기도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자리 도청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일시 2012년 7월 3일

김기문 중앙회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여 주시고, 입법과 정책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주시어 대한민국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모두에서 '메이드인 코리아'는 명품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에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 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빛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완전한 불모지에서 우리는 늘 신화와 기적을 이뤄 왔습니다. 그 밑바탕에 기업인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을 해 종합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조합마다 내용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문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모두 연결돼 있습니

다. 기업과 지역, 지역 안에서도 일자리와 주택, 또 주택과 보육·교육, 교통, 문화·예술, 언론·방송, 국민의 정신·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반월시화산업단지처럼 이렇게 최대 규모로 매우 앞선 곳도 있지만, 경기 북부처럼 낙후되고 군사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인력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장과 주택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와 주택단지가 멀리 떨어져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벌입니다. 일자리와 주택이 일정하게 근접해야 인력을 구하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 보육 문제입니다. 엄마가 직장에 가는 동안 아이는 누가 돌볼 것입니까. 경기도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안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맡기든 아이를 봐 주는, 마음 놓고 엄마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녀온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큰 문제가 없는 산업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일자리 구하기, 사람 구하기 문제는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기업, 그리고 기업인들이 악조건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하는 점 감사드립니다.

발카코리아 준공식

일시 2012년 7월 4일

발카코리아 평택 오성공장 준공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투자해 주신 발카공업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밸류와 퀄리티를 모두 이루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발카는 82년이
란 긴 역사가 있고, 매우 젊은 사장님께서 훌륭한 발전을 이루고 계
십니다. 우주로켓, 반도체 제조장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쓸 핵심 중
요 부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합니다.

훌륭한 발카코리아가 경기도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돼 기
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
이 집적된 곳입니다. 풍부한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발
카코리아의 전략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평택은 앞으로도 비약적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발카코리아 같은 첨단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편리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도 신규 투자를 단행한 발카공업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택 공장에서 그 역량이 더 커지고, 더 훌륭한 사업 발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17회 경기여성주간기념 콘서트

일시 2012년 7월 4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여성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뵈니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저 혼자
남자입니다. 이제 저희 딸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음으로써 가정이 무
엇인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몰랐는데,
딸아이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산고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
러 가지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제가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
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쫓기고, 맞고, 집에
담당 형사나 안기부에서 늘 저를 찾고 감시하고 연행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몸보다도 자식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직 다 모르지만,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성애란 절대자 하느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넘어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갖지 못한 숭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를 낳아 주신 어머니는 이미 훨씬 전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저는 철이 늦게 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나 이미 가신 분들에 대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자가 갖는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를 어머니들이 팬찮은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인사권을 여성에게 드렸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줄 몰랐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여성분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모든 아낌없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여야 불문하고 여성 광팬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여성단체 회장님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여성 단체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공무원부터 여성 차별이 없도록 승진, 인사 부분에서 배려합니다. 출산에 있어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3점을 부여하여 승진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성은 원하는 자리에 배치를 해 주고 있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일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 부분에 있

어 365일 24시간 어린이를 돌보는 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천 아미어린이집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병원,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 등 직업의 특성상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의 처우 또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천 아미어린이집은 회원 수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나아가 필요하면 100개도 더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들이 퇴근할 때까지 특기·적성과 취미를 가르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멀리 나가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가정과 일자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융합된 도시를 만들도록 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일하기 좋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흉악범들은 강력히 처벌하여 여성과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퇴치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여러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 희생을 정부와 우리 道와 市가 높이 평가하고 늘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능력, 용서와 사랑의 샘이 되는 훌륭한 모성애를 갖춘 우리 여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남성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일시 2012년 7월 12일

반갑습니다. 우리 임창열 언론인클럽 이사장님은 前경기도지사로서 저희 선배이십니다. 절묘한 날짜와 시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론이 바로 '공(公)'이자 '퍼블릭'이라 봅니다. 언론인은 공인이고 공직이며, 언론인들 하는 일이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이 공무원보다 더 공이란 말을 공무원들에게 자주 합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서류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공직 서류는 결재 사인을 많이 하면 20여 명이 끝입니다. 일반인들이 공문서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인이 작성하는 기사, 보도, 영상 사진은 얼마나 많이 봅니다. 공문서에 비하면 수만 배 열람되고 회자됩니다. 언론인이 만들어 내는 문서와 영상과 사진이 바로 공문서이고, 공무이고, 공직에 의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문보다는 매일 바뀌는, 시시각각 바뀌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매분 바뀌는 엄청난 스피드가 가미된 공적인 기능의 문서, 공문서를 우리는 봅니다.

저는 도지사라는 공적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보다도 더 국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일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통은 직접 소통도 있지만 언론과 의회라는 제도화된 소통도 있습니다. 그중 언론에 의한 소통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공적인 소통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기자실에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등록을 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일절 언론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안 만나니까 오늘 취재를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15여 일만에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간 제가 너무 나타나지 않아 화나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수도자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라, 우리는 낭떠러지에 서 있다.' 새누리당은 오만의 낭떠러지, 정권은 부패의 낭떠러지, 서민은 민생의 낭떠러지, 젊은이들은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저부터 나뭇가지를 잡은 손을 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앞장섰습니다. 저

는 고3 때 졸업을 석 달 앞두고도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잠깐의 다툼에서 박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멀리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임창열 선배님 뒤를 이어 최장수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간 경기도민께서 저를 뽑아 주시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격려도 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느끼기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언론 자체가 경기 지역 언론, 또는 중앙 언론에서 우리를 마치 중심이 아닌 주변처럼 다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민의 정치적 응집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세종시 하나만큼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인구는 서울과 대전을 합친 것보다 경기도가 많은데 정치적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정치인들도 서울에서 기자회견하다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충청도, 세종시입니다.

경상도, 전라도도 잘 안 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고정표이기 때문에 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이곳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경기도는) 어떤 응집된 힘이나 민심이 없는 곳이라고 정치인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야말로 남북분단의 현장이자, 국방 안보의 현장이자,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세계를 향한 열린 관문이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재임 4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의 56% 이상을 경기도가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의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이 이인제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임창열 지사님 등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왜 대권에 꿈을 갖고 있느냐며 포기하라고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국정을 축약한 장소가 경기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역, 산업, 문화, 예술, 행정 모든 면에서, 농업, 어업까지도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나뉠 생각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혹한 식민지 잔재와 6·25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경제, 외교, 문화, 의료, 스포츠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세계 일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 종주국입니다. 그 대륙의 꼬트머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참으로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당시 식민지 시대와 2차 대전 직후에 많은 분들이 시장경제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잔인하다며, 계획경제를 주장했습니다. 머리 좋은 공산당 간부들이 컴퓨터로, 가장 발달된 수리경제학으로 계산해서 나눠 주면 되지 않나 했습니다. 만들어서 나눠 주면 되지 무슨 시장이 필요한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성공한 이유는 튼튼한 국방 안보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튼튼한 국방 안보를 통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구석구석을 다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북의 핵미사일 기습공격,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 강대국과 러시아의 무수단, 일본의 자위대, 이 모든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유지됐겠습니까.

만약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한미동맹이라는 힘의 지렛대가 있기에 중국이 두렵지 않고, 러시아가 두렵지 않고,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미군의 주둔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 한반

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 이끌지 않고, 이렇게 자유와 시장으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대한민국에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선진화입니다.

오늘도 언론의 1면에 나온 걸 보면 왜 국회가 방탄 국회를 하나며, 국민들이 정치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앞선 정치를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건국 이후 64년 역사는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민주화의 역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보다, 북한보다, 러시아보다,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한국의 역동성에 대해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64년이라는 짧은 역사 동안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은 많은 후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사당화문제도 있고, 지금 왜 비례대표가 이 사람이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어서 진보당은 지금 당이 깨질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박희태 국회의장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 밖 선거는 매우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가 강력한 제재를 해서 백만 원만 넘으면 누구든 아웃입니다. 설령탕 하나 먹어도 오십 배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강력하고 공정한 중앙선관위의 단속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오장육부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오장육부까지도 중앙선관위가 개입해서, 국민의 손으로 정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미국 35개 주에서 하는 오픈프라이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형님도 잡혀가고 있는데, 친인척 부정비리 사건이 끝이 안 납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끝내야 합니다. 저 김문수라면 끝낼 수 있다 확신합니다.

우선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물었습니다. 왜 청와대는 감찰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행적으로 안 했다고 합니다. (감찰규정이) 법에는 있는데, 관행적으로 안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눈치가 보여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벗어나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검찰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상적 감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43위 정도의 청렴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10위권 내의 청렴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부패즉사, 청렴영생'의 구호 아래,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야당이면서도 전윤철 감사관을 찾아가, 경기도에 감사관을 한 명 파견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감사관을 임명하니 서로 봐주니까 부정비리가 척결이 안됐습니다. 감사원장님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한 후 한 명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우리 정당인들이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야당인데, 여당 감사관을 받았다가 당신이 죽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잡혀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감사관을 받았습니다. 승진이 불리해 돌아가야 하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바뀌니 작년에 우리 경기도가 청렴도 일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성장과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복지를 분배하기 위해선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 열매가 더 열렸을 때 조금 더 나누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분배를 하려면 가진 자의 것을 뺏아다 없는 자에게 나눠 주는 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 없이 분배를 외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간단한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선 최하 1년에 4% 성장을 10년간 해야 복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성장을 이야기하면, 국가의 성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귀 따갑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만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복지를 합니까?

너무나 간단한 기본, 더하기 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조차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성장은 문제가 있다,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달달 묶는다, 그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반값등록금까지 이

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반값등록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돈이 있다면 고등학교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졸자가 너무 많아 일자리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학 나온 사람만큼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 기계공고에 갔습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좋은 기자재로 공부하고, 삼성, LG 등 최첨단 세계 일류 기업의 현장 기술자들이 와서 학생들과 함께 실습을 하더라고요. 졸업하면 거기서 뽑아 가는데 연봉이 3천에서 5천이더라고요. 백퍼센트 취업입니다. 성공입니다. 대졸자보다 절대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학벌 위주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갔는데, 다른 남매들이 다들 저보다 잘삽니다. 제가 제일 못삽니다. 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이 사회 지도자가 되는 학벌 위주풍조는 고쳐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문제, 특히 성장의 문제 중 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다면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고, 규제를 풀어 주고, 노동력을 안내하는 고용·교육 시스템을 뒷받침해 주고, 세제를 조정해 주고, 상수도과 전기 등 인프라를 공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풍조가 많습니다. 복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지금 대기업한테 복지를 하라고 합니다. 기업은 물건 잘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 주

고, 세금 잘 내면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공무원,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전부 대기업에 책임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세금 걷어서 뭘 했습니까?

대기업을 두둔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에 삼성전자, LG전자가 투자하고 있는데, 평택 선거에서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다 이겼습니다. 삼성, LG가 오니까 평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삼성, LG가 오니까 평택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론 납품단가를 너무 후려친다든지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돕는 건 공무원들이 세금을 갖고 도와줘야 합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LG가 경기도에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 가면, 특히 경상도에 가면 당신이 왜 경기도로 LG를 다 가져가느냐며 뭐라 하십니다. 구미에서도 부산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천안, 아산도 삼성이 그쪽에 투자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자기네 투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미워 죽겠다고 합니다. 삼성, LG를 뺏겼다는 겁니다.

누가 대기업을 유치하느냐는 것이 그 지역 공무원들의 경쟁력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오면, 납품회사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 관련 기업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중국,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LG도 인도, 러시아에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투

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홍콩에 갑니다. 왜 경쟁만 하면 대한민국이 그 나라들에게 집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야 하나.' 홍콩, 싱가포르는 멀다고 합니다. 한국이 적지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도 더 가깝습니다. 이런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람들 머리 좋고, 땅도 넓고, 위치도 좋은데 왜 싱가포르, 홍콩까지 가도록 합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최우량 기업, 대기업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대기업 때리기를 계속하면 어려워집니다. 코리아가 삼성, LG, 현대를 저렇게 다루는데 우리가 갈 땐 대접받을 수 있을지, 세계에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부 동향을 다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상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근로자와 그와 연관된 많은 네트워크 자체가 상생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기업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삼성의 친인척에 의한 가족경영, 오너경영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도 가족경영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 과연 한꺼번에 몇십 조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붕급받는 경영자가 그렇게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때로는 가족경영, 때로는 대기업, 때로는 중소기업, 노와 사가 어우러져 세계에서 가장 앞서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하기 제일

좋은 나라, 아픈 사람도 치료 잘 받고, 문화·예술도 제일 앞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꼭 누구를 미워하고 때려야 누가 잘사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해법을 찾아야지, 어느 쪽을 때려서 내가 잘산다는 건 이젠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자들 것 뺏어다가 없는 사람 도와주는 의적 일지매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단하죠. 뺏어다 나눠 주면 됩니다. 공산주의를 70년간 해 봤는데, 백퍼센트 다 망했습니다. 누구 것을 뺏어다 나눠 주는 방식은 전 세계 3분의 1이 참가했던 실험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경기도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시스템으로 현장에 딱 맞는 복지를 민간과 관이 합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돈이 꼭 많이 들지 않더라도 맞춤형 복지를 통해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세 번째 과제는 적극적인 통일 추진입니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추진체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못살게 됐습니까? 메르켈이 동독 출신 수상입니다. 유럽의 위기를 (독일 아닌) 어느 나라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독일은 2차 대전을 도발하고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세계 인류사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나라가 독일이었고, 죄값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였을 뿐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눠졌습니까? 바로 강대국 외교에 희생된 것입니다. 루스벨트가 스탈린과 왜 밀약을 했습니까? 동쪽에서 일본 왕을 물리치고 밀약을 하다 보니 허리가 잘렸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혼자만이 국제 흐름을 알고 막으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했는데, 그때 신탁통치를 했다면 공산당은 우리를 전부 먹었을 것입니다. 스탈린과 코민테른이 매우 교묘하고, 지하작전에 능합니다. 신탁통치 했다면, 한반도가 전부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우리 정통 세력들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면서 반쪽이지만 국가를 세운 덕입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러시아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막연한 민족주의에 몰입을 해선 안 됩니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러시아, 일본과도 모두 잘 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싸움이 능사가 아닙니다. 분을 참고도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좋습니다. 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전문가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한자도 쓰지 말자는 이야기도 일부 있지만, 저는 한자를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어와 글이 두 나라를 가깝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일본과도 가능하면 잘 지내야 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지만,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여야 합니다.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합니다.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덜란드가 잘사는 이유가 뭔가요. 외교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안보가 되고, 통일이 됩니다. 데모 많이 한다고 통일되진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만 대한민국은 통일이 됩니다.

저는 통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다른 지역 지방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 경기 북부는 고민 끝입니다. 연천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정중앙 아닙니까? 신의주, 북경, 모스크바, 유럽으로 뻗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통일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북한의 도시, 집, 도로, 공장, 광산 등 일자리가 생깁니다. 또한 북한엔 산에 나무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30년 동안의 일자리 걱정이 끝납니다. 독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걸 할 때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주 지역이 확 발전할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배 타고 산동성 가겠습니까? 열차 타고 연변 가겠습니까? 열차 타고 두 시간이면 중국 갑니다. 중국 동북 3성이 지금은 낙후됐지만, 남북이 좋아져서 열차만 다녀도 동북 3성이 먼저 발전하게 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지만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를 택했는지, 그들의 투쟁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6·25가 누구와 누가 싸운 건지 잘 모르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6·25가 북침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에서 북을 침략했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답하기도 합니다.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사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외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사를 바로 알고 정통성, 정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나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봅니다.

두 번째, 부패즉사 청렴영생의 정신으로 세계 10위권 내의 청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 내부 개혁이고, 그중 공천권에 관련된 비리, 보스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치 확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흉악범, 스무 명 이상 난도질을 하고 토막을 낸 이런 사람도 대법원까지 사형 판결을 해 놓고는 아직 집행을 안 합니다. '내 임기 동안엔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넘쳐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으니 다음번에', 이런 암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사형 판결을 다 해 놓고 인기 떨어질까 봐 집행을 안 합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눈치를 먼저 보고 법치를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만 행복해집니다. 도지사로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기도 1,250만이면 싱가포르보

다 4배가 넘지 않습니까. 적은 인구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치가 없습니다. 전부 서울입니다. 모든 언론도 지금 서울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2할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3할, 4할 정도로는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걸핏하면 중앙언론과 국회가 나서서 지방의 토착비리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지금 멸절한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만 40조 넘게
씁니다. 세종시 하나는 발전해도 전라도,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
까. 토착비리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를 강화해야만 대통령
불행도 막아 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어도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 4% 이상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규제를 다 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건폐율
이나 용적률을 100%로 규제해서 기숙사를 못 짓습니다. 기숙사를
만들어야 근로자들 복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일자리 복지
를 위해선 풀어 줘야 합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
구 과밀 걱정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입니다.

집에서도 아이 낳으면 양육수당을 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특히
365일 24시간, 이천 하이닉스 아미어린이집에서 밤에 근로하는 분
들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이 딱 차서 증축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3교대 공장 근로자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엄마는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아이는 1시면 집에 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돌봐 주는 꿈나무 안심학교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주택 활성화입니다.

지금 경기도도 세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주거 보조금도 주고, 주택과 일자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아서 교통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들도 일하기 쉽도록 할 것입니다.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채무 조정제를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학교를 학생들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선생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너무 선생님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열 번째, 강력한 안보와 통일 추진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기도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조류 관련 팔당 방문

일시 2012년 8월 10일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기상 이변 중의 하나인 지나친 폭염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의 임남댐(금강산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아서 북한강 방류 수량이
3분의 1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약 13억 톤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방류 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특히 복지 예산, 보육, 학교 급식
등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재정이 최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하겠습
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수질이 악화된 책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입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값은 받고, 수질 개선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원수 자체에 녹조가 생겼는데, 물값을 안 받아 간다면 우리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값은 다 받아갑니다. 시장의 원리로 보면 안 맞습니다.

따라서 책임·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자연재해 등은 물값이라도 좀 깎아 주든지, 아니면 수질 개선이나 정수처리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 합니다.

무조건 먹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책임 없는 말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좀 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일시 2012년 8월 15일

오늘은 제67주년 8·15 광복절이자,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지 64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12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에 올랐는데, 일본은 11위에 그쳤습니다. 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격파하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짓밟았던 일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 분야에서도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한류스타, 과학기술,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애국선열들께서 뜨거운 피를 흘려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광복

과 호국의 제단에 바치고, 슬픔 속에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가혹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의 폐허 위에서,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64년의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오천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어느 국가보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 낸 국민들의 헌신, 수출을 위해 흘린 국민들의 피와 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시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성취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행복한 선진 통일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2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동서남북, 빈부, 노사, 남녀노소 모두가 손잡고 함께 잘사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선진 통일 강대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 개혁과 선진화를 통해 민주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강력한 안보의 바탕 위에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이자, 대한민국이 세

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新성장동력입니다.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3대 세습 독재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2,400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주와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광활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道인 경기도 1,200만 도민이 앞장서서 통일 강국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기업을 옥죄기만 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모두 걷어 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교육의 열정 위에서 성장과 선순환을 하는 세계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자유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창업하는 대한민국, 배우고 싶은 이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이 꿈꾸는 자유를 가장 편안하게 누리는 자유의 선진국, 자유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전 세계가 지방자치를 통해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활짝 꽃피워야 대통령과 국민, 지방이 다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싱가포르보다 14배, 홍콩보다 9배나 넓은 풍요로운 땅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친환경 녹색 교통혁명, 세계 최첨단·초고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조속히 건설해서 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고, 북경과 동경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키웁시다.

우리 경기도가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신규 일자리의 56%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같은 중첩 규제를 풀어서, 국내외 기업이 앞다퉈 투자하는 일자리 천국 경기도를 만듭시다.

복지와 교육, 의료, 일자리까지 통합해서 위기가정을 돌보는 무한 돌봄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무한 복지 시대를 이룩합시다.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선진 통일 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광복과 건국의 선열들이시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우회

일시 2012년 8월 31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지만,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기우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셨으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첫째,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권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정을 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어려운 점이 수도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도 납득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큰 벽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대한민국 전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국민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여러 가지로 소홀했지 않느냐며 의회를 비롯해 많은 언론인, 도민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두 번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기도에 큰 인명사고 없이, 사망자 및 실종자가 한 명도 없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게 지나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도민들이 도와주시고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계약을 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인천공항 투자의 열 배 이상 투자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단일 투자보다도 훨씬 더 큰 투자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해 준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5년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경기도와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공급하고

고덕 삼성전자가 제조 기반 시설을 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평택에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공장이 있었기에 더 빨리 진도가 나갔습니다.

평택에는 삼성과 LG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두 개나 있습니다. 왜 평택에 들어올까요. 그 이유는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예외적인 허용 법안으로써 대기업 입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기업이 들어오기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평택에서 미군 비행장과 육군, 그리고 해군 2함대사령부, 이렇게 합쳐서 약 천만 평의 땅을 국방 안보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천만 평의 땅을 각종 군사기지로 내놓은 대가로 삼성과 LG가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택 주민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내놓는 대가로 삼성과 LG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도지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 자체의 사정 때문에 알려질 경우 많은 지장이 우려되어 사실 비밀리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의 대기업이 수출과 세계적인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업이 꼭 해외를 찾아가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해서 생산하고 연구해 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투자해 주신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무더위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41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일시 2012년 8월 31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연속으로 두 번 와서 고생이 많으셨죠.

우리가 아직까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험료 부담을 道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태풍이나 침수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촌이 보다 더 안전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섭 회장님,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경기도 농촌지도자 여러분!

농촌지도자연합회는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농촌의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땀으로, 단순 행사가 아니라 평생의 배려로 농업·농촌과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농촌지도자중앙회장이신 김성웅 회장님께서도 오시고 각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경기도 새누리당의 대표이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고희선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이삼순 부의장님, 장오철 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태풍이나 침수 시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주고 계십니다. 많이 달라고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새누리당 소속인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야당이 3분의 2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야만 경기도가 잘 돌아갑니다. 서울시는 앞바퀴 뒷바퀴가 잘 안 맞는데, 우리 경기도는 잘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당 도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뜻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양평군수님, 화성시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 부의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어촌봉사 사회, 여러 농민단체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해 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생산해 내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식량과 소·돼지를 생산해 내고,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인간을 낳고, 가르치고, 기르고, 사는 곳이 우리 농촌입니다. 농촌은 그야말로 모든 경제 활동, 산업 활동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도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도로를 깔고 문화·예술을 한다 해도, 근본은 농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구의 근본을 지켜 주시는 분들이 바로 농민입니다. 농업·농촌은 1차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보육, 관광, 휴양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농촌이 없는 나라는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행히 농업·농촌이 가장 발달했는데, 서울처럼 농사를 아무도 안 짓게 된다면 이런 도시는 생명이 없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농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시멘트 안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논밭, 산들바람, 고추잠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매미 소리, 소·돼지·닭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리입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고, 생명력 있도록 여러분이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아직 교육, 교통, 의료가 불편합니다. 결혼을 못한 총각도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을 항상 대화를 통해 풀어 가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품이 아니고서는 농업과 농촌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를 통해서 전국 농업의 고품격 브랜드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1억까지 보상해 줍니다. 고품질을 위해서는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고품질 쌀, 돼지, 소, 축산품 모두를 최고로 과학화시키기 위해 우리 경기도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전국 최고 최첨단 시설로 경기도 광주에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고품질 농산품을 보다 더 많이 유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¹⁾

지금 FTA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는 합동, 협심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FTA로 턱을 보는 현대기아차, LG,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이 농업·농민이 만드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회사 구내식당, 군부대 식당에서 우리 농산품을 먹고 즐겨주실 때에 우리가 FTA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축산품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까지 세계적인 명품, 수출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 수출을 위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 경기도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산물 전용 유통센터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함. 2011년 4월 착공해 2012년 8월말에 준공, 2012년 10월에 개장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국·도비 480억 원이 투입돼 대지 6만 9,105㎡(2만 1,000평), 건물면적 2만 5,927㎡(7,800평) 규모로 건립되었음.

지금 젊은이들이 귀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농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식히고, 심신을 단련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농촌에 별장을 지어서 살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느낍니다. 더 많은 여가·휴식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에 2~3일씩 농촌으로 가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알고 있을 때 몸소 온갖 악조건과 싸우면서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킨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농촌의 토박이로서 미래를 지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경기도 농업·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만여 명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개막식

일시 2012년 8월 31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사를 주최한 성남시청이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시청입니다. 좋은 시청을 빌려 주신 이재명 시장님 외 시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의 예산을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도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백악관에서 과학기술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 위스콘신대학에 계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네덜란드 부대사님, 폴란드의 상무관님 또한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세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대회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 대회를 네 번째 맞이했는데, 여러분! 경기도가 얼마나 앞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계약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KT, 삼성 등 다양한 기업에서 여기에 지원하고 출품을 했습니다.

아까 폴란드에서 만든 다이스게임을 해 봤는데, 조금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 더 즐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날이 더 발전하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대회를 여러분이 키워 주고, 사랑해 주실 거지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일시 2012년 9월 3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수정 의원님, 세계관광기구 아태지역 국장님 외 주최해 주신 고양시장님, 광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 그리고 여러 정부, 특히 캄보디아 등 많은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4회 세계생태관광총회(World Ecotourism Conference)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생태관광총회는 UN세계관광기구(UNWTO)의 공식 지지를 받아, 2009년 라오스 비엔티안을 시작으로 생태관광의 미래와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제시한 리우회 선언이 생긴 지 20년, 2002년 UN이 세계 생태관광의 해를 선언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생태관광이 새로운 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때에 경기도에서 세계생태관광총

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서 참여나 체험의 관광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UN이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한 이후 지난 10년간 생태관광은 매년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관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08년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미래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어 자연 자원의 합리적 보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 경기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이며, 97종의 멸종 2,700여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수많은 멸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DMZ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DMZ 일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DMZ만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여러 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DMZ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DMZ 보전에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이웃 강원도, 인천시 등의 지역 주민과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안보관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DMZ 남북 청소년교류센터를 건립하고,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DMZ 브랜드화를 조성하는 생태체험·관광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는 안보와 역사적 자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산업의 증가에 따라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투어, 캠핑 열풍 등 자연 속에서 건강을 도모하고 생태 체험을 추구하는 대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관광의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생태관광총회를 계기로 자연자원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귀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전쟁의 폐허를 스스로 체험하고,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 재탄생한 경이로운 DMZ 정취를 마음껏 감상하, 많은 추억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의 달 선포식

일시 2012년 9월 3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님, 함께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이번에 중국에 가서 고생하신 김영환 동지,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이지만, 운동권이 북한 민주화와 인권을 얘기하면 종북파가 볼 때는 굉장히 분열적이고, 남북통일을 저해하고 북한을 모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0년 초 교도소에 있을 때 김영환 동지가 주사파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김일성을 만난 후, (김일성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민을 잘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

는 사람이 아니라며, 해방을 위해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더라고요.

그런데 김영환 동지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에 거짓과 악인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 만나 보니 낙원이 아니고,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마음이 착한 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안 되겠구나' 느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저보다 젊지만 더 용감하고 마음이 깨끗한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오신 우리 이해란 선생님도 현재 음식점을 열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매상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가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통일부 장관님 외 북한인권과 관련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및 많은 단체가 왔습니다. 특히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베드로 목사님 외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특별히 박창달 총재님이 자유총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님께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보다 전임 경기도지사이시고 선진통일당에 계십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인제 대표님이 단식도 잘하시는데, 단식하신다면 정말 잘하실 것입니다.

저는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미국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야당이었는데, 민주당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는, 이 법 통과시키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난다며 자제해 달라고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해서 미국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의원들이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가서 또 결국 통과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경기도는 3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 진리를 밝혀 주시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인권에 대해 가장 깜깜한 나라가 북한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밝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경기도지사로서, 분단된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기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월례조회

일시 2012년 9월 4일

이번에 제가 경선에 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해 주셨는데, 당선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도정 공백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의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선을 하면서 4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고,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패배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정말 독특한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방 안보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쟁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첨예한 국방 안보 현장,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의 공무원이 확고한 국방 안보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대화 자체가 화제에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통일에 대해서 저 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통일이란 책에서 배운 말이고, 실제로 접근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북한에서 시체가 강으로 내려옵니다. 말라리아모기도 날아옵니다. 매일 체감을 하기 때문에 통일의 중요성,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일상적으로 통일을 체험하고 꿈과 구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셋째, 경기도 공무원들이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주변까지 다 부패했습니다. 아직까지 부패와 비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국 청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부패즉사의 각오로 여러분들이 부패와 싸워 이겨 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청렴도 1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도 넓고, 공무원 수도 많고, 일도 많은데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명예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일자리에서 그동안 삼성전자 유치와 LG전자 확장 등, 여러 가지 많은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새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서 볼 때는 자기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LG가 당연히 구미에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뺏아갔다' 하고, '삼성전자도 충청남도 아산으로 와야 하는데, 혹은 세종시에 와야 하는데 왜 경기도로 왔냐'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국회도 세종시로 다 옮겨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도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선) 투표함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 지지율이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 사실 전체 청사가 옮겨가지만, 장사하는 분들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가 상실감이 없습니다.

반면에 옮겨 가는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나 세종시나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는 유치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및 여러 가지 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지만, 지방으로 예산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2할 자치에서 3할 또는 4할 자치로 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청사를 하

나 가져오거나, 중앙에 시위를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해서 무엇을 얻어 오는 데에 치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 권한과 권리로 주장하고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앞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자체에 호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이야기를) 해 봐야 토착비리, 호화 청사, 예산 낭비, 이런 생각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중앙언론 삼자의 합작에 의해 지방의 부정적인 면이 강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 주민들이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지방자치 강화)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일부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자치헌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힘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도지사도 했었지만, 한 번도 정치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지금 지지가 더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하단 생각에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前 지사들도 출마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저까지도 안 되니까, 경기도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자체가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5%의 기본적인 응집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매력이 부족했고, 지역적인 응집력이 약했기 때문에 아마 당선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탈당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하시는 분들이 탈당을 다 하는데 저에게도 탈당 안 하나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또 대선이라는 가장 큰 선거에서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압수수색도 나오고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의회에서도 특위 만들어서 계속 부르고 해서 여러분들 시달리는 점도 많았을 텐데, 참으면서 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태풍이 두 번 오고 폭염과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노력 속에서 태풍 불라벤과 텐빈을 잘 이겨 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큰 피해 없이 극복했습니다. 일부 농작물이라든지 폭우 피해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최근 치안 부분에서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 등 약자의 인권은 더 보호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를 집중,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 편에서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공권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최근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살인범, 그것도 연쇄 토막 살인하는 그야말로 인륜에 반하는 그런 자들은 대부분 1심·2심·3심에서 사형을 다 선고해 놓아서 사형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부터 집행부 전부 다 (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 (보호)입니까. 이번 경우는 최악의 사태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너무나 참혹해서 떠올리기조차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인권을 말할 입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형을 집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도관들도 사형을 집행한 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특이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는 제도가 있고, 법관들이 1심·2심·3심 사형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을 미루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해괴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점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는 결론이 나 있는데, 공직자들이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대표적으로 흉악 범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평화를 중시하기 위해서 국방 안보를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사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

해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무기를 없애서 평화롭게 농사를 짓자' 하면 전쟁이 없어집니까. 춘추전국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무기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궤변으로, '무기를 다 없애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형을 집행 안 하면 인권이 지켜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 약자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누워서 자는데 흉악범이 들어와서 이불째 들고 가서 성폭행을 하는 사실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지,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고 하는 게 사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기도는 넓고, CCTV를 아무리 달아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범죄에 노출되는 약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요즘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안전하고, 일자리가 많이 있고, 가정이 건강하게 잘 지켜지고, 개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많은 정치적 논란과 공직 속에서 힘드셨을 텐데, 참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완벽히 아무 문제 없이 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런던올림픽 선수단 격려

일시 2012년 9월 7일

여러 말씀이 필요 없겠죠. 선수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메달리스트인 송대남 선수 및 황경선 선수 두 분은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보다 박수 세 배 더 많이 쳐 주세요. 그리고 은메달리스트 이대훈, 최영래 선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펜싱의 동메달리스트 남현희, 오하나, 정진선, 최병철 선수들 모두 역사적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신 정훈 대표님, 장성호 국가대표 감독 및 지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우승하실 때까지 선수들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동의한 올림픽 메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을 명예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친 것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 위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박수 크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금메달 딸 때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밤늦게까지 TV를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 붙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지금은 당당히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 메달 8개를 땀는데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어떤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 하실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은 지금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 관계인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최우수 수준으로 올라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수들 송대남, 황경선, 최영래, 남현희 외 여러 선수 여러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일시 2012년 9월 11일

의원님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 도정에 소홀하여 도정의 일정한 공백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며 출마하였는데 당선되지 못하여 죄송하고,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출마해서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이기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최근에 세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세가 우리 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최근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세수의 20% 이상이 줄었습니

다. 원래 감액 추경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취득세를 인하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경기도에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아무쪼록 지역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규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이 고쳐지지 않아서 수천 개의 기업이 경기도를 떠나야 하는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 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공무원이 의원님들의 지역 활동, 국회 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북부기우회

일시 2012년 9월 12일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갔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당선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주 날씨도 덥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도 보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 자신이 매력이 부족하고 실력과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는 점에서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중요한 패배의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겸허히 돌아보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혁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지방이 못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고향인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다

른 지방에서 다들 '경기도만 다 가져가고 발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당신이 발전시킨 게 뭐가 있나'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불평불만이 참 많고, 좋아진 데가 없습니다.

연천, 가평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늘었습니다. 이 신세계백화점도 멋지게 잘 지어져서 저는 의정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신세계 의정부 지점장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 제공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의정부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시고,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방은 도로·철도가 부족하고, 수해만 나면 하천이 넘칩니다. 하천의 용치(하천 내 탱크 저지용 군사시설)부터 시작해서, 길을 가면 방호벽까지 보입니다. 연천의 98%, 경기 북부 전체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사단장 도장 없이는 화장실도 못하고치는 답답한 형편이면서, 100%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의정부에 을지대학병원 등이 들어서고 각 지역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에 삼성전자가 약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를 합니다. 대한민국 단일 투자 중 최대 규모로서 (투자 확정예) 5년 이상 걸렸습니다.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연천, 동두천, 포천 등이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람도 좋고, 땅도 좋고, 인심도 좋은데, 다들 교통이 안 좋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대전 가는 게 더 빠

르다고 합니다. 연천 가는 것은 부산 가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최전방이 이런데, 대한민국 국가의 양심에 염치가 없습니다. '지사가 이런 말 할 수 있나' 하겠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道가 SOC 사업을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데, 불행하게도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도세의 3분의 2가 취득세인데 20% 줄었습니다. 2,000억 이상 감액 추경을 해야 합니다. 취임 이후 최악입니다.

취득세가 도세의 66%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취득세를) 반토막 내겠다고 인하 결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리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지방이 문 닫아야 할 판입니다.

제가 경선을 위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계속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박수 쳐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지방자치 강화되면) 지방 토호들과 결탁해서 비리와 호화 청사 짓는 것 아니냐 하더라고요.

경기 북부 지역은 신세계를 비롯해 대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따라옵니다. 규모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장사도 잘되고, 연관되는 중소기업과 대학 우수 인재들이 몰려오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큰소리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줄고, 세금이 줄고, 전체 가용 자체가 줄어서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뜨겁게 더 집중해서 이 부지의 발전을 위해 제 신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장성빈 회장도 실제로 포천에 오셨습니다. 기업하러 오신 것이 아니

라 포천에 어린이과학박물관을 지으려고 오셨는데, 저는 대환영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오신다고 하면 저는 환영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 분양이 반밖에 안 됩니다. 접근성과 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세일즈맨이 되어, 최전선의 투사가 되어 중앙정부와 맞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희망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 파이팅을 외쳐 봅시다.

파이팅!

KRA 시흥 승마힐링센터 개원식 및 MOU

일시 2012년 9월 19일

오늘 시흥 승마힐링센터 설립에 15억 전액을 마사회(KRA)에서 부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흥을 택해 승마힐링센터가 열려 정말 기쁩니다.²⁾

한국마사회에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장애청년 바리스타 교육에 6억 원, 어린이승마교실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십니다. 경기도 농산물직거래센터도 운영해 우리 우수한 농축산물의 판로를 열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저세 2천억 원을 경기도에 내 주셨습니다. 또 과

2) 경기도는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승마힐링센터를 시흥시 은행동에 유치하여 2012년 9월 19일 개원함. 시흥 승마힐링센터는 국내 최초로 승마 시물레이터를 도입한 힐링센터로 인터넷중독, ADHD, 지적장애, 신체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승마를 통해 치유하고 있음.

천에 898억 원의 세금을 내 주셨습니다. 경기도와 합치면 3천억의 세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승마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 고급한 레저스포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흥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와 손을 잡고 가용 부지에 좋은 승마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마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사회복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레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흥의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유망하고 새로운 교육 치료와 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선수단 해단식

일시 2012년 9월 20일

이번에 경기도를 전국 일등 기능道로 만들어 주신 메달리스트 여러분께 큰 박수 한 번 드립니다. 지도교사님, 선수단, 선수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인데, 그 한류의 밑바탕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한국 제품이라면 TV, 냉장고, 핸드폰, 선박 등 모두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이 일본 소니를 꺾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해내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자랑하기에, 대한민국 일등 기능인은 바로 세계 일등이라 확신합니다.

한류스타 중 스타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강남 스타일'보다 우리 국민이 더 알아주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디자인도 성능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가 봤지만, 우리 제품이 최고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인이 가장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 한류스타 중 스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우회

일시 2012년 9월 21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큰 구도가 잡혀서 후보가 세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여러 현안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돼 잘 수용됨으로써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대통령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 계시는 지도자들께서도 함께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즈음에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은 각 정당 간, 후보 간 경쟁입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또는 선거를 앞두고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경쟁해야지 종북파, 그야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적 주장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는 그런 주장은 어떤 선거, 어떤 경쟁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제어하고 징벌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사항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시장경제가 무엇이냐는 여러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 1948년 국가 건국 이후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역대 정권 수립 자체를 부정하고, 역대 대통령을 모두 부정하면 결국 답이 됩니까? 국가의 역사와 국사, 특히 대한민국의 국사, 역사에 대한 정통성을 대통령과 모든 국민은 근본적으로 존중하고, 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즉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분배, 이 사이에 적절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과 경제를 말하면 수구꼴통으로 취급하고, 복지와 분배를 말하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과 잘못이 최근 일어나 여러 가지로 갈등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9%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도 초고속 성장을 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독재가 있었습니다. 성장과 독재가 함께 갔던 시대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점과 밝은 점이 함께 갔습니다.

하여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1970~80년대에 9%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했기에 오늘날의 문화도, 한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들어 이것이 6%가 됐고, 2010년 3% 성장률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올해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후년도 비관적이라 합니다. 성장 자체가 완전히 정체돼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복지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 무엇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복지, 분배, 성장, 경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발전돼야 합니다. 누구를 끌어내려 뺏어 나눠 주면 나머지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선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주목해서 우리가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를 극단적으로 대립시켜서 문화는 중요한데 경제는 안 좋은 것처럼 말해선 안 됩니다. 경제를 빼고는 한류 문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제 중 중요한 것이, 누가 뭐래도 제조업이 튼튼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조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 자체를 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정신 사이에도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너무 물질 위주로만 돼 자살하고, 이혼하고, 아이 안 낳고, 생명과 사랑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과 사랑의 중

요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 통합적으로 해야지, 극단적 분리로는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극단적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다녀 보면,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못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극단적 분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다들 어렵습니다. 이제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각 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감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통합적이고 화합적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세력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간에도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다 같이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경쟁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범위 내에서 서로 차별성을 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가장 통합적인 곳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전국 팔도에서 다 와 계십니다. 산촌, 도시, 제조, 서비스, 문화, 예술 모든 것이 가장 통합돼 있는 곳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로 간 갈등하기보다는 화합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경제와 복지, 정신과 물질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경기도의 리더십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잘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다가오고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를 잡아 주실 분들이 바로 우리 지도자 여러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모쪼록 추석 명절이 모든 우리 민족과 또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도 보름달처럼 원만하게 통합할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일시 2012년 9월 21일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우리의 현실이 있는 이곳, 바로 DMZ 철조망을 마주하고 있는 곳, 이렇게 잘 지어 놓은 도라산역이지만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이곳에서 영화제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기덕 감독님이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게 된 데 대해 박수 한 번 드립니다.

귀한 분들과 우리만 이렇게 좋은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꿈보다 더 진한 꿈을 안고 있는 이곳 도라산역에서, 그리고 어떤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DMZ에서 좋은 자연과 함께, 그리고 그 누구도 지우지 못할 짙은 통일의 꿈을 안고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일시 2012년 9월 26일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신 것은 물론, 보릿고개를 넘어 지금은 핸드폰 등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본의 전자·가전과 핀란드 노키아 등이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시죠? 우리는 '한국 스타일'입니다. 미인의 상징이 양귀비보다 소녀시대가 됐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과 미용 제품을 사러 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명품입니다. 세계인들은 한국인이 머리도 제일 좋고, 손재주도 제일 좋고, 학력도 제일 높고, 눈치도 제일 빠르고, 팀워크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지난 64년간 식민지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장수하는 의료 강국뿐 아니라 노래도 잘하는, 세계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노인 45%가 절대빈곤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래 사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돼, 절망에서 자살하시기도 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받으시고, 오히려 오래 사시는 것이 걱정거리가 돼 버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몹시 어려운 분이 계시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여기 계신 도의원, 시의원 분들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무한돌봄 제도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또 독거노인, 어르신상담센터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내가 해방 이후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조국이 나의 피와 눈물 땀을 잊지 않고 나를 돕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을 모두 함께 만드는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노사민정협의회

일시 2012년 9월 27일

오늘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노동자 수도 많고, 노조도 많은 것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물려 있어, 국내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도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섭니다.

최근 싸이가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고, (런던)올림픽에서도 5위를 하여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적과 성공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파스퇴르 연구소에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연구소 소장 및 책임자들이 저명한 의학, 생화학, 제약의 권위자들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판교 파스퇴르 연구소를 보고 다들 놀라고, 여러 가지 임상 단계의 연구 실적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대한민국의 IT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가 넘는 연구소가 판교의 파스퇴르 연구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부지런하고, 학력이 높고, 팀워크가 좋으며 모두 다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사관계도 잘되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최근에 쌍용차의 노사관계가 국회 청문회에도 나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쌍용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쌍용차의 기업 책임자 등이 1조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투자할 수 있는지 하는 우려를 국회 내 서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가 정치권의 관심 속에서 국회 중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순조롭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어려울 때 노사가 단결하고, 전 국민이 단결하면 유럽을 확실히 능가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도 정치, 경제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앞지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협력적인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

일시 2012년 9월 27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경기도도 빛나고, 대한민국도 빛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메달을 따 주셨습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빛나는 결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역경을 이겨 냈고, 마침내 정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을 기리면서 다시 한 번 선수단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일본 NAD사 투자유치 협약식

일시 2012년 9월 27일

이번에 동탄 지역에 투자해 주시는 일본 NAD 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삼성의 투자처이고, 신도시이자, KTX·GTX 등 철도 시설이 있어 매우 뛰어난 입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진출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경기도가 적극 돕겠습니다.

일본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도 많은 수입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일본을 많이 찾고, 교류도 잦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민관군 협력 안보테마공원 개장식

일시 2012년 10월 4일

민관군이 협력해 처음으로 안보공원을 마련해 기쁩니다.³⁾

주민과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20사단장님을 비롯한 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장병 여러분이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 주시고 계시는 덕분에 마음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평화를 위해 땀 흘려 주시는 여러분께 경기도와 양평군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민관군 협력으로 마련된 안보테마공원 개장을 축하드립니다.

3) 경기도는 양평군 및 육군 제20사단과 협력하여, 군부대 연병장을 주민들의 체육시설과 안보공원으로 개방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선보임. 2012년 10월 4일에 개장한 양평군 소재의 '안보테마공원'은 20사단이 사용하던 부대 내 연병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안보 교육관, 병영도서관,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춰 민간에 개방되었음.

제5회 경기도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일시 2012년 10월 5일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 이젠 OECD 평균보다 더 낮아져 기뻐합니다. 어머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지만, 누구보다 어머님들의 지극정성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어린이 폭력에 대비하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번 요청해 오신 CCTV를 내년 중 4,900대 이상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것입니다. 도와市에서 각각 186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국가 예산을 보태 내년 중으로 요청분 모두를 설치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일반 범죄도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위험·취약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각 가정에 하나둘뿐인 귀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와 경찰 모두가 힘을 합치고 어머님들의 간절한 사랑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머님들이십니다. 김연아 어머니처럼, 스के이트장이 없는 곳에서도 세계 일등 피겨스케이팅 딸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맹자 어머니가 최고였다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세계 최고의 어머니이십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일시 2012년 10월 9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다들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경북 영천군 임고면 구석진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에 전깃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는 1950년대 태어나서 서울대 경영학과 70학번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서당에 다녔습니다. 명심보감을 공부했는데,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돕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화를 내는 권선징악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논어, 사서삼경 등을 저는 공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 가치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공부를 하였는데, 어릴 때는 워낙 가

난하여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어릴 적 꿈은 밥을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쌀밥을 실컷 먹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설날 굉장히 추웠을 때, 양말 한 켤레 신어 봤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보통 맨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설날에는 양말을 신고 싶었습니다. 명절에 양말을 새것으로 신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양말 20켤레 중에 골라서 신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꿈을 이제는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다시 가서는 안 되며,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잘사는 것은 웬만큼 다 이뤘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과외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영천에서 대구·경북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니 부모님 첫마디가 '부담스러워서 큰일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친척집 구석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중1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했습니다.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을 또 하겠다고 법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헌책방에 가서 사상 관련 서적을 봤는데, 매우 세상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3선 개헌도 매우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학교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문제 있음을 인식하고 데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때 데모하러 가자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기념탑 앞으로 가서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문수야, 뭐 하나 써라. 잘못했다고 쓰면 한 번 봐주겠다.' 하며 반성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공부 안 하고, 데모한 것이 잘못이다. 이 답답한 친구야, 위에다 말해서 너 봐주려고 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 하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거짓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반성문을 쓰지 않고) 고3에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녁에 술 마시고 들어오시더니 '너 후회 안 하느냐.' 물으시기에 저는 '교과서대로 했는데 후회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날부터 학교 갈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학교에서 보자고 하더니 용서해 준다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다녔고,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에 다니는데, 대학에 다녀 보니 첫 시험에 사지선다형 시험을 봤습니다. 겨우 괄호 메우기 정도인데 서울대학교 시험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이런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닌데,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이 훨씬 수준이 높고 저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운동권 선배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서클 회원을 모집하더라고요. '선진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에 '필'이 꽃혔습니다. 그때부터 서클에 가입했는데, '후진국사회연구회' 이런 서클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동구 민주당 국회의원인 심재권 씨가 당시 우리 서클의 1년 선배인데, 그분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강의를 듣고, 데모하다가 2학년 초에 제적당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강제 징집을 당했다가 징집 면제가 되었는데,

시골에서 농사짓기가 답답해 서울에 올라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청계천에 전태일이 있었는데, 전태일 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서울 창동의 아파트가 바로 전태일의 집이었는데, 거기 찾아가서 청계천의 노동자 간부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전태일이 죽었습니다. 전태일은 '나에게 대학 나온 친구가 있었다면, 한자로 된 근로기준법을 배웠을 텐데'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법이 한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계천 간부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청계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그때 학교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11시 이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월급을 너무 안 주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머리로 하는 것을 찾다가, 보일러공 시험을 쳤습니다. 망치질을 하려니까 손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땀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사시험을 치면서 자격증을 8개를 땀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공장에 바로 취직을 했는데,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봉급이) 5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좀 살만해서 그 공장을 잘 다녔는데, 그 공장에서 노조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도루코 면도날 공장의 보일러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면 1,000명 정도 될 큰 규모였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다닌 지 2년 만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봉급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급을 제 날짜에 달라고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시해되어 돌아가셨고, 바로 1980년에 제가 남영동에 붙잡혀 왔습니다. 서울대 졸업생 70명 정도가 잡혀왔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가선 일주일 이상 고문을 당했습니다. 도중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여 석방되었는데, 저 이외의 간부들 50명 이상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이 명동성당 김수환 추기경도 찾아가서 호소도 했는데, 그래도 복직이 안 되더라고요.

(석방되어) 출근을 하려니, 회사 측 사람들이 모두 막아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후 노동자 1,000명 이상이 파업을 했는데, 그때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1980년 5·17에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또 삼청교육대에 수배돼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 '칫솔 부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당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 왈, 어제 자기 집사람이 한숨도 못 잤다더라고요. 저를 숨겨 준 게 들통이 나면 안기부에 가서 맞고 직장도 잘립니다. 당장 안 잡혀도 나중에 저의 행적을 죽 적어서 저를 도와준 게 드러나면 다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내가 이 가정을 파탄 내겠구나' 싶어서 다른 친구 집에 옮겼는데, 그래도 똑같이 친구들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당시 구로공단에 세진전자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만드는 곳 이었는데, 그 공장 노조위원장과 같이 영등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여성 노동위원장이었는데 그 자매가 마침 빵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저를 숨겨 줬습니다. 그때 그 여성노동위원장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전라도 순천이 고향이고 저의 고향은 경북입니다. 우리 집에서 '왜 하필 전라도 여자냐' 하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어젯밤에도 집사람과 잘 자고 나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이번에도 경선을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많이 나오고, 친가인 경상도에서 표가 가장 안 나왔습니다. 역시 처가가 최고더라고요. 경선 이후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을 더 예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일도루코 노조 간부가 다 잡혀가서 육군본부 지하 병커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들이 얼마 전 국가에 소송을 걸어 재판했고, 이번에 32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자 2,800만 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는 진술서만 써 줬습니다. 저는 이미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을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이미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조위원장으로 두들겨 맞고 했지만, 이후 저는 제 잔이 넘칠 정도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 소위 블랙리스트가 뚝했습니다. 공장에 취직을 하려면 블랙리스트들은 취직을 안 받아 줘서 할 수 없이 집사람과 서울대학교 앞에서 책방을 차렸습니다. 청첩장도, 반지도, 드레스도 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담당형사는 분명히 위장결혼이라며 의

심했습니다. 시위를 하려는 걸 거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사회 보는 사람도 노조에서 쫓겨난 사람이 했습니다. 하객도 별로 없고, 전경이 많은 데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봉천 7동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서울대 후문쪽 작은 단독, 단칸 방을 얻었습니다. 그 방이 너무 추웠는데 거기서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 당시 손이 얼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방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이 열고, 애 손이 다 얼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조를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성남, 구로공단, 부평, 주안, 대구, 마산, 부산, 광주, 이런 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집사람은 장사를 했고, 저는 돌아다니며 노조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쫓겨나고 해고된 사람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당시 전태일기념관을 샀습니다. 가톨릭의 수녀원을 통해 신부님이 해외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기념관을 샀습니다. 제가 초대 전태일기념관 사무장을 했고, 전태일어린이집도 샀고, 광주공단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놓고 공장에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애는 사실 어린이집에서만 컸습니다. 1982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자랐습니다. 집사람은 애를 자기 품에서 못 키운 것을 매우 가슴 아파 합니다. 집사람은 딸 하나를 낳고 만족해 했는데, 저는 딸 하나를 더 낳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당신 돈 벌어들 자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낳았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이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 우리는 유인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찍어서 나오는데, 잠복한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면 군부 정권의 잘못된 점을 모두 유인물에 썼기 때문입니다. 송파 장지동 보안사령관에서 저를 붙렸습니다. 심상정, 유시민 씨의 여동생도 우리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혔습니다. 저는 잡혀서 보안사령관에서 엄청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목포교도소, 광주교도소에 가서 독방에 살다가 88올림픽 이후에 석방되었습니다. 2년 6개월 교도소살이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동북권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회주의자, 엄밀히 말하면 민중 민주주의자였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민중 민주주의는 모택동의 인민 민주주의와 비슷한데, 당시 공산당의 사회주의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사파도 처음 나왔습니다. 교도소살이 중 집사람은 책방을 했습니다. 당시 목포·광주에서만 2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애를 데리고 면회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물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자동차 모양의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머니에 숨겨 왔다가 애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작년에 시집가기 전, 딸아이가 보여 주더라고요. 저는 교도소 일이었기에 잊었는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잊지 못할 추억이었나 봅니다. 25년 전의 일인데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 아빠로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교도소 간 후배가 5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 허리가 부러진 사람, 혹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119 사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학교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산골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문병을 갔다가 그때 제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난 전화인줄 알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 '문수야, 졸업 좀 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니' 였습니다. 1975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1977년에 돌아가셨는데 '졸업하고 데모해도 되지' 하셨습니다. 저는 1970년 대학에 입학하고, 1994년 코스모스로 졸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20년 후에 졸업했습니다. 저 같은 불효자가 없습니다. 7남매 중 저만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을 저는 제때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민주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교도소에서 나오니, 그때는 노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되겠다고 확신했습

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주사파인 김영환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수령이었습니다. 저는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에서 1990년 되어 독일, 소련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공산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직 안 무너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사실상 중국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옆에 있습니다. 독립적이면서 강대한 나라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성주의를 싫어했습니다. 1992년 민중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하고 나니,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고 득표율도 낮아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가 당시 구로공단의 노동위원장으로 있다가 남편과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저보고 소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삼이 민자당에 있었고, 저를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입당하여 선거를 할 당시 부천 소사구에 박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버지가 초대 상공부 장관이었는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 1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 박지원 씨. 그분은 당시 미남에, 미국의 한인회장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부천은 호남 출신이 30%였고, 저 같은 경상도 출신이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만 나면 제가 따라가서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부천 소사는 저지대인데 비만 오면 지하 단칸방이 다 젖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찾아가 도와 드릴 것 없냐고 하고 도왔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여성들에게 호감이 가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25년 넘게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전라도 출신이나 충청도 출신이나 (어느 쪽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선거 동안에 열세하다가 선거 3일 전부터 일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는 기성 정치와는 다릅니다' 당선만 되면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국회의원인데, 저는 당선 후 그다음 날 새벽에 어깨띠 두르고, 선거 옷 그대로 입고, 부천역 지하도에 가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선거 안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다니니, 당에서도 '김문수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당 대표가 말하기를 '정치는 고향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신한국당에서는 경북 영천은 '자갈밭'이어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소사에서 연속 두 번 이상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열심히 했습니다. 돈 안 받고, 부정한 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돈 안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으니 이사를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와서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잘 아는 후배가 트렁크에 돈을 싣고 와서 돈을 주는데, 제가 안 받으니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안 받았습니다. 나 죽이려면 받으라고 했습니다. 돈 하나는 제가 확실히 받은 적이 없습니

다. 그래서 제가 공천을 매우 냉정하고 깨끗이 했습니다.

그 후 도지사를 하려고 하니, 주변 사람 왁 '경상도지사를 하지, 경기도로 가냐'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갖고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7년째 하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란 첫째, 365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9 소방대는 명절 때나 새벽이나 밤이나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말하기를, 아내가 갑자기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아들딸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옷을 입는 동안 119가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119에 가니 응급실 의사가 나와 있다더라고요. 아들보다, 딸보다 119가 최고입니다.

저는 119를 3교대로 바꾸고, 직원 정원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최고의 119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도 용건을 다 들어주고, 추석이나 새벽에도 다 들어줍니다. 365일 24시간 다 들어줍니다.

경기도는 1,200만 도민에게 개인 맞춤형 복지를 합니다. (기존 복지)는 노숙인이라도 주민등록을 해야 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주민등록을 만들어 줍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도와주고, 자녀 학교도 보내 줍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도망 다니고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데, 집이 있어서 주민등록상에서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다 도와줍니다. 서류와 상관없이 도와줍니다. 이런 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즉시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바로 도와 드립니다. 우리 복지공무원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나라 청렴도가 43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청렴도 1등을 왜 못하냐고 제가 그랬는데, 땅은 서울의 7배인데 직원은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돼서 청렴도 1등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온) 감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이 자기 동료이니까 재판을 열심히 안하고, 법도 이상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무능한 공무원은 봉급만 축내지만, 부정한 공무원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퍼스트,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이도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세계 1위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까? 이혼율도 세계 2위입니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베스트'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머리가 가장 좋고,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부지런하기도 제일입니다.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팀워크도 매우 좋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가 67년째입니다. 일본 하면 전자를 알아주는데,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다 앞섰습니다. 애플도 노키아도 앞섭니다. 조선, 노래, 피겨스케이팅 모두 1위입니다.

김연아는 경기도 홍보대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군포시는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선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김연아가 밴쿠버 금메달 딸 때는

집사람과 함께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영웅입니다.

예전에 미인은 양귀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성들이 예뻐져서 나타나면 '너 한국 갔다 왔지' 한답니다. 양귀비의 본고장에서 '한국 가야 예뻐진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스마트폰이나 물건을 더 잘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래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통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과 김성수가 우리나라를 건립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살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연아, 싸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대합니다.

북한을 보면 갑갑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통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임진강에 (북한에서 온) 시체가 떠내려 옵니다. (북한은) 학교도 없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경까지 열차로 4시간 걸립니다. 우리들이 만주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 한 대로 통일 후 대륙까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12 경기축산 G-페스티벌

일시 2012년 10월 12일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날씨의 호수공원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경기도 축산을 위해 땀 흘리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강한 종자로 개량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예방을 위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산 농장의 환경 개선과 주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질병에 강한 획기적인 종자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은 세계 5~6위권입니다. 축산에서 여러분이야말로 (FTA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FTA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지

않으면서 땀 흘리십니다. 축산·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분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모든 국민들이 사랑해 주시는 신토불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힘을 합쳐 학교 급식에서 G마크 축산품을 소비합니다. 올해는 FTA로 피해를 보는 축산인들의 농축산물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값싼, 믿을 수 없는 농축산물보다는 그야말로 신토불이,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우리 어린이, 직장인, 군인들,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착한 소비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 자동차, 조선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 역시 실력이 축적돼 세계 일등 못할 것이 없습니다.

힘을 합쳐 함께 외칩시다. 축산인 여러분 파이팅!

광명소방서 이전 준공식

일시 2012년 10월 15일

우리 광명소방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235억이 들었는데, 국비·시비가 단 1억도 안 들었습니다. 오직 도비 100%로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새누리당 출신 도지사입니다. 경기도에는 새누리당 아닌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경기도가 여소야대 지역인 만큼, 힘을 합치지 않고는 소방서가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도의원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특별히 윤화섭 의장님, 조양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방서는 경기도지사인 제가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소방은 6,000명입니다. 경기도는 일반행정 3,000명뿐입니다. 그만큼 소방이 경기도정의 핵심입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소방서 나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소방 업무는 70%가 국가 업무입니다. 미국 등 외국도 국가가 대부분 소방을 책임지는데, 우리는 경기도가 99% 소방 예산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여기 오시면,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도와주실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반면 군인과 경찰은 국가에서 100%를 합니다. 선진국은 교통과 경찰 등을 지방에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도 소소한 것은 지방에 넘기고, 소방도 40% 정도는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소방관이 매우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나 밤낮 없이 소방이 교대로 쉬지 않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만 유독 지방에 다 맡기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로 대통령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9월 28일에도 우리 소방관께서 순직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십니다. 어떤 직업보다 사망자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3교대를 하는데, 경찰은 4조 3교대를 합니다. 3조 3교대를 아직도 80%밖에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서도 더 지어야 합니다.

(소방에 대한 지원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데 비해 우리 소방관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 끄는 게 아닙니다. 물론리, KTX 사고가 나도 소방이 출동합니다. 불 끄고 물론리 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소방만이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숨이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바로 119가 뛰쳐나갑니다. 어떤 효자보다 더 빨리, 부모님 위험할 때 자식보다 더 빨리 와서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제일 빨리 나와 응급처치를 합니다. 진짜 효자는 자기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119를 부릅니다.

산꼭대기에도 와서 도와주십니다. 아톰만의 영웅을 구하신 아주대 이국종 교수 아시죠? 이런 응급 경우에도 경기도 헬기가 출동합니다. 충청도, 강원도까지도 가서 도와줍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65일 24시간 애쓰는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 등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장식

일시 2012년 10월 15일

우리 유통센터가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229억 원을 지원해 주신 농림수산부 기획실장님께 박수 보내 드립니다. 보통 국비를 우리 경기도에는 잘 안 주는데, 특별히 이번 건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비는 251억이 들었는데, 이는 2만 1천 평 땅값이 들어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땅값까지 따지면, 최하 300~600억의 도유지에다 도비까지 합쳐 거의 1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유지에 대한 용도를 허락하고 도비를 배정해 주신 도의회 이삼순 부의장님, 허재안 전 의장님, 강석오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애를 많이 쓰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발전과 깨끗한 학교 급식 등에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조억동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운영을 맡아 주실 농협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사를 해 주신 한화건설에도 감사드립니다.

공공을 위해 도와 시와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곤지암읍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농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한 치의 여유를 주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내 모든 유통센터나 농산품 등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책임지고 검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검찰까지 동원해 모든 공직자들이 부정하고 나쁜 음식을 유통한다거나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온 모든 먹을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농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부지 확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뢰하는 농산물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노력할 것입니다.

유통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위생 수준을 높이 유지하고 안전하고 영양 높은 먹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국 의승군 추모행사

일시 2012년 10월 16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원장, 도승 중앙총회 의장 스님, 진명 조계종 문화부장 스님, 경우 주지 스님 오셨습니다. 또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장준규 특전사령관님 특별히 오셨습니다. 또 장병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1,200만이 넘습니다. 서울과 대전을 합친 것보다 10만 이상 많고, 땅도 서울보다 더 넓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현재 다 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절과 산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알아보고자 조사를 해 왔습니다.

남한산성은 도에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알아보니,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는 곳이더라고요. 산성의 요새

가 훌륭하고, 이 안에 많은 주민이 살았습니다. 광주 유수가 있던 곳입니다. 강남구에는 봉은사가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분당, 성남 이게 다 옛날 광주입니다. 전부 '광주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뿌리가 남한산성입니다.

그럼 이 남한산성을 누가 쌓았습니까. 모든 기록을 보면 스님들이 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이 열 곳이 있습니다. 장경사, 망월사를 비롯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한 절에 보통 50명에서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오랑캐들이 오면 맞서 싸웠습니다. 요즘 말로 '공수 특공단 스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성을 쌓고, 오랑캐가 오면 앞장 서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축성 과정과 전쟁 중에 많은 스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장경사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쯤 되어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절을) 다 태우고 하나 남은 것이 이 절입니다. 왜 태웠냐면, 최신식 무기 전부를 이 절에 보관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복하려는데 절과 스님을 없애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스님들입니다. 이 절은 그냥 절이 아니고, 그냥 산성이 아닙니다. 역사와 나라를 지킨 숭고한 혼이 깃든 곳입니다. 장경사의 신도 여러분, 경우 주지스님, 우리 남한산성을 보존하는 데 전부 남한산성 지킴이 될 수 있지요.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옛 역사를 복원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가 정신이 있고, 역사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여기 신도들과 보살님들, 광주시민 여러분, 앞으로 절도 잘 지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불교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일시 2012년 10월 30일

수상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농림수산의회의원님 등 이렇게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농림 예산을 확실히 지원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림 예산이 부족한데,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 중 G마크 농산물에 80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광주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준공해서 개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경기도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카타르를 다녀왔습니다. 인구가 150만 명밖에 안 되

는 작은 사막의 땅이지만, 그곳은 기름이 많아 우리보다 5배 잘삽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곳에서 식량안보회담을 만났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막이 한 평도 없지만 세계 선인장 수출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내는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을 가로막는 정신은 '해도 안 된다'는 정신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은 세계 5위입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이 카타르에 식물 공장을 수출하러 갔습니다. 경기도 식물 공장이 농업기술장에 시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첫째, 로봇이 생산을 합니다. 둘째, IT로 농업을 운영하여 습도, 온도, 빛 등 모든 것을 IT로 자동 조절합니다.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도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훼는 온실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재나 공장을 만들 때 단열이 잘되지만, 카타르는 5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런 곳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버섯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게 많습니다. 일본 식품 공장이 세계 1등인데 우리가 더 앞선 것은 IT,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에 따라서 꽃잎이 더 예뻐지고 상추가 더 싱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맞춤형 조명은 일본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우리와 함께하자고 해서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카타르를 중심으로 17개 나라가 사막에서 농업을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전부 수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대대적으로 강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곧 농업진흥청이 (경기도를) 떠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 농업진흥청은 정조 시대부터 200년 동안, 식물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어 온 곳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표를 받으려고 농업진흥청을 지방으로 옮깁니다. 200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없애고 지방에 또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갈 테면 가라,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진청이 떠나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작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제 1위로 끌어올린 힘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를 소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농민 수가 줄었다는 증거입니다.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매운 고추처럼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수출, 이 과정에 저는 함께할 것입니다. 식물 공장,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후나 어떤 토양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과 농업기술과학 이 두 가지로 얼마든지 농업은 해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정

신, 그리고 과학기술, 두 가지로 해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은 하면 됩니다. 세계 제일이 되어 빛을 받을 것입니다.

허동현 표고버섯 사장님께서서는 사막에서 버섯 농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버섯 하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 러시아, 시베리아 등 극악한 조건의 지역에 절망보다는 희망과 성공, 세계 제1의 신화를 심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파이팅 외쳐 봅시다. 경기도 대한민국 농업·농민 파이팅!

2012 IT 청년창업 콘테스트

일시 2012년 10월 31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IT 분야의 청년 창업 콘테스트를 갖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셨는데, 젊은이들이 아니면 못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첫걸음, 시작이기에 한꺼번에 대박을 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으로 언젠가는 홈런을 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도의원님들 외에도 경기대 총장님을 비롯해 창업을 지원해 주신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즈니스 창업은 가장 복잡적입니다.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안 되

고,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선인장 수출의 세계 70% 이상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물 위에 수정재배를 하여 만든 최고의 선인장을 값싸게 네덜란드, 남미 등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선인장을 수출하는지 전 세계인이 궁금해 합니다. (사막이 없어도) 인공적으로 사람이 가꿀 수 있습니다.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대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개당 1달러 이내, 50센트에서 70센트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일손이 없지, 기술력은 세계 일등입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와 카타르를 다녀왔는데, 모두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끊임없는 불굴의 정신이 대단하다고 인정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그러면 놀랍지 않지만 한국인들이 그런 성과를 갖게 된 것에 다들 놀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작은 땅에 인구는 오천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Can Do', 즉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정신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불굴의 투지와 도전 정신, 한 번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경영 기법은 기업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는 정신은 한국인만이 갖는 독특한 열정입니다. 여기서 더 노력만 한다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카타르에 사막 식물 공장을 수출하러 갔는데, 가격이 일본의 3분의 1입니다. LED 조명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내놓은 작품은 우수하지만, 그 자체로서 사업이 크게 성공한다기보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텍사스주립대학교 기업지원프로그램

일시 2012년 10월 31일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UT 부총장님, 프로그램 총괄디렉터님 환영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수출 협약을 위해 오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UT 프로그램(경기도-텍사스주립대학교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경기도의회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흥기화 경기중소기업 대표이사님 외 귀빈 여러분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기부금을 내 주신 여러 기업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기술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대학에서 경기도를 위해 특별히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나아가 경기도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FTA 체결도 됐고 무역 장벽도 낮아져서 서로 간의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고, 특별히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의사들도 18,000명 이상 계십니다. 또한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의료 부분 협약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의료,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의 교류가 발전하는 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우리 제품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회를 얻는 것이 한미 간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더 크게 발전하고 이 프로그램에 더 많이 합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 경기도 산학연 R&D 성과박람회

일시 2012년 10월 31일 판교글로벌 R&D센터 1층 대강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GE와 파스퇴르 연구소도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머리와 손재주도 제일 좋고, 제일 부지런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팀워크까지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젊은이들의 지적 능력과 열정, 국민들의 근면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카타르를 다녀왔는데 가는 곳마다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결합하면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이번에 국립 바우만대학교 및 우랄연방대학교와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납품할 제품은 참 많습니다. 조달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크지 않은 나라지만 그곳에 우리가 식물 공장을 수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3분의 1 저렴한 자본과 IT, LED 조명 등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우수한 기술을 많이 가졌습니다. IT,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스무 개의 나라에 복합적인 식물 공장을 곧 수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물론 농업 분야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코리안 스타일'은 뭐든 잘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많이 진출하여 '코리아' 하면 다들 인정합니다.

우리의 고귀한 정신, 'Can Do',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 척박한 나라지만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닌 조그만 나라가 위대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스, 오일, 목재 등 많은 부분에서 앞서지만,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세가 전 세수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적어 세금

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 지식경제부에서 650억, 중기청에서 2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많이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주 점잖아 금전적 지원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금종례 과학기술위원장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과학기술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오신 사례는 드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도의회 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러시아에서 한국의 버스, 철도 등 각종 교통수단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오십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교통시스템이 전 인류의 편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건강과 빛과 희망을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청년 바리스타 '나는 카페' 1호점 개소식

일시 2012년 11월 1일 안산평생학습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점 '나는 카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산평생학습관이 아주 좋은 장소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나는 카페' 1호점을 지원해 주신 김철민 안산시장님, 장태평 마사회장님 외 여러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윤화섭 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바리스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어머님들도 와 주셨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커피도 즐기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구단 유치 협약식

일시 2012년 11월 1일 10구단 유치 협약식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이석채 회장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수원시, KT와 함께 멋진 10구단을 창단하는 것에 합의하고 서명하러 와 주신 이석채 회장님 외 KT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프로야구 창단을 경기도에 의뢰해 왔을 때, 수원을 지목했습니다. 수원이 경기도의 수도이고, 모든 면에서 용인, 평택, 안산, 안양, 의왕, 과천, 성남 등 많은 경기 지역이 수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 속에 있으므로 10구단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수원시장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열렬히 받아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님 모두 힘을 합치고 전 수원시민이 열렬히 노력하여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10구단 창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석채 회장님을 비롯해 모두가 일치단결해 난관을 이겨 냈습니다. 그리하여 10구단 창단이 조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석채 회장님과는 2년 전부터 10구단 창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KT에 여러 외풍이 있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때 솔직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날의 성공을 위해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창단되는 KT 10구단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적을 내고, 많은 야구팬에게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모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화성고용센터 개소식

일시 2012년 11월 6일 화성봉담

축하드립니다.

제가 화성에 고용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지 불과 8개월 만에 오픈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기업 수, 노동자 수,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노동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건의했던 것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빨리 해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화성시에 경찰서도, 소방서도, 노동청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땅 넓이는 서울의

1.4배입니다. 그냥 넓은 것이 아니라 바다와 섬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굉장히 착합니다. 저는 안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 말이 안 되게 이렇게 하느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역시 노동부에서 안 착한 사람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화성시민들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보다 1.4배 넓기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도로, 산업단지 등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규제를 하여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고용노동부가 여기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화성시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주신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월례조회

일시 2012년 11월 7일 북부청사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아침에 뇌성마비 재활의 집, '양지의 집'에서 '세계로 가는 기차'를 노래했는데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 대표단이 저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카타르에 갔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사막인데도 기름, 가스가 많이 나오고 우리보다 1인당 5배 높은 소득을 갖습니다. 대신에 그 나라는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세자 직속의 식량안보기구를 방문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의 식물 공장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사막이라서 식량을 자급해야 하는데, 못하겠다면서 우리 식물 공장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느냐 문기에,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는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구는 많고, 가스도 없고, 남북이 분단되고, 주변에는 중국·일본·러시아와 가까운 곳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분단, 자원 빈국, 인구 과다·과밀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강한 강대국의 종속적인 나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갖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성공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일본의 첨단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일본보다도 식물 공장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첫째, IT 분야가 앞서 있습니다. 둘째, LED 등의 색 파장에 따라 식물의 생명을 돕는 조명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셋째, 로봇기술 에너지가 발전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가격이 일본의 3분의 1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간과 농업기술의 힘을 합쳐서 민간의 세계적인 글로벌 마케팅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카타르의 식량증진기구 이사가 한국인인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선 기술과 능력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아부다비, 두바이, 리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도 합니다. 사막국가는 19개

의 국가가 있는데 하다 보면 더욱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큼니다.

오늘 '양지의 집'에서 '세계로 가는 기차'를 노래했습니다. 우리 경원선이 복원되면 시베리아로, 경의선 복원이 되면 신의주와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로 가는 기차'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차를 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첫째,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부지런합니다. 셋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팀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삼성이 소니, 애플, 노키아를 물리치고 자동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싸이는 말춤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열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노래,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는 불평불만, 안 된다는 그릇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하향평준화식인 끌어내리기인데,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하는 것은 상향평준화, 끌어올리기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려야 합니다.

전 세계인이 '코리아' 하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독일·영국·프

랑스·이태리, 이런 잘나가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과 50, 60년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최고의 국가가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쇼윈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정신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러시아는 원천기술도 많고, 우리보다 땅이 훨씬 넓은데 바우만공대 및 우랄연방대와 원천기술을 협약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UEMP 전자조달업체(러시아 전자조달 기관인 '통합전자상거래장터')와 경기도가 협약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전자제품을 납품할 것입니다. 우리가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뷰티디자인엑스포보다 몇 배 더 큰 미용전시회를 러시아에서 하는데, 10개의 부스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북부 GDP의 23%를 차지하는, 43개의 국영 기업을 관리하는 러시아 테크놀로지 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 주의 공업 지역과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마침 교통시스템의 구매 사절단이 우리의 교통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아주 추운 나라에서는 언제 버스가 올지 모르는데, 이를 개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한국은 다 나쁜 것처럼 너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점은 인정하고, 고칠 점은 고치면서 정확하게 공직자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갔는데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는 카타르에 가서 왕세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이 한 평도 없지만, 선인장 세계 수출의 70%를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선인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수경재배로, 육종 대량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결합해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민 다 죽는다 하는데, 실제로 잘하는 농민들이 경기도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방대한 시장(이 있고), 서울의 학생들이 경기도에 농촌 체험하러 경기도로 오고 학교 급식으로 경기도 농산물을 먹습니다. 서울 단거리에서 최고로 밀집된 시장을 갖는 것이 우리 경기도 농업입니다.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삼성이 핸드폰에서 일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성공, 우리의 기술, 우리 이웃과의 협력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성공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것에 다 불평불만 합니까. 부정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미국의 코리안 1세 분께서 지난번에 경기도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IT 분야의 최고입니다. 그분은 대학도 안 나오고

이혼만 세 번 했는데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전파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서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일정한 정도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농업박물관을 만들려고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무엇을 전시해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카타르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식물 공장입니다. 세계에 가장 앞선 농업기술을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농업박물관에 물레방아 이런 것보다 진짜 더 필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사막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세계 선인장의 70%를 수출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도 다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나쁘다고 합니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다 존경합니다.

조선시대, 신라시대 인물보다는 우리나라 현재의 공무원들이 역사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유능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24시간 모든 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긍정과 새로운 개척 정신, 긍지, 이런 것이 전 세계 공직자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는 후배들은 더 잘하겠지요.

오늘 아침 중앙지 신문을 보니 '지방자치 안 된다'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걸핏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멀쩡한 청사를 대전에 옮기는, 이런 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 중에 비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비리가 있다면 찾아서 즉시 처벌하고 예방하고 시정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희망과 꿈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세요.

최근에 경기 북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무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원대학교 특강

일시 2012년 11월 7일 광주시 동원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찍 먼 곳까지 와 주신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얼리 버드(early bird)'는 다 잘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원대학교를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총장님 및 이사장님 외 교수님들, 그리고 강당을 꽉 메울 정도로 많은 학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타르를 다녀왔습니다.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아래의 사막국가인데, 이곳에 식물 공장을 수출하기 위해 갔아 왔습니다. 그곳에서 카타르 왕세자 직속의 식량안보증진기구 의장을 만났습니다. 경기도는 사막이 한 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접목 선인장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선인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실 속의 물 위에서 수경재배로 선인장을 키웁니다. 경기도 선인장연구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선인장 색깔이 가장 예뻐합니다. 빨강, 노랑의 색깔이 매우 선명합니다. 우리는 육종기술이 가장 발전하여 가장 예쁜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서 키우기에 선인장 뿌리가 잘 자랍니다. 물에 양분을 적절히 주어 온도, 습도, 햇빛을 다 자동 조정합니다. 인력이 별로 들지 않고도 최적의 예쁜 선인장이 아주 값싸게, 개당 60센트 정도로 수출됩니다. 네덜란드, 남미,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은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인장을 가장 값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막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Can do spirit,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우리는 해 왔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64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카타르는 30만 인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이 많고,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기름과 가스도 없습니다. 카타르는 기름과 가스가 풍부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 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전자를 이길 것이라 감히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LG 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일류 호텔에 가도 그 호텔의 TV는 삼성이나 LG 제품입니다. 이제 세계인들도 그 정도의 브랜드가 돼야 일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도 이겼습니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일본을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더 앞서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일등입니다. 최근에는 '강남 스타일'도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클래식에서도 성악, 기악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일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은 첫째, 한국인이 머리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리가 없어서 뒤쪽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팀워크가 좋습니다.

넷째, 끼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성악가 한 분이 안양 평촌고 출신인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량 자체도 좋지만 고음과 저음도 잘 냅니다. 성악이나 기악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월등합니다. 이태리나 독일처럼 음악이 발달한 국가도 많지만 앞으로 20~30년 후면 한국으로 다 유학을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TV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배우려면 한국공과대학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국에 가야지만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짧은 시간에 성공한 비법을 한국에 와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양귀비가 중국 미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릴 적 화장품은 전부 '양귀비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여성들이 갑자기 예뻐지면 한국 갔다 왔냐고 묻는답니다. 지금은 양귀비보다 소녀시대가 더 예쁘다고 합니다. 중국 여성보다 더 예쁜 여성이 한국 여성이라고 합니다. 오천년 동안 중국 양귀비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한국 미녀들을 바라보는, 오천년 이후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 공장을 갔을 때, 이게 일본 식물 공장보다 나은 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IT 기술이 일본보다 앞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을 합니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이나 일본 동경, 런던 파리 등 세계에서 가장 좋은 초특급 호텔에 가서 인터넷을 연결해도, 우리나라처럼 공짜이면서 속도가 빠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저녁에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해도, 부팅도 제대로 안 됩니다. 메일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새벽 1시까지 해도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나라 인터넷보다 더 빠른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텔보다 세계 최일류 호텔의 인터넷이 더 느립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무료로 마음껏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LED 라이트닝(lightning), 조명 부분에서 굉장히 앞섭니다. 그 조명 빛깔마다 다른 파장을 이용하는데 색깔에 따라서 식물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LED 조명을 이용해서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본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식물을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로봇을 이용하여 최첨단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격이 일본 식물 공장의 반이 안 됩니다. 값이 일본의 반도 안 되고 더 앞선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IT, 전자 등 많은 기술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해서 브랜드파워가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인 농업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을 카타르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60개 국가가 더 사막국가가 됩니다. 카타르가 사막국가연합을 주최하는데 우리는 거기 전부에 식물 공장을 수출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카타르 사막에 차양을 가린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양분을 준다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또한, 사막국가연합의 기술이사가 코리안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카타르 기술이사로 취업했습니다. 카타르의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코리안입니다. 카타르는 식량 자급에 관심이 많은데, 그

분이 우리나라를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제는 전 세계인들도 한국인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크지도 않고, 식민지를 거쳐 남북이 분단된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왜 다 잘할까, 모두 궁금해 합니다.

구 서울대 농업대학교 부지에 농업박물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전시물로) 지게, 명석, 도리깨, 호룽불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국인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최첨단의 식물 공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전에 호룽불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의 값싼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식물 공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나요? 이것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일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건립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4년이 지났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밥 한 끼 제대로 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밥을 실컷 먹습니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완전히 꿈을 이뤘습니다. 또 명절에 새 양말을 신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늘 양말이 없어서 발이 얼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양말 스무 켤레 중에서 골라 신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가난했던 대

한민국이 지금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뤄 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어느 분은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이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은 중국보다 더 앞선 기술과 문화를 가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공자, 맹자보다 한국의 우수 기술과 인물들을 배우러 유학을 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너무나도 크고 역사가 찬란하기에 잘산다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이러한 성과를 이뤄 낸 것에 대해서는 다들 놀랍니다.

세계인이 한국에 배우러 올 때,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카타르 왕세자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할 수 있다'는 정신 하나만 가지고 뛰었다고 했습니다. 'Can Do Spirit', 절망 속에서 우리는 뛰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 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만들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만주와 시베리아 별판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창조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전 제가 도지사에 처음 취임할 시절 세계에 나가면, 다들 '한국이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칭찬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한국이 그렇게 잘살면 우리를 좀 도와줘야 한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 한국 중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중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의사 18,000여 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1인당 보험료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식구가 많으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못 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또, 한국이 암 진단을 미국보다 더 잘합니다. 뉴욕 같은 곳도 위내시경을 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10만 원이면 합니다. 가격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또 거기서 몇 번 위내시경을 했어도 위암인 줄 모르다가 여기 와서 발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암 수술의 생존율이 미국보다 한국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하면 값도 더 싸고 더 빨리 낫습니다.

가평 청심국제병원은 일본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다리가 쭈시다, 골이 때린다' 등 아픈 정도를 표현하는 데 언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진의 실력은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보충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은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아주 정교한 정밀 제품뿐만 아니라

큰 조선,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를 잘 만들고, 뜨거운 사막국가에 건물도 잘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터널도 제일 잘 뚫습니다. 터널 기술도 세계 일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국 사람이 만든 다 인정합니다. 젓가락을, 그것도 쇠젓가락을 써서 어릴 적부터 손끝 자체의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팀워크 좋고, 부지런합니다.

오늘 동원대학교에 와 보니 학생들이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미소도 예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웃고 무뚝뚝한 편인데, 조금만 더 미소를 짓고 더 잘 웃는다면 서비스도 세계 일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2위, 출산율 210위입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딸이 사회복지과를 나왔습니다. 사위도 사회복지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부부가 만나면 차상위 수급자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저보고 묻더라고 요. 남자친구가 사회복지과인데 둘이 결혼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 요.

제가 딸아이에게 그 남자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세상 물질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는 돈보다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못사는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 잘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아이를 키

우는데,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아이를 안아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한 남자를 사랑하고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한 남자 때문에 울어 보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 몸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행복이 있다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에게 애 하나 더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는데, 다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이겨 내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열여섯에 시집을 와서 열일곱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명절 때 세뱃돈을 주려고 하면, 어른은 열 명이 넘는데 아이는 다섯 명도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돈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단칸 셋방에서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공장을 7년을 다녔습니다. 허드렛일, 보일러공으로 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 6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공장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공장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 조그만 장사를 하며 단칸 셋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추운 방 안에서 손발이 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도지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장수 도지사입니다. 돈이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뜻과 굽히지 않는 정신이 인생을 훌륭하

게 만듭니다.

특히,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을 때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반드시 눈물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성숙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사랑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어려움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고 잘사는 것이 대한민국을 잘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려고 하면서 서로 조건을 매우 따집니다. 집 없고 돈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생각으로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과 진실을 사랑하고 그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른다는 것,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기, 물고문 등을 당했는데 죽으려고 시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이겨 내니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동원대학교는 설립자부터 이사장님, 총장님까지 매우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훌륭한 전통에서, 여러분들이 전 인류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는 동원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개소식

일시 2012년 11월 12일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연히 의정부에 갔는데, 어떤 건물 6층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어머니들이 상당히 비싸게 잠깐씩 아이들을 맡기더라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아이러브맘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는 조금 다르게, 아이러브맘 카페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필요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며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무료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워낙 열악한 다른 지역들에 먼저 만들다 보니 수원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수당은 무조건 집에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아끼지 말고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보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보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든, 가정에서 키우든 어머니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모성의 위대함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모성을 도와 드리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시설들로 모성의 위대함을 보완해야 합니다. 모성이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성을 도와 드리는 공공의 작은 노력이 아이러브맘 카페로 실현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어머니들이 왜 아이를 낳는지, 아이를 기르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지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에 사는 어머니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원으로 아이 키우기 위해 이사 가야겠다고 할 정도로 수원의 아이러브맘 카페가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애써 주신 염태영 시장님 외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흥 스마트 허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QWL밸리 비전 선포식

일시 2012년 11월 13일 시흥 한국산업기술대

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와 본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오늘 성대하고 기분 좋게 큰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화의 많은 산업단지가,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홍석우 장관님 외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지금 산업단지에 걸려 있던 많은 규제가 풀려 대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획기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많은

국비 지원을 해 주시고 규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전국의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산업단지는 드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道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 총장님 외 교직원,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G-창업페스티벌

일시 2012년 11월 23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앞의 전시 부스를 보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돈 많이 버시고 잘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창업 행사가 많은데, 그중 G-창업페스티벌을 보니 가장 참신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기술, 아름다운 디자인이 잘 전시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은 곳에 가면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부분 돈도 없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님이 가장 많이 내셨습니다. 80% 이상을 산업기술대학교에서 부스도 만들고 전시 비용을 냈습니다. 금종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을 비롯해,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시기 위해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병근 중소기업청장님 오셨는데, 이곳은 경기도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위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의 팬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 드리는 일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이 여러분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물어야 알 수 있듯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하시면 맞춤형 지원으로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배가 고프면 밥을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제때 잘 도와 드리는 것이 창업 지원의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와 드리는 맞춤형 창업 지원, 그것이 G-창업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높은 창업성과 훌륭한 기술에 큰 성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특성화고 토크콘서트 청춘불패 초청특강

일시 2012년 11월 26일 안양아트센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창창하고, 특성화고의 미래가 환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오신 여주고등학교, 다음으로 경기관광광고등학교, 의정부고, 경기 모바일과학고, 일어서서 인사드립니다.

방금 윤생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 나오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학 나오셨습니까? 두 분 다 상고를 나오셨고,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여러 대통령 분들이 계시지만 두 분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나오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학진학률 80%에 육박하지만 미국은 60%가 안 됩니다. 독일은 40%, 스웨덴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미국보다 20~30% 더 많이 대학에 갑니다. 무조건 대학에 가자는 건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44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7남매 중에 대학 졸업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하고도 아주 잘사십니다.

또 저는 공장에만 7년을 다녔습니다. 보일러공, 봉재, 미싱, 다림질 등을 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8개를 갖고 있습니다.

공장 생활을 오래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집사람입니다. 여기 학생 중 대학 안 나오면 결혼 못할 것 같다는 사람은 이따가 저랑 데이트 좀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집에서 돈도 밀어주고 대학 가라고 하는 집이면 누구나 100%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숫자보다 대학 정원이 많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아이 캔 두(I can do)'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할 수 없다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희망의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희망의 바이러스

가 여러분의 학교와 이곳에 널리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외쳐 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대학도 직장도 여러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시 외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 공동협약서 체결

일시 2012년 11월 27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만갑습니다.

오늘 유영숙 장관님 오셨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996년 12월부터 (있었던) '한탄강, 임진강 유역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를 만 16년 만에 족쇄를 풀어 주셨습니다. 장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호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님이 그동안 직접 현장의 점검을 알뜰 살뜰히 살펴 주셨습니다. 또 김필영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님 외 환경부에서 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의 시민기자단도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현삼식 시장님 외

정성호 국회의원님 및 양주시민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유영숙 장관님이 임진강 유역의 고시를 처음으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숙원을 들어 주시기 위해 혁신적으로 규제 혁파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저는 환경과 경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환경과학은 매우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환경 행정의 역량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환경은 모순될 때도 있지만 서로 상생합니다.

경기도의 부지사 세 분도 도청을 비우고 장관님을 영접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약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자리는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만들었던 규제를 풀어 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장관님이 (규제를) 풀어 주신 이 기회를 계기로, 양주시가 훨씬 더 깨끗한 한탄강·임진강 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해야만 주민들이 삶이 나아지고 동네의 가치, 도시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물 더럽히려고 기업하고, 경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이익

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 공익을 위해 일합니다. 공익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워낙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권한을 중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드렸는데 들어주셨습니다.

현동만 동보섬유 사장이자 섬유기업인협의회 섬유분과위원장님과 이주현 양주시 도금협의회장님 외 양주시 기업인 모든 분들이, 임진강 유역 환경 폐수 배출시설 제한 고시 규정 폐지에 따른 개선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역신문도 오셨습니다. 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언론에서 고발도 하고 보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고시 완화 조치가 기업과 환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유영숙 장관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일시 2012년 11월 28일 경북 영천 시민회관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문화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석 시장님, 고향 영천 발전을 위해서 탁월한 지도력 발휘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엔 우리 집안 작은아버지, 아재, 아지매, 많이 와 계십니다. 친구들, (영천초등학교) 52회 동기들도 많이 와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어 기쁩니다.

저는 임고면 황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은 어르신들 밖에 안 계십니다. 당시 저희 남매는 7명이었는데, 지금은 폐가, 공가,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저는 경북중학교, 대구로 유학 갔다가 대학은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1970년 처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거의 40년을 넘어 오랜 세월이 됐는데, 역시 맘속에 남는 것은 고향입니다. 요즘도 영천 공부를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시조 한 수 읊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 단심가(丹心歌)]

얼마나 포은 선생에 대해 잘 알고, 제대로 출판을 하고, 정신을 잘 살리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영천의 정신문화를 잘 살려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른신이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배출했다는 것이 제 삶의 큰 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황강에는 13대조가 모셔 있는데, 임진왜란 때 순국을 하신 조상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군인이 아닌데도 의병 민군으로 목숨을 바치고, 후손에 의해 불천으로 모셔졌습니다.

포은 선생도 임금을 향한 충절을 바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죽더라도 국민과 긴 역사를 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집안에서나 영천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어떤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영천에 묻혀 계십니다.

또 3사관학교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영천입니다. 복숭아, 사과 등 많은 좋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입니다. 바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훈련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는 걸 영천이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강이란 동네는 사실 매우 가난했습니다. 저에게 꿈이 뭐냐고 많이 물으셨는데, 저는 쌀밥 실컷 먹어 보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다 이뤘습니다. 또 명절 때 새 양말 한번 신어 보는 게 다음 꿈이었는데, 오늘 아침엔 양말 스무 켤레 중 골라서 신고 왔습니다. 실컷 먹고 양말도 신었고 꿈을 100% 다 이뤘습니다. 당신은 정치의 꿈이 없느냐고 물으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 정치인이 됐습니다.

고교 3학년 3선 개헌 때, 제가 교과서를 봤더니 3선 개헌은 안 좋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생님이 반성문 쓰면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과서에 나쁜 것이라 쓰여 있어서 했는데, 그걸 왜 잘못했다고 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얹혀살던 작은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었더니, 작은아버지가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학교에서 불려서 다시 복학하고,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친구들을 보니 말투도 너무 간질간질하고, 부자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던 초가집보다 못사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빈부 격차가 커서 되겠다 해서 운동권 서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일운동,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공장 생활도 7년을 했습니다. 교도소도 가고, 요즘 영화 '남영동'이라는 곳에서도 고문당했습니다. 아마 김근태 선배보다 제가 더 맞았으면 더 맞았지, 아마 덜

고문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것은 44살, 26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공장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만났습니다. 전라도 순천 여자인데, 고등학교를 순천에서 나오고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집안에선 하필 전라도 여자랑 결혼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았고 지역 차등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차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역적 문제로 한 번도 갈등이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 파워가 저보다 셉니다.

그러다 김영삼 대통령이 저를 불러, 정치를 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1994년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이전까지 민주노동당 이런 것을 했습니다. 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민노당의 누구보다 교도소살이를 더 오래했고, 고문도 더 당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고생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우리 형님도 서울은행 노조위원장을 하였고, 집안 전체가 요즘 말로 노조 활동, 투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새누리당에서 저는 참으로 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가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변절자라 하고, 새누리당에선 가우뚱하기도 하고, 오히려 많이 받았습시다.

처음엔 부천 소사에 출마했는데, 당시 22만 인구 중 경상도 사람은 10%가 안 됐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였고, 제가 잘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아지매, 박수 한 번 주세요.

당시 소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부천에는)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아서 지역 대결에서 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동차 뒤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처음엔 뭐 도둑인 줄로 오해도 받았습니다. 수해 때는 신흠 지하 단칸방에서 욕을 먹으면서 짐을 날라 졌습니다. 이렇게 하니 선거 3일 전 역전해서, 제가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김문수는 다릅니다'라는 문구로 선거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도둑놈들이고, 당선되면 다음 날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랬는데, 제가 당선 다음 날 새벽 부천 전철역 지하도에서 어깨띠를 그대로 매고 인사를 했습니다. 연세 지긋이 드신 분이 어제 선거 끝난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나왔다고 했더니, 별놈 다 봤다면서 더 믿어 주시더라고요.

이후 김윤환 당시 당대표께서 저에게 '고향 가서 정치해야 재미있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지역구 바꿀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대표가 고향에서 출마하라고 했다, 나를 예쁘게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 말하길, '당신이 뭐가 예뻐서 부천시민들이 뽑아줬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가만 들어 보니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역사상 부천은 두 번 연속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었는데 또 저를 뽑아 주셨습니다. 박지원 씨가 이후에도 요직에서 이름을 날려 주변에선 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론 조사를

했더니 저의 3분의 1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말투가 안 고쳐져서 경기도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완전히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말부터 고치라'고 여기저기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 또 됐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 출마에선 야당 통합 후보 유시민 씨와 붙었습니다.

객지에서 선거를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는 친지, 친구 여기저기 많지만, 객지에서는 맨땅에 헤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부지런하면 이후엔 어려울 것이 없다(一勤天下無難事)'는 유교적 말이 있는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의리를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기본 덕목을 실천하니, '아, 저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구나' 인정하시더라고요.

또 부정을 하지 않고, 늘 꼴찌에 가깝던 경기도 청렴도를 일등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清廉永生腐敗即死)'란 말도 그래서 지어 낸 말입니다.

청렴을 위해,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무원을 시키지 않고 중앙 정부 감사원에서 파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저는 야당 도지사였지만 저는 파견을 부탁했고, 더 세계 처내라고 주문해서 청렴도 1등이 됐습니다.

만일 (국가) 청렴도를 (세계) 10등까지 올리면 국민총생산 0.6% 소득이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국민도 잘살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저 어렸을 적 서당 할배가 가르쳐 주실 때, 소학·사서 등 유교적 정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중국 6개 성 가운데 산둥성과 자매성입니다. 그곳에서 공자 고향 곡부(曲阜·취푸)를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공자 곡부 방문하시고 싶은 분 많으실 것입니다.

중국에선 문화대혁명을 했습니다. 공자는 고리타분하다면서 공자 비석 2천여 개를 다 곡괭이로 쳐냈던 흔적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산둥성장한테 제가 '학이시습지면 불이~' 이런 글들을 줄줄 썼더니, 성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고 놀라더라고요. 자기들도 공자는 나쁜 놈이라며 다 부셨는데, 당신은 어디서 이걸 배웠냐고 놀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어 등의 내용을 출판해서 팔면 한국 사람들은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어·공자 등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은 상품화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만큼 올바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표 동동구리무.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예뻐지면 너 한국 갔다 왔냐고 묻는다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화장품을 너무나 좋아들 합니다. 면세점 화장품은 중국 사람들이 모조리 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강남 성형외과에는 중국 여성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제 동양의 양귀비는 우리 소녀시대의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전자밥통, 소니, 파나소닉, 전 세계 최고

였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 소니, 파나소닉, 샤프, 산요 등 톱 7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앞섭니다. 게다가 우리는 LG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을 꺾고 유럽 최고의 노키아도 꺾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에도 삼성 광고판이 보입니다. 가장 비싼 광고판인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삼성, LG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급 호텔에는 삼성, LG TV가 있어야 하고, 핸드폰은 삼성폰을 가져야 잘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김연아도 스케이트장 하나 없는 군포에서 세계 일등이 됐습니다. 스케이트장도 없는 곳에 살던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세계 일등이 됐습니다. 맹모삼천지교도 아니고 이사도 못하면서 연아 엄마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땀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생소한 피겨스케이팅을 우리 딸이 해낼 줄 세상에 꿈도 꿔 본 적 없는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돈을 벌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가능성을 만듭니다.

싱가포르는 영천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는 2만 달러지만 싱가포르는 5만 3천 달러입니다. (싱가포르가) 나라를 넓히기 위해 흙이 필요하지만, 싱가포르엔 산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어서, 화장실 오줌물도 정화해서 다시 먹을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 흙을 사 와서 땅을 넓히는데 영해 분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흙도 안 판답니다.

흙도 물도 땅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살게 되었을까요. 이광요(李光耀·리관유)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하면 된다'는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하면 된다'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자원이 없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수풍발전소가 세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홍남발전소도 그렇습니다. 남쪽에 전기를 지원해 주던 게 북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하면 된다'는 정신의 결과, 뼈적 마른 김문수가 배가 나와 다이어트를 하고, 양말이 넘쳐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개울가에서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우리 임고면에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그냥 뒀다가 크게 아팠습니다.

지금 미국에 한국 의사가 18,000여 명 있습니다. 이들과 경기도가 교류하면서 의료서비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국은 암·심장(수술) 등에서 미국보다 한 수 위라고 합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한국인들이라 합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미국 이민은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보험이 엄청 비싼데, 잘 고치지도 못하고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한국은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64년 만에 삼성이 소니를 이기고, 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이기고, 축구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바로 여러분, 우리 아재들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능가하고, 제가 얼마 전 다녀온 러시아보다 잘삽니다. 엄청난 땅을 가진 국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우러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선인장의 70%를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갔던 카타르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선인장 70%를 수출한다 했더니, 카타르 농산물 대표가 우리에게 사막이 얼마나 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종자를 바꿔 색을 아름답게 하는 기술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와 함께 러시아 북극의 얼음 속 매머드 줄기세포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얼음 속으로 들어가길 꺼린다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목표를 갖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22개국이 이베로아메리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사무총장이 경기도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농업 이민을 온 코리안들이 지금은 깜짝 놀랄 경제국 한국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입찰을 할 때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치고 한국 제품, 한국 컴퓨터 등이 항상 앞선다 하더라고요. 그 못살던 코리아가 불과 4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는지 가르쳐 달라고 애원합니다. 싸이 보셨죠? 노래방도 제일 잘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죽지도 않는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예전엔 팔십에 돌아가시면 장수했다고, 호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요절이라 하더라고요.

염색은 좀 했지만, 제가 환갑이 넘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몸에 문제만 생기면 바로바로 고치는 한국이 됐습니다. 심장, 눈, 뼈, 뭐든 나쁘면 바꿔 끼워 버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걸 만드신 분들이 이 자리의 아재, 아지매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장수하시면서 더 많아지십니다. 세뱃돈 주려 해도 줄 아이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돈 도로 가져가십니다.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노래도, 스포츠도 다 잘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은 생명 존중입니다. 아이가 있어야 하고, 아이가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이혼을 합니다. 세계 2위 이혼율입니다. 컴퓨터도 영어도 뭐든 잘하지만, 배우자가 조금 부족해도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전통문화, 삼강오륜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오촌 질부가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명절 때면 저도 제일 따뜻하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 얼마나 답답하냐며 항상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아이도 낳고, 서로 참고, 장인 장모도 모시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 영천의 특징이, 여기에도 쓰여 있듯이 '스타'라고 돼 있지 않나요? 전 세계 인류가 이 영천에서의 저처럼 가난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잃지 않게끔 하는 문화적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스타, 전 세계 글로벌 스타는 바로 영천시민들의 문화적 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객지에서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나갈 수 있는 힘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견뎌 내고 아내도 사랑하는 이런 영천의 정신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서, 인간관계에서 받은 것이 저를 오늘의 제 정신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저를 낳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영천에 감사드립니다.

북부기우회

일시 2012년 11월 29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 북부 지역인 노원구, 도봉구 등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고객이 전체 고객의 20%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쇼핑하러 의정부를 와야 합니다. 그것이 신세계의 힘입니다.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는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옴으로써 그와 연관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LG의 위상에 힘을 입어 파주 지역에서 디스플레이·전자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관공서를 갖다 놔도 그 지역 발전이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백악관부터 엄청난, 세계적인 공공기관이 다 있지만 워싱턴은 늘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는 늘 적자입니다. 연방의 도움 없이는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주변의 메릴랜드 등으로 다 이동하고, 그곳은 흑인들이 주입니다. 그곳의 공무원들은 돈 얻으러 다니는 것 외에는 자립이 안 됩니다.

과천은 잘사는데, 경마장에서 나오는 세수가 1년에 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청사는 (세금을) 1원도 안 줍니다.

과천청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세계적인 연구소나 대학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북향인데, 그것을 뚫어서 이쪽으로 터널을 만들면 5분 내로 과천청사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에 대학을 짓고 그곳에 세계적인 연구소를 지으면 혁신적인 신기술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은 다 세웠었습니다. 과천에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활용해서 그곳에 세계적인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과천청사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방위산업체 등 지방에 안 가는 기관, 서울에 흠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옮긴다는데, 사실 와 봐도 별 득이 안 됩니다. 시의 세수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신세계도 의정부시민만 2천 명을 채용했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주변에서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고, 세금 많이 내고, 명성도 높아지고, 서울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전에 도청의 1·2 부지사 세 명과 저를 비롯해 전 간부가 나서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상태를 살폈습니다. 철원의 백마고지에도 갔는데, 하루 빨리 GTX가 개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도와 수도권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강력한 지하고속광역철도를 만들어 수원에서 동탄, 의정부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게 하고,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20분 내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직행고속철도를 6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철도가 의정부까지는 가는데 동두천까지는 잘 안 가고, 또 동두천에서 연천까지는 잘 안 갑니다. 전철이 동두천까지 갔다가 디젤차가 연천 백마고지까지 가는 형태인데, 이것도 운행 횟수를 늘릴 것입니다.

다른 데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가 적자를 메워 주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 해서 안 밀어줍니다. 다른 지역은 다 밀어주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며 안 밀어줍니다. 코레일이 자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비를 쓰더라도 철도를 연천, 철원 백마고지까지 더 갈 수 있도록 우선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하다 보면 국가가 안 도와주는 것을 시민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쳐 나가는 쪽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적자 노선이지만, 우리 道가 주도적으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편을 늘릴 것입니다.

버스도 수원에서 오는 것은 구리를 들렀다가 의정부로 갑니다. 30분 구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의정부로 갑니다. 수원에서 의정부로 가면 적자가 더 난다더라고요.

수원에서 의정부로 직행하는 것이 적자가 나지만, 주요 간선 버스망을 만들어서 도비와 각 시·군비를 합쳐 적자 부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곽순환도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려면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구리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도록, 구리 시내에서 다른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⁴⁾

적어도 외곽순환도로 바로 위에서 환승이 되도록 도로공사와 협의하고, 그 전에라도 각 주요 도시마다 직행 좌석버스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적자가 반드시 나겠지만, 그 적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도로에 호원IC부터 시작해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 양당 간사가 경기도 출신입니다. 남양주의 최재성 국회의원이 민주당 간사고, 안성의 김하경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양당 간사가 경기도 출신인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4) 외곽순환도로 경기순환버스는 2010년 8월부터 6개 노선 55대를 운행하며 통행시간 단축(23분) 및 이용요금 절감(1,200원) 효과를 거두며 하루 13,386명(2013년 5월 10일 기준)이 이용하고 있음.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수원~의정부 직선화 노선(8401)을 개통하였음.

그래서 제가 가서, 경기도의 예산 두 가지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GTX 예산입니다. 예산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둘째, 경기 북부 지역 도로·철도 예산입니다. 거의 8,000억입니다.

아마 경기 북부 지역의 철도, 도로 등 많은 교통 부분에서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국가 예산은 딱 GTX와 경기 북부 지역에 도로, 철도 SOC 투자 예산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경기도의 자체 도로, 철도 예산 중 52% 이상을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도로, 철도 SOC 투자 예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제한 고시'가 잘못되어 그 고시를 개정하는 협약을 환경부 장관과 양주시장과 함께 양주 섬유소재 연구소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산재된 염색·도금 공장을 35만 평의 은남산업단지에 모아서 무단폐수 방류와 연기를 막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기업하시고, 생활하시는 단체기관장 여러분 외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우회

일시 2012년 11월 3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반갑습니다. 오늘 이만우 교수께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제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해서 도의회나 道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세제의 권한은 중앙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법을 다 고칩니다. 지방이 자기 세제에 대해 자기 권한이 없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공감도 하기 위해서 이만우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홍콩과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경기도의 15분의 1밖에 안 되고, 홍콩도 경기도의 9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공무원의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이 세계 1위입니다. 홍콩도 청렴도나 국가 발전 정도, 그리고 개방 정도가 세계 5위권입니다. 우리는 청렴도가 40위도 안 됩니다.

지금 출산율이 세계 200등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3배 빠릅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선 후보들은 이런 것에 대해 말을 안 하고 전부 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적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GTX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광역 교통망, 그중 철도 교통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버스가 없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가 없으면 걸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있어야만 적어도 경기도는 소통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수원역에서 동두천을 거쳐 연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 시간 반이 더 걸리더라고요. 부산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경기도민은 여론조사를 하면 첫째, 50% 이상이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20% 정도가 교육이 불편하다더라고요. 하지만 교통이 (문제라는 대답이) 압도적입니다. 어느 해든지 변함없이, 절반 이상은 교통이 문제라 합니다. 교통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 2~3배 높습니다. 그 해결책은 GTX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라서 신도시 확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딸아이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말한다고 애 낳겠습니까.

이 추세를 당장 극복할 수 없다면, 인구 감소에 대한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감소하면 도심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종시

등을 해도 균형발전이 잘 안 됩니다. 아이를 낳아야 신도시든 균형발전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는 점점 도시화되어 도심의 편리한 교통, 교육, 문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추세에 맞춰 정책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편에 GTX를 하면 강남에서 동탄까지 18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30분 내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면 공동화(空洞化)가 안 됩니다. 그 점에서 GTX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둘째, 경기 북부 지역에 가 보니 철도와 도로를 집중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GTX와 북부 지역 도로, 철도를 대선 후보에게 정책으로 요구하고 국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실현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가 북경, 상해, 동경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살림을 이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는 무한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무한돌봄 시스템은 세계 최고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스템입니다. 신속하게 바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시스템입니다.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돕겠습니다.

분당선 복선전철 개통식

일시 2012년 11월 30일 영통샛별공원

안녕하세요. 기분 좋으시죠?

영통 지역 시민 여러분, 훌륭한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개통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성권 본부장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철도는 75% 이상이 국가 예산, 나머지 25%는 도와 市가 냈습니다. 도와 市가 601억을 지원했습니다.

분당선 복선전철이 빠른 시일 내로 개통되도록 애써 주신 김진표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수원 발전을 위해 애쓰신 남경필 국회의원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화섭 의장님 외 도의원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염태영 수원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원시의 강성채 남부경찰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상 50% 이상의 경기도민이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더라고 요. 이 교통 불편의 해결책은 철도밖에 없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데,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외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교통망, 철도 부분에서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기업 성장지원 공동협약' 체결식

일시 2012년 12월 3일 경기도 중기센터

전국 마을기업 회장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님, 경기도경영자총협회장님, 삼성전자 등 참석 감사드립니다.

마을기업은 역시 뿌리가 기업입니다. '민들레 엑기스'란 상품을 보면, 생산하는 마을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하룻밤 자면서 엑기스를 짜 보기도 하고, 민들레를 기르는 과정을 보고, 자매결연을 해서 다음에 또 와 보고, 이러는 것이 마을기업의 특징입니다.

상품보다 마을과 마을,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그 과정을 함께 즐기고, 체험하고, 판매·교류하는 관계가 마을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마을의 중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판매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의 신용도를 높이고, 마케팅도 잘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맞아야 하고,

특색을 잘 살려 나가면서 마을의 경쟁력을 갖추야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마을 사람들, 공무원들, 참여 기업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124개의 경기도 마을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특색 있고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 대박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일시 2012년 12월 3일 한국행정연구원 10층 회의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은재 원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과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평소 결혼식 있을 때만 왔습니다. 여기 강남 한복판에 행정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서 '강남 스타일'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강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핵심 요지입니다.

저는 요즘 외국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일본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이제 일본에는 기대할 게 없다더라고요. 또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라 책임이 확실하다더라고요.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과 LG가 소니를 꺾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어느 누구도 전자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리라고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일본보다 메달을 많이 땀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이기는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67년 만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서고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양귀비표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인들도 갑자기 예뻐지면 한국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소녀시대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만만년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을 아름다움에서 역전했습니다.

러시아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최대 티타늄 공장과 함께 협약을 하여, 평택 외국인전용단지에 유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길래,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철도를 타고 오면 훨씬 더 우리와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업해서 일하고 있는 코리안 메디컬닥터가 현재 18,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개업한 협회장 말을 들어 보면, 워네시경의 가격이 한국의 5~10배 정도 된다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뉴욕에서 이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었는데, 가격이 우

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쌌습니다. 강남에 사는 젊은이들은 친구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는데, 그중에 (미국에) 안 가는 친구들의 이유를 들어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미국보다 더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1394년 이래 경기도의 많은 역대 관찰사 중에서 제가 최장수입니다. 지금 한국 행정의 많은 체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교포 분들이 '교육은 이렇고, 의료는 이렇고, 외교는 이런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국이 그렇게 잘살면 우리에게 뭘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도움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돈을 내 큰 종을 하나 만 들어서,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코리안 가든에 달아 주고 오기도 했습니다.⁵⁾

국제의료협회가 있는데, (경기도가) 화상진료를 미국 LA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협력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차 재임 중인데, 최근 5년 만에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빅3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 봤는데, 디트로이트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GM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디트로이트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부품 업체가 현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 2011년 경기도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국정원(미국명 '코리안 벨 가든·Korean Bell Garden')에 들어갈 종을 제작(10만 달러), 기증했음.

1달러에 공장 1만 평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청업체에게 물어보면 임대료도 별로 안 내고, 연 평균 10%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아줍니다. 자동차 본거지 미국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제품이 잘나가고, 우리나라 부품을 알아줍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머리가 가장 좋고, 열정이 높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의료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미 사무총장이 우리 사무실에 또 와서 우호 협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한국에 오는 데 3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왕복 60시간 이상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적에 코리아타운에서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농업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이 형편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컴퓨터 30만 대의 삼성 제품이 입찰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르헨티나까지 농업 이민을 온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 기기들이 다 앞서고 있다면서 어떻게 최고가 되었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지사, 거버너라고 하면 제가 상당한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거버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2할 자치입니다. 대부분 중앙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제가 영어 명함을 주면, 외국인들은 경기도의 영어 스펠링을 '정지

두'로 읽더라고요. 경기도 자체를 발음하지 못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발음도 못할 뿐더러 도무지 경기도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삼성전자 공장이 3개가 있고, LG 전자가 5개, 현대기아차가 5개가 있다고 하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에 납품 좀 하게 명함 좀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이 외국에 인기가 많습니다.

설화수를 만드는 아모레퍼시픽 공장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온주라는 곳에서 한 회장이 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꼭 보자고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라호텔에 가서 한 병에 2,400만 원 하는 프랑스 포도주를, 창고에 있는 것까지 모두 싹쓸이해 사갔습니다. 프랑스 현지에 가서 사지 왜 여기서 사냐고 물어보니, 프랑스보다 이곳이 더 싸고 품질도 믿을 수 있어서 그런다더라고요.

필리핀의 마닐라행정청과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을 수출하러 갔습니다. 이 나라는 예전에 우리보다 더 잘살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카타르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식량안보증진기구가 있는데, 저는 의장을 만나자마자 의장에게 그랬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선인장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에) 사막이 몇 평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이 한 평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경재배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습도, 온도, 빛을 조절하고 육종개량을 해서 물 위에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오래 갑니다. 좁은 면적에서 많이 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빛깔이 가장 아름답고 가격이 쌉니다. 선인장 한 포기에 1달러 이내입니다.

다. 가격과 그 아름다움과 영속성에 있어서 우리 선인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를 전부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인 일본 식물 공장을 우리가 앞섰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IT가 세계 최고입니다. 둘째, LED 등의 색깔 파장에 따라 식물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화 기술이 앞서고 있습니다. 습도, 온도가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가격이 일본의 절반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섭니다. 다섯째, 사막기구의 이사가 코리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뤄 낸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세계인들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음악 콩쿠르에 나가면 상위권을 휩쓸습니다. 아마 10~20년이 지나면 이태리에서도 한국에 노래를 배우러 올 것입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릴 적 쌀밥 한 끼 먹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또 어릴 적 양말을 제대로 못 신어서 발이 얼었습니다. 명절에 새 양말을 신어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양말 스무 켤레 중 골라서 신고 왔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종교를 뛰어넘어 이 풍성한 식탁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부처님께 감사드리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매일 생각합니다. 저 같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에게 경기도지사를 두 번 하게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

원도 세 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반정부, 반미, 반재벌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2년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두 번 했었고, 학교를 두 번이나 제적당해서 44살에 졸업했고, 국가보안법도 두 번이나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를 대한민국 경기도지사로 뽑아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경기도 공무원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뽑고 있습니다. 탈북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지금 2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부문에 있어서도 다문화 출신 3명을 뽑았습니다. 몽골, 중국, 베트남 여성 공무원을 뽑아서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커뮤니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국 공무원들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새누리당 경기도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1번을 다문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인종도 다 포용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카타르의 식량증진기구 의장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Can Do Spirit',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신은 좌절과 절망의 경험 속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민과 분단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사실 유대인도 학살했지만, 우리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분단을 막을 역량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탁운동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졌지만, 대통령 후보는 역대 대통령 묘를 다 돌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코리아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황희 정승, 백결 선생 등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청백리보다 현재의 여러분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춘향전의 변사또 등 가림주구를 하는 나쁜 공무원들에 의해 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실력도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공무원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모든 면에서 남한에 앞서 있었습니다. 당시 수풍댐만 해도 세계 최고의 터빈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군인이 약 8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의 군대가 당시 세계 최고였고 무기, 항공도 최고였습니다. 아시아 남쪽을 다 장악했었습니다. 그 일본의 최대의 공업, 과학, 기술이 북한에 있어서 수풍댐, 무기, 공장 등에서 북한이 남한에 앞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을 다 합쳐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거기 최고 영웅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친일파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홍콩에 갔다 왔습니다. 홍콩은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현재 홍콩의 최고 대학과 좋은 건물이 대부분 영국식입니다. 반면 우리는 광화문의 조선총독부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 건물이 건국의 상징이자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반미, 반일, 반

재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국 광둥성 공무원도 경기도를 배우러 한국에 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의 행정과 국방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 공무원이 시험도 가장 잘 보고, 감사에 안 걸릴 정도로 반듯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국사를 잘 모릅니다. 저는 개천 절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말들은 잘 못 믿겠습니다.

다만 1948년 8월 15일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전부 신탁을 하려고 할 때 반탁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읽어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반만년 역사 중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문헌은 헌법이라 생각합니다. 식민지와 왕조시대에만 살았던 어느 지식인이 이런 헌법의 초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배웠건 어디서 배웠건 대단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통일로 가게 할 주체 세력이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로는 4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직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평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인류 중 억압받고 가난한 인류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물건 잘 만들고, 노래 잘 부르고, 병도 잘

고치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나쁜 사람들, 나쁜 나라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전부 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으며, 그것을 가르칠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케냐, 카타르 등 전 세계인에게 농업, 과학기술, 반도체 분야 등을 정리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행정연구원이 그런 것은 정작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인류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야 남에게 세일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인은 세종대왕은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식민지와 분단을 겪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소니를 이기고 양귀비를 이겼는지, 그 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 모든 동상에 역대 대통령은 없습니다. 전부 옛날 사람들, 황희 정승, 최영 장군 등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위대함과 성공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기업인에 대해서도 지금 장보고를 이야기하는데, 이병철·정주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해야겠습니까?

싱가포르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힘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1,000개 이상 있습니다. 또 국가가 국영 기업의 100% 주주입니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국가의 연금기금으로 세계 각 곳에 투

자를 하고 문어발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합니다. 소니가 망한 이유는 문어발 경영을 안 해서입니다.

삼성이 애플에 소송당하고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당하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외국을 이기는 방법은 문어발 경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를 격파하는 것도 통쾌하지만, 삼성이 소니·애플을 꺾는 것도 저는 통쾌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느 나라에 갔는데, 제일 큰 건물에 삼성 전광판을 크게 해 놓았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기분이 나쁠 것이 있습니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35% 이상 경기도에 있는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엮여 나가야만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자체로서 품질은 보증이 된 것이라 생각하고 품질은 더 안 봅니다.

포스코는 요즘 어렵습니다. LG도 LCD 부분이 어렵습니다. 소비가 잘 안 됩니다. 현대기아차 리콜도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가장 잘 나갑니다. 저는 '너마저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평택의 130만 평에 100조를 투자했습니다. 제가 삼성 오너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가지 말고 여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잡아 국내의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 북쪽의 포천, 양주 등에 무등록 한센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염색·도금 공장이 즐비합니다. 그 직원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

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안 갑니다. 중소기업이 많은데, 거의 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인력은 한정되어 못 늘립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나쁘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현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렴도를 높여야 합니다.

119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19는 국가에서 1%도 안 도와주고 90% 이상이 광역 자치행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것은 시군에 맞추고, 국가에서 40% 이상 맡아야 합니다.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후 역대 도지사를 만났는데, 그분의 부인이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이 119였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5분 안에 부인을 실어서 갔는데, 의사가 바로 나와서 잘 치료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119가 아들딸보다 낫다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하이닉스 여직원의 대부분이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24시간 365일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3교대, 4교대로 해도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아파트도 얻어 주고, 대우를 좋게 해서 지금 잘 정착했습니다.

새벽 2시에 경기도청에 가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명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원서류를 다 처리해 드립니다. 경기도는 전철

1호선에 평택에서 성북역까지 가는 민원전철 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건강 검진,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업무를 하고 책도 빌려 줍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기업이 부르면 쫓아갑니다. 119식 행정으로 쫓아 나가도록 제가 행정을 바꿨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밥값과 출장비만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필통에서 삼색 볼펜을 없애라 했습니다. 볼펜 한 자루 가지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무한돌봄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장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책도 빌려 주고, 건강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이, 250가지 (복지) 조항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先지원 後심사'를 하도록 하고, 규정에 안 맞는 사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데 망해서, 집과 가게가 다 넘어가고 찜질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항에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지원했습니다. 현장에 맞는 맞춤형 핵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위대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의 교육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위대한지, 몽골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식민지를 이겨 내고 일본에 앞서고, 미국에 역전하는 힘이 무엇이고 원동력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연구원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희망의 대한민국을 세일즈 하는 연구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연구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일시 2012년 12월 6일 수원 이비스호텔 15층

반갑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기도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석 한국일보사장님과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동으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와대에서 사회통합수석 비서관이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께서 평생교육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오신 벤트 구스타브슨 교수님이, 공항에서 넘어져서 무릎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다치셨습니다.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외과 의사들의 실력은 최고입니다. 발표 후 부디 치료를 잘 받으셔서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핀란드,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참여해 주신 귀

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는 구호를 '글로벌 인스피레이션(Global Inspiration ·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내걸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그것도 평생교육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평생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은 100세가 넘는 분이 많고, 여생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 새 인생을 출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육이 자신의 인생 목적과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가장 기쁜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노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 지식 쌓기가 아닙니다. 인생 목표와 새로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교육 잘하는 경기도가 되고자 이렇게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늦게 출발했지만, 반드시 세계 인류에게 교육의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각국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서 선진 사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경기도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을 방문할 수 있는 유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일시 2012년 12월 6일 서울 서초동 노블레스웨딩컨벤션 18층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기도민은 1,250만 명을 넘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시민을 합친 것보다 10만 명 이상 많습니다. 땅도 싱가포르의 15배, 홍콩의 9배로 큼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습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210등할 정도로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감소 추세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점차 공동화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30분 이상 1시간 내외 걸리는 거리는 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한국의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고령화는 일본보다 우리가 높고, 그 속도가 3배입니다.

아파트도 많이 지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거리가 떨어진 곳은 인구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불편한 점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도민회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서울까지 오는 이유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GTX를 건설하면 서울 강남에서 동탄까지 18분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30분 거리는 (인구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권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어지면 서울로 거꾸로 몰려오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농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동화를 고려해서 도시 가까이에 사는 것이 급할 때 병원을 이용하기 좋고, 생활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집중화가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인구가 무조건 팽창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택, 교통 등 행정 전체가 크게 변화

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전국의 전체 변화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고,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곳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세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많은데 세배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GTX를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서울에의 접근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경기도지사 이래 제가 최장수입니다. 제가 도지사를 해 보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병원을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원을 짓기 힘듭니다. 민간 병원이 들어와야지, 공무원이 한다고 병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경기도는 대학을 못 만들게 되어 있는데, 대학 없이 병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도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GTX와 경기 북부 지역의 철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고속철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도정 1순위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도록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을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마음대로 낳도록 돕는 것도 예산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본도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쉽

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큰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민회 여러 어르신들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비춰 도정 핵심은 아이를 많이 낳고 각종 철도, 도로를 제대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교통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신분당선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경인선·중앙선 철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결로 GTX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우선 집집마다 주변에 아이를 많이 낳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딱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한돌봄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도청에 연락하면 즉시 도와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식민지, 전쟁 등 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전쟁도 겪어 봤고, 나라도 잃어 봤고, 배도 고파 봤는데, 이런 어려움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잘살던 사람이 잘살면 행복함을 모른다지만, 어려움을 겪은 후 잘살면 행복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아무쯁록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기도의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심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 아이 안 낳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특히 어르신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더 융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합니다. 아이 많이 낳는 다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천 장자마을 문학의 밤

일시 2012년 12월 7일 포천

오랜만에 오니 전부 젊어지시고 예뻐지셨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몇 명 없었는데 오늘은 어린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STX 산업단지개발원의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STX 본사가 진해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대런 STX에 가 봤는데, 중국에서 가장 큼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준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경기도 한빛복지협회 지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지부장님과 이야기 했는데, 아직 못 도와 드린 곳이 양평의 상록마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道 간부들과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고 올 계획입니다. MBC에서도 도와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힘겹고 서러웠던 것들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엄청난 지원군을 낳게 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모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여러분을 단속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단속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메말랐는지 이곳에 와서 느끼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곳곳하게 꽃을 피워 왔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꽃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워 주시는 꽃이 전 세계에 필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왔다 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보다 11배 넓은 땅이지만, 소득이 우리의 5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50배 이상 잘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 비결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잘 이겨 내고 희망을 안은 소중한 경험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한센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일시 2012년 12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쥔트룸

감사드립니다. 김덕룡 상임의장님과 민화협 심사위원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분단 道입니다. 개풍과 장단은 원래 38선 이남의 경기도였는데, 전쟁으로 인해 북한 땅이 됐습니다. 자유로를 달리면 개풍 등 북한 땅이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송악산 등을 매일 보고 삽니다. 아무리 군사분계선으로 갈라놓더라도, 눈에 매일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방 병력의 7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615개 대대급 이상이 있습니다. 육해공과 미군 대부분이 경기도에 주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걸핏하면 경기도가 포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전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상황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학규 전임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평양 강남군 당곡리를 중심으로 농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취임한 이후 확대 발전돼서 이렇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인 위치 등 여러 이유로, 많은 도민과 북한이탈주민 등의 통일 열망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앞으로 주력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결핵·말라리아 등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라리아는 특히 경기 북부 대부분이 헌혈 금지가 된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이 헌혈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 줍니다. 파주, 고양, 연천, 포천, 김포, 강화, 이 지역은 헌혈을 안 받아 주는 아픈 곳입니다. 대한민국 말라리아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북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말라리아와 감기 사이에 구분이 잘 안 돼 초기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키트와 방충약, 모기장 등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꼭 북한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병들과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북을 도와야 합니다. 땀 수 없는, 한 마을인 셈입니다.

특히 최전방의 대성동 마을에 가 보면 남북 간 군사분계선도 철조망도 없습니다. 북의 기정동 마을과 그냥 걸어서 아무 장애물 없이 오갈 수 있는 시범적인 남북마을입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하는데,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결핵 문제를 위해 예산 10억을 배정했는데도 1원도 못 썼습니다. 저쪽에서 안 받겠다고 하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북한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임진강과 한강의 관리를 남북이 함께해야 합니다.

올해도 임진강에서 북한의 시체를 한 구 건졌는데, 많을 땐 열 구 이상씩 시체가 떠내려 옵니다. 북한에는 독이 없어 홍수가 나면 마을을 휩쓸고 내려오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떠내려 오는 겁니다.

저는 임진강과 한강의 관리를 남북이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전체를 공동으로 관리해야만 북한의 홍수를 막고, 이는 우리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강과 한강의 관리를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을 확대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성공적 남북 사업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 봤고 경기도 기업도 개성에 가 있어 자주 뵈는데, 개성공단 확대는 남

북 유형·무형의 상통에 도움이 됩니다. 꼭 북한만 돕는 게 아닙니다.

또 북한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에 기술과 예산을 지원해 돕는다는
 지 합니다.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통일마라톤도 우리가 창설했습니다. 지금은 민통선 앞에서
 반환하는 코스인데, 앞으로 개성까지 다녀오는 마라톤을 남북이 공동
 으로 개최하길 기대합니다. 이것은 군 당국, 북한 당국의 협조가 있
 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통일 사업은 중앙 독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부 도장을 받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
 다. 그래서 우선 통일부에서 담당 과장을 파견해 달라고 간청해 여기
 오시기도 했습니다. 인적 파견이 되니 아무래도 소통이 잘되는 것 같
 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 강원도 등에도 통일부에서 직원을 파
 견해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저희는 독일 한스자이펠재단과 여러 주와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너무 죄를 많이
 짓고도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참혹한 나
 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은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죄 없
 이 식민지와 전쟁까지 겪고, 분단이 돼 이렇게 안타까운 나라가 됐습

니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려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휴전선에 해당하는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는 우리 휴전선의 5배 길이입니다. 독일은 이걸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결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중국 요녕성과도 자매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중국 지역과도 지속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북 간 평화와 통일, 화해와 협력 이 부분은 몇몇의 노력이 아니라 남북 간 노력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일이자,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최고의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남북에게 최고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협력과 통일의 역사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없이 나뉜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박수를 받으면서 하루 빨리 통일되는 그날까지, 모든 경기도민 1,250만이 모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상을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이소 남사 물류 허브센터 개소식

일시 2012년 12월 12일 용인 남사면 다이소물류센터

반갑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물류시설의 3분의 2가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에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전국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옵니다. 이곳 다이소 시설은 제가 본 시설 중 최고, 최대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렇게 이름난 물류시설도 있지만,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물류시설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 물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물류를 축사 안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이지만 물류시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시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설과 쾌적한 학습시설까지 갖추고서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투어도 시켜 주시고 계시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 속에서 더 크게 발전해, 좋은 상품을 값싸게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물류시설을 갖추게 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경기지사로서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일시 2012년 12월 13일 파주 LG디스플레이 게스트하우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우리가 무엇을 도와 드려야 하는지 하는 점입니다. 기업이 뭔가 잘돼야 하는데 요 근래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타난 증세 중 수급하기 어려운 점이, 내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수를 어떻게 늘립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인구에 소득을 곱하면 내수의 총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도 줄고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수가 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도 덩달아 그런 소리를 하는데, 늘릴 길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수출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살 수 있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합니다. 대한민국의 LG·삼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대한민국이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이 수출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수출을 해야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안 하고서 일자리가 어떻게 늘고, 소득이 어떻게 늘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오늘 이 큰 자리에서 솔직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출 안 하고 내수 늘리는 길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잘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 되어야만 그 성장의 과실로 분배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없이 어떻게 분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과 10개를 따야 누굴 줘야 하는지 논쟁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이 어떻게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의 기본 교과서를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쉽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 수출하지 않고서

내수를 늘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 안 하고서 어떻게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도 없애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봉급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을 전부 다 끌어올리면 기업의 3분의 1은 문 닫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비정규직 없앤다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해도 기업인들은 가만히 제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데, (기업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싱가포르와 홍콩에 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15배, 홍콩보다 9배 크고, 인구도 우리가 4~5배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니 다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성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지으려 하는데, 이게 시작한 지 벌써 6~7년째가 됐습니다. 그 땅은 국유지인데 아직 땅 계약을 못했습니다. 관광 산업을 하겠다는데, 말만 하면 그 국유지를 가지고 땅값을 더 달랍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땅값 싸움하다가 지금은 빈 땅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면서 말은 관광이다, 교육이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싱가포르는 우리와 같이 시작했는데, 2년 전에 이미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개장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관광객이 1년에 1,400만, 홍콩은 4,200만입니다. 이들 나라는 경기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 이제 관광객이 1,000만 명 됐다고 기념하는 게, 기념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무궁무진한 저력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상공회의소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뭔가를 짓게 해 주고 뭔가를 해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못하게 하고, 입으로는 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부 기본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해 봐야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하면서 느끼시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싸이가 말춤을 추든, 소녀시대가 노래를 부르든,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를 타든 그 근처에는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랬기에 문화도, 춤도, 노래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뿌리, 줄기, 기둥인 우리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큰 성취가 가득하고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경기농협 리더아카데미

일시 2012년 12월 13일 화성 농업기술원 대강당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산비탈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일부는 나무를 심고 일부는 농사를 안 짓기도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올해 농업으로 가장 보람 있던 일은, 얼마 전 카타르의 식량안보기구 왕세자 직속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모든 사막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농사 기술을 전수하여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선인장의 70%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의장이 한국에 사막이 있냐고 묻길래, 한국은 사막이 한 평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막이 한 평도 없는 땅에서 최고의 선인장을 만드는 비법은 수경재배와 온실재배입니다. 또한 육종기술로 빛깔도 예쁘고 만들어서, 1달러 이하로 매우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우리는 인구에 비해 땅도 좁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땀을 흘려 말버둥치니 핸드폰, 자동차는 물론 선인장 수출도 최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물 공장보다 앞선 이유는 일본의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LED 빛을 이용하고 IT, 자동화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우리 농업이 사막국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식물 공장에는 IT, LED, 자동화 장치로 농업을 합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 농업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과 도시는 막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살면서 꼭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기 싫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벼농사만 지으라는 법이 없고, 배추 농사만 지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되고 직장에 다녀도 됩니다. 이런 면에서 농촌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농촌을 너무 가둬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농업에 별로 보조금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에 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이 안 된다 싶은 부분은 좀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쌀을 수출하는데, 저는 쌀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도 팔러 갔는데 어렵습니다.

농업도 세계적인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FTA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은 다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학교, 회사, 군부대 급식에 과감히 우리 농산물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이 사업에 농업을 접목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농업이 음식, 약품, 화장품 등의 각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민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재해 시에는 보험·보증도 더해 드릴 것입니다. 보험으로도 돈이 없으면 보조금을 통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시다. 어렵다고 징징 짜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희망을 가집시다. 연세 드신 분은 오히려 농업을 안 하시더라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화장품, 생명과학 등과 접목해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학교, 회사, 군부대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군부대 급식에서 군인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시장을 잘 예측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심각한데, 장가가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이 별로 없는데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잘 받도록 해

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이 도시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처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아주 예뻐니다.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농촌에 와도 미용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다 더 미용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더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들도 도시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농촌에 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농업을 하면서, 농촌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일시 2012년 12월 14일 상남 판교글로벌R&D센터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 여기 화면에는 눈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공부하느라 골치 아픈데 여긴 신이 나죠?

선생님들 일을 모두 맡아 하시는 여기의 최고 우두머리 교육부 장관님도 오늘 오셨네요. 장관님은 이 자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주셨고, 저는 한 푼도 안 냈네요.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청산포럼 특강

일시 2012년 12월 18일 프라마호텔 6층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저에게는 모두 선생님 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니 떨립니다.

조금 전에 한양대 바리톤 최기돈 씨를 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세계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저는 경북 영천의 작은 마을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밥 한 번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이었고, 명절이 되면 새 양말 한 켤레 신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을 다 이뤘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고, 오늘 아침에도 양말 스무 켤레 넘는 것 중에서 골라 신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28살 때

전기가 처음 들어오더라고요. 병원이나 의사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갔고, 기껏해야 한의원 가서 약 한 첩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말하면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를 제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의 기적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에 들어가 대학에서 두 번 제적당했습니다. 24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도소에 두 번 가서 2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공장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염색, 방직, 봉제 공장 등에 다니면서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집사람도 구로공단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부부 둘 다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형님도 서울은행에 다니면서 노조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민주자유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 빨갱이를 우리 당에 왜 들이느냐' 하는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입당시킨 사람이 김덕용 의원, 강삼제 기획실장 등 계셨는데, 그분들이 요번에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제가 며칠 전 민족화해상을 받으러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만 남겨 두고 왜 다갔느냐 물으니 '언젠가는 또다시 다 함께 만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한국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부천 소사 지역구에서 모두 저보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냐고 묻기에,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호남 사람이 많고, 그다음 충청도 사람이 많았고, 영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못생기고, 그 지역 토박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 어디 가더라도 3등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거 끝나기 3일 전까지도 3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 보니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었는데, 그 이후로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역대 경기도지사 중 제가 최장수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삼성, LG가 일본의 소니를 이겼습니다. 일본 전자제품을 앞설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이라든지, 런던올림픽에서도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중국의 양귀비가 예전 어머니들에게는 미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여성들이 예뻐지면, 한국에 갔다 왔냐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갔다 오는 것이 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젊은 친구들 중에 미국에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유는 의료보험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싸고 보장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미의 이베로아메리카협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 경기도청을 방문

했습니다. 저보고 남미를 꼭 방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인데,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부탁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왕복 6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못 가겠다 했더니, 직접 협약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 코리아타운에 살았는데, 한국의 농업 이민자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3개국에서 쓸 컴퓨터 입찰에서 1·2등이 모두 삼성과 LG였다고 합니다. 삼성이 30만 대 PC를 일괄 낙찰했다더라고요. 일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도 싸고,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농업 이민을 아르헨티나로 왔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비법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못 먹어서 자기 나라로 농사지으러왔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 비법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에 식물 공장을 수출하러 갔습니다. 카타르 왕세자 직속의 식량안보증진기구 의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세계 선인장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한 평도 없는 우리나라는 선인장을 물 위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 위의 선인장이 뿌리를 갖고 있고, 값도 싸고 빛깔도 예쁩니다. 세계 선인장 중에서 우리 것이 가격 경쟁력이 좋고, 말라 죽지도 않고, 꽃도 제일 예쁘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일등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안 된다고 (선인장 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데, 100% 수출 가능합니다.

우리 농업이 일본보다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LED를 이용해 파장

이 서로 다른 빛을 내면서 이것이 식물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도 하고,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사막기구의 기술이사가 코리안이더라고요.

이렇게 가격, 품질, 기술이 뛰어나고 인적네트워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설 수 있었습니다. 농업도 이렇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2위, 출산율 세계 210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3배입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완만하지만 우리는 급속도의 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경기도가 15배, 홍콩보다 9배 넓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세계적으로 공직의 청렴도가 높습니다. 공무원들에 의해 그 나라가 발전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뜨거운 애국심과 청렴도를 지녀야 합니다. 아시아 1등의 청렴국가가 싱가포르이고, 홍콩은 10위, 우리는 43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공직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청렴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 친인척이 계속 교도소에 가는데, 이것을 끝장내려면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을 비판·견제하는 독자적 기구를 대통령 의지로 만들고, 감사원과 검찰을 다시 또 감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구인 청와대, 국회의원, 최고위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국가 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올려야 합니다.

(제가 처음 경기도지사에 취임했을 당시) 우리 경기도 청렴도가 17개 지역에서 15등 정도였습니다. 경기도는 땅이 넓고, 개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리가 많았고, 청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가장 센 사람을 경기도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감사원장이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감사원에서 한 사람, 외부에서 데려와서 '당신은 곧 돌아가니 돌아가기 전에 마음 놓고 확실하게 깨끗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째가 되니 경기도가 전국 1등 청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등을 못 받고 3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깨끗이 해서 우리 청렴도를 홍콩, 싱가포르보다 더 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깨끗한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예산서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세목까지, 목에다가 비고까지 해서, 모든 예산서를 전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서가 확정되는 순간 관청에 올 필요 없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가 다 나옵니다.

경기 북부에서 수원으로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와도 공무원들과 안면을 쌓아야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공개를 다 하게 했습니다. 번지수를 치면 그 땅의 시세가 얼마이고, 거래공시지가가 어떻고, 어떤 제한 규정이 있는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청에 오셔서 공무원과 접촉할 필요 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365일 24시간 하는 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2시에 와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19 소방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전직 도지사를 모셔서 저녁 한 끼를 대접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의 부인이 갑자기 숨이 막혀 아들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옷 입는 순간에 119가 와서 도착하고, 사이렌 소리에 모든 차들이 비켜 주고, 병원에 도착하니 당직 의사가 나와서 신속히 치료를 잘해 주더라고요. 부인 왈 아들딸 소용없고, 119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위급 시 국민 생명을 위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동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9를 3교대로 전부 바꾸고, 소방관도 6천 명으로, 일반행정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도 이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천에 가면 SK하이닉스에 2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는 여성을 위해 밤에 아이를 맡아 줄 곳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를 다 모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도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잘되어 제2의 24시간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사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집이기에 처우가 더 안정적입니다.

바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에게 '서류를 가지고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찾아오라'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꿨습니다. 차를 더 사서, 기업이 부르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처음 할 때는 245개, 지금은 150개 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의 가짓수가 1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가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위급한 사람에게 혜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을 만들었는데, 불안심리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다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중풍이 들고 아내는 일자리가 없고, 자식은 학교에 못 갑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는 다르더라도 원스톱(one-stop)으로 가정에 맞춰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로 바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몰라서 방송사가 물어보니, 도저히 여론조사를 해도, 하는 것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는 방송에서 누가 된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간발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행복하려면 비리·부패를 근절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권력 행사를 잘할 수 없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거버너라고 하면 굉장히 센 줄 아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바꿔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전부 중앙이 갖고 있어서 도장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시도지사 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넘겨야 합니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자치가 있어야 대통령과 중앙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만주의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가난도 극복하고, 낙후된 서러움을 극복하며 동방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북한, 중국 북부 지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잘살아보고 싶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유대인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분단되었고 통일도 못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 반만년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코리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에 충성스러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도 세 번, 도지사도 두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을 나쁜 나라로 생각했었습니다. 미국, 친일, 재벌, 소수 군부 독재 세력이 모여서 김구 선생을 죽인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가 편중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넓게 포용해 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취를 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조국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히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북한은 3대에 충성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발전된다고 해서 조국에 애국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모범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앞선다고 그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 된 국민이 최고의 국방력이다'라고 합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히 생각하는 국민이 있어야 이 나라가 튼튼하고 건강해 집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욕심이 많이 납니다.

끝으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우회

일시 2012년 12월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50%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를 했습니다. 도민의 뜻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선거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일절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제가 경선에 출마해서 박근혜 후보가 승자가 되고, 저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가 특정인을 돕는다든지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소속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제가 여러 면에서 다시 한 번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역사상 신라 진성여왕 이후 1,1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대통령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초강대국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그런 면에서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이 어떻게 여성 대통령이 되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싸이보다 더 강한, 세계적인 코리아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두 분이 안타깝고 불행하게 우리 국민들을 떠났는데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 오랫동안 기억하는 분들이 표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이겼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큼니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승자가 어떻게 이 정치를 포괄해서 훌륭한 대통합을 이루는 영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한 대통령으로 나아가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대한민국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할지, 이런 점에서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합을 위해서 여성 리더십이 오히려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모성애와 모성의 포용성, 부드러운 동시에 끝까지 자신을 위해 여러 헌신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불행했던 역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오히려 통합과 부드러움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드러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와 여러 번 직접 만나서, 경기도의 GTX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민의 50% 이상이 교통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육하기가 힘듭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가 경기도의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외국의 사례를 합쳐서 GTX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경기도를 수도 서울에서 30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면 경기도는 그야말로 진정한 수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연천 가는 것이 서울에서 대전가는 것보다 더 멀면 한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GTX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했고, 민주통합당에서도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최전방 지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많고 교통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학교도 없습니다. (북한이) 애기 봉에도 성탄절에 대포를 쏘겠다고 하고, 풍선을 날린다는 이유로 임진각에도 대포를 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포를 쏘면 맞는 곳이 경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점 때문에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의 70% 이상의 전력은 경기도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선거 공약에서나 인수위 과정,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작년에도 청렴도가 떨어져서 세계 45위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친인척 주변의 권력 등에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고, 상시적인 감찰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청렴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보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합니다. 민생에서 최대 수확이 자식 농사입니다. 아이를 즐겁게 낳고, 행복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보육·교육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런 점에서 저보다 더 강력히 약속해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연속 3년째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민금융 종합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공공 부분에서는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또한 민족화해상을 경기도가 수상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들의 동절기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갑·양말·내의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상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디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에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복지를 더 확실히 선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방 안보가 중요하기에 남북 간의 평화와 상생이 중요합니다.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이 양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 자리를 만들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 국방 안보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대포를 쏘면 평화가 깨집니다. 매우 어렵지만 남북 교류·협력과 상생이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복지와 경제, 안보와 평화 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타협과 협력, 상생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윤화섭 의장님이 이끄시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3분의 2, 새누리당은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서로 참고, 원만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패배한 당에서도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서로가 화해·협력하는 관계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박근혜 리더십으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 희망차고 더 좋은 소식이 들려서,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무식

일시 2012년 12월 31일 제1회의실

여러 가지로 작년 한 해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늘 주변에 희망을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발열체가 돼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공에 충실하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열, 발사를 위해 내공이 가득한 공무원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복과 건강이 넘쳐서 주변에도 그것을 늘 전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2일 부천 상공회의소 4층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업인 여러분 사업 번창하시고, 일자리도 많이 늘려 주시고, 좋은 소식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의 GTX 역사가 여기 (부천)종합운동장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과 법률안 중 GTX 국비 예산 100억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소사와 대곡 사이의 철도도 일반 철도로 바뀌 주셨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道가 10%, 나머지 90%는 국가가 지원하기로 개선됐습니다.

영유아 보육 면에서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수당을 주는 획기적 복지 정책을 세우고, 부천을 통과하는 GTX와 철도 등에서 많은 예산과 해당 법률을 통과시켜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의원님들도 100%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천 출신이기에 특별히 도의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뉴타운 출구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도 道가 더 부담하였습니다. 항상 부천시민들의 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이 살피 주시고 계시는 도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만수 시장님 외 시의원 여러분들, 부천은 아직까지 제 집입니다. 여기 소사구 한신아파트에 집이 있고, 가끔 와 보기도 합니다. 저로서 부천은 단순히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를 도지사까지 만들어 주신 정치적 고향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조성만 회장님도 저에게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여기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부천이 해야 하는데, 공정히 한다면 부천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만 회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몰랐을 텐데, 말씀을 들어 보니 부천이 꼭 해야겠더라고요. 아무쪼록 부천에서 하는 것이라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7호선도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천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은 반면, 우리 부천은 GTX에 역사가 들어온다 해도 저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GTX는 청량리에서 송도까지 33분 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여의도까지 가실 때 5분이 안 걸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도가 옵니다. 7호선과 연계되고, 각종 KTX, GTX, 도시철도, 버스, 택시 승강장까지 연계된 획기적인 교통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당장의 일 때문에 멀리 못 보실 수 있는데, 부천은 땅은 좁지만 교통이 편리하며 앞으로 평양, 신의주까지 다 도착하는 획기적인 교통망을 갖춘 곳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타운 등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시면 제 나름대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시장님 외 기업인,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무식

일시 2013년 1월 2일 제1회의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 31일 임진각에서 제야의 종을 치고, 그다음 2013년 1월 1일 일찍 와서 현충사 참배를 하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제가 과연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워지느냐,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새로움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 마음이 새롭게 바뀌었고, 아직까지 제 마음은 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긍정적이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과연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면, 마음이 새롭다 하더라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면 새로

운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태어나서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두 부부만 남았고, 집사람도 환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새로움이 없다면 자칫 따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도청에 나왔는데, 새롭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소방관이 순직한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소방국은 소방관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도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바로,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순수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국심, 국민을 사랑하는 애향심,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신년사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노력한다면 좋은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가정과 직장 동료들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뜨겁게 넘치고 용솟음치는 좋은 새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구단 유치 관련 간담회

일시 2013년 1월 3일 라마다호텔

첫째, 저는 다른 것보다도 KBO의 10구단 창단 결정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에 대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100만 이상의 도시에 야구단을 창단해야 맞습니다. 10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야구단을 창단하겠다는 것은 KBO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가 가는 것이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 마냥 가게만 차려 놓으면 손님이 가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이라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면에서 조건과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3일 의왕시청 대회의실

기업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금도 많이 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출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세계 최고입니다. 싸이가 말춤을 추고, 올림픽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없고,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분단되었고, 인구는 많고, 낙후된 농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최고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강의 기적을 기업인들이 만들어 주셨고, 그 바탕 위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가 꽃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인 데다 부동산도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내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빠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먹고삽니다.

김성제 의왕시장님과 기길운 의왕시의장님 등 많은 분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애를 많이 써 주시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 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왕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왕은 과천 이상으로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습니다. 백운호수가 있어서 저도 머리가 아프면 가끔 여기에 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바람도 쐬기도 합니다. 계절을 떠나 의왕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의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왕이 새로운 도시로서 미래 친환경 지식산업단지, 연구·교육·친환경 도시로 발전하도록, 또 특별히 의왕의 철도산업 자체가 훌륭히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명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3일 광명시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업인 여러분들, 늘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세금 많이 내 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대한민국의 명성을 떨치시고 계신 분들이 기업인들이십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기아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싸이가 말춤을 추는데, 그 기초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만드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 위에 싸이가 있고, 김연아가 있고, 런던올림픽에서 세계 5위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에 그 위에 문화, 스포츠가 꽃피는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외 세 분의 국회의원께

서, 1월 1일 통과된 예산안과 법률안으로 경기도의 부족한 예산에 훌륭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되는 10구단 유치에 대해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국고 확보를 해 주시고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애써 주시는 세 분의 국회의원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거의 다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없고, 오직 '경기당'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는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 특별히 기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올린 예산안보다 200억을 더 확보해 주셨습니다.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기술 개발, 해외 시장 확보, 세계 박람회에 과감히 없는 예산을 잘라서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양기대 광명시장님 외 시의원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명은 요즘 잘나가고 있습니다. 43년 전인 1970년부터 제가 여기에 자주 왔는데, 43년 만에 광명시가 가장 잘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에는 KTX와 그 주변의 코스트코(COSTCO)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도시를 보면, 저출산 시대에 베드타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타운 플러스 일자리가 있는 곳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광명은 그동안 베드타운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금자리를 통해, 그 자리에 임대주택이 아닌 각종 최첨단 연구소 등 지식집약적인 산업이 잘 갖춰진 도시를 만든다면, 송도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송도보다 위치도 좋고, 송도보다 바람도 없습니다. 주변의 지식 인프라, 시장, 교통, 모든 면에서 송도를 능가하는 매우 좋은 위치가 광명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 모든 지식 산업, 모든 서울의 기운을 끌어 당겨서 KTX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백재현 의원님께서 시장을 하실 때, 경륜장을 제가 당겨 놓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경기도로 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작년 한 해 동안 1,122억 원의 레저세가 경륜장에서 경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재현 의원님, 양기대 시장님이 '그 돈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경륜장 때문에 애는 많이 썼는데 혜택은 별로 없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광명의 이런 규정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길을 만드는 데에도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광명이 경기 남부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식 인프라가 갖춰진 자립적인 신생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서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각광받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KTX의 종점 도시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3일 군포시청 대회의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수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좀 돌아가야 음식점도 잘되고 하는데, 부동산이 안 좋습니다. 경기도도 작년에 세금이 1,000억 이상 안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큰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는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부동산이 좋아질 텐데, 출산율이 세계 222등으로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나아지겠습니까. 수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수를 이야기하는데, 내수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100개 이상 하는데, 거의 다 안 됩니다. 미분양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전 세계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넘버원으로 알아줍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일본의 소니나 미국의 애플을 꺾고 세계 1등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 만들면 잘 만들었다고 인정합니다.

국내 인구는 오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인구는 60억이 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머리가 가장 좋고, 눈치가 가장 빠르고,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이 가장 뜨겁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 경제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가 꽃피었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기 힘듭니다. 아이 낳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경기도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생 수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업인들께서 군포에서 기업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이 오시라고 시장님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올해 1월 1일에 GTX와 각종 복지에 관한 예산과 법률안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도 수당을 주도록 개선된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원은 민주당이 3분의 2입니다. 이번에 기업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 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포시는 크지 않지만 깨끗합니다. 공무원은 청렴하고, 시민은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군포시는 청렴도가 1등입니다. 저는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늘 강조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포를 만들어 주시는 김윤주 군포시장님 외 김판수 시의회 의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리산 도립공원도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4일 남양주 더컨벤션웨딩부페

한류스타들이 잘나가고, 스포츠·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나갈 수 있는 기반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만들어 주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GTX 예산 및 국도, 철도, 고속도로 부문에서 예산을 전폭 확보해 주신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세금의 3분의 2가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기춘, 최재성 국회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최고의 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올린 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동부 지역에 낙후된 부분들이 많은데, 별내 신도시가 잘 되어서 앞으로 별내까지 철도가 잘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남양주, 구리, 그리고 가평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지금 자전거길을 열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 가장 잘나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강남과 가깝기 때문에 입지가 좋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잘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늘 혁신에 힘쓰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떨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달려와서 열심히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힘찬 계사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4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부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곳곳하게 북부 지역을 지키시고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번창시켜 주신 북부 지역의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홍문중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홍문중 국회의원께서 박근혜 후보를 의정부에 모시고 오셔서 좋은 공약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GTX, KTX를 의정부까지 끌고 오겠다고 하는 데 일등 공신이셨습니다.

GTX와 KTX가 노선을 공유하는 부분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GTX와 KTX를 화성에서부터 수서, 삼성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의정부가 KTX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만들어 주신 홍문중 국회의원

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임지고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의정부의 호원IC 사업비로 국비를 170억 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은 국고에서 하는데, 국고 1,482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에 국비 590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연천에서 신탄지까지 국도 1호선 사업비 200억 원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GTX 기본 설계비를 100억 원 확보해 주셨습니다.

호원IC 개설 사업비 230억 원의 예산을 올해에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주 오는데, 길이 매우 막힙니다. 호원IC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가 철도와 고속도로입니다. 전국에서 철도, 고속도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이곳 외에는 없습니다. 최전방이자 대한민국 국방의 1번지, 안보 1번지, 한미동맹의 1번지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정부 부대찌개밖에 먹은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국정에 나가셔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道 전체 예산 중 북부 지역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취임하던 해에 북부 지역에 예산 1조 50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6년 지난 작년에는 5조 1,902억 원으로 394% 예산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도로 예산 전체의 51%를 북부 지역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는 25.8%인데 예산은 31.6%를 쓰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에 50%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북부를 다녀 보니까 이곳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을 북부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너무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부장관님과 임진강 고시를 개정해서 양주 은남산업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LG 패션 복합단지 또한 양주시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50% 해서 11인승 봉고차와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단이 전부 흩어져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데, 버스회사에서는 적자가 나서 도저히 노선을 늘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버스를 지원하게 됐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에서 차가 출발해서 경기 북부의 연천, 포천까지 도착하는 게 가능하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문제가 고속도로입니다. 포천, 동두천, 구리 고속도로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사업비를 국비로 590억 원 확보했습니다.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천에서도 경원선 전철을 연장하는 사업에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철도청과 국토부가 전부 세종시로 이사를 갔는데, 오늘 우리 철도청 국장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의 철도가 불편한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철도 차량을 늘려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제가 편성한 예산보다 증액을 더 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주시장님과 동두천시장님, 연천군수님 다 오셨는데 의정부시장님은 못 오셨습니다. 아까 통화는 했습니다만, 고산지구 보상이 너무 안 되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보상을 위해서 20여 가지 정도를 양보를 했음에도 LH에서 안 주는데, 정말 이런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장님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고산지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의정부시민들이 모두 걱정을 합니다. 의정부시장님과 의정부시의 이런 요구를 우리 道의 간부들도 적극 지원해서, LH에 강력한 압력을 넣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없고, 경기당만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먹고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 신세계백화점이 하나 들어오니까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에서 전체 손님의 25%가 옵니다. 고급 쇼핑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옵니다. 이런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허봉렬 병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덕망과 의술이 뛰어나신 분으로서 국립 암센터에서도 계셨는데, 의정부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병원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경기 북부 지역에 좋은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道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최선으로 힘써 주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의 시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주신 은혜를 아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북부 주민들이 원하는 평화와 통일,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4일 포천용정회관

김영우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포천-구리 고속도로에 산 200억 원을 더 확보해서 1,069억 원의 포천-구리 고속도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요즘 부동산 거래세를 가지고, 60%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기도의 권익을 국회에서 대변해 주시고, 특히 포천·연천 등 가장 어려운 곳을 잘 대변해 주신 김영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기업인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또 섬유소재연구소장도 오셨는데, 섬유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포천 장자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천의 기업인 중에서 40살로 가장 나이가 젊은 사장님이 오셨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친환경 LED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신 분입니다. 브라질,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중동, 터키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문이 폭발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주문이 있어도, 이런 곳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런 곳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와주면 특혜 시비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좋은 기업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장자마을도 한센인들이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단속만 많이 하지, 정작 도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소개비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돈을 받지 않고서도 정말로 이런 좋은 기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께 포천을 떠나지 말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삼성, LG, 현대, 기아에 가서 포천에 기업 하나만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있어야 지역 전체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온다면, (직접) 여기에 대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 꿈입니다.

섬유나 가구 분야에서 이분들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줘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포천에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고 뛰어 봅시다.

오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7일 오산컨벤션웨딩홀

기업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LG에서 역대 최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LG 공장 주변에 80만 평을 추가로 더 한다고 합니다. 요즘 LG가 돈이 조금 없는데, 계획대로 80만 평을 다 한다면 제일 덕을 보는 것이 오산시민들입니다.

LG의 80만 평은 삼성의 평택 고덕단지 130만 평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파주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그

럼으로써 이 일대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덕에 해도 그 사람들은 오산을 거쳐서 직장에 가거나 집으로 갑니다.

오산의 주택과 교육, 둘 다 획기적으로 될 것입니다. 평택 이상으로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오산일 것입니다.

저는 원래 경북 출신입니다. 그런데 구미에 가면 구미 사람들이 저 보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욕은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고, 고맙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오산, 경기도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머리가 가장 좋고, 눈치도 빠르고, 손재주도 빠르고, 한번 한다면 반드시 끝장을 봅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겪고 전쟁 이후 분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불모지에서, 오직 맨손과 정신과 몸 하나로 세계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삼성과 LG가 일본의 소니와 미국의 애플을 꺾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명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싸이나 런던올림픽 (세계 5위) 같은 결과를 낳은 문화, 예술, 스포츠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철도, 버스, 택시 등의 오산환승센터를 위해 국비 21억 원을 따오시고 오산천을 위해 국비 30억 원을 가지고 오시

는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또 도의원님들도 오산천 상단 환승센터에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산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기에 좋고 일자리가 좋은 경기도의 1번가입니다. 그 밑받침에서 경제적 기초를 닦으신 분들이 경기도의 기업인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면 다들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양귀비가 미인이었는데 요즘은 한국의 소녀시대가 예쁘다고 합니다. 중국 여성들도 예뻐지면 한국 갔다 왔느냐고 합니다. 한국 스타일, 강남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로 해야 미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산을 중심으로 많은 아름다움이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과 스타일로, 아름다운 한국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평택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7일 평택상의 대회의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제품이 전 세계 1등으로 올랐고, 그 덕에 싸이의 노래가 세계 최고의 노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등에서 얻은 모든 명성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소니를 이기고 노키아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미국 본토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65년여 만에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하고 눈치도 빠르고 팀워크도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든 선박이든 자동차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까지 능가하는 실력을 키워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LG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돈이 좀 없어서 80만 평의 절반만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전부 하길 바랍니다. 삼성도 진위·고덕 120만 평에 투자를 합니다.

(평택시가) 자동차 수출도 잘하고 계십니다. 국방을 위해 미군뿐 아니라 해군 등 1천만 평을 제공하고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쌍용자동차가 좀 시끄러운 게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회사가 흑자가 나야 복지도 시킵니다. 적자가 나면 복지를 시키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방입니다. 제주지사에게도 말했습니다만, 제주도는 해군기지 때문에 떠드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평택 해안을 다 내주고 도비·시비도 다 대 주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송탄 비행장이 저렇게 시끄러워도 묵묵하게 참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이 평택에 복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주겠습니까? 이 같은 평택의 헌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평택은 국방 안보의 중심이자 기업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덕산업단지와 하수처리장, 진입로 등을 위해 국고를 확보해 주시고 KTX를 위해 국비를 확보해 주신 국회의원 두 분께 박수 한 번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하는 게 뭐 있냐' 이런 말도 하시지만, 평택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스튜어디스가 과자를 먹어 보라고 해서, 저는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평택에서 나온 거라면서 들어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 주시는 평택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방 안보가 든든하고 일자리가 생겨 납니다.

훌륭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9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

기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남에 세계 최고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투자도 많이 하시고, 기업을 많이 확장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업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보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싸이의 말춤,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런던올림픽 5위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팀워크도 뛰어나고, 열정도 뜨겁습니다. 그리하여 삼성과 LG가 일본의 소니, 미국의 애플을 능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와 분단을 겪고 아무 자원도 나지 않는 불모지에서 짧은 시

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뤄 낸 것은,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세계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수 애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내수의 중심은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세계 시장에서 앞서 있는 덕분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 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하진, 김미희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판교를 거쳐서 수서를 가는 GTX 예산도 100억을 확보해 주셨고, 성남에서 여주까지 가는 복선전철 4,450억 원의 국비도 확보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세가 세수의 50%가 넘는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국비를 마련해 주신 두 분 외 국회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남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민주당이 3분의 2이고, 새누리당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원님들은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없고, 오직 '경기당'밖에 없다는 각오로 경기도정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린 예산보다 200억이나 더 많은 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은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돈도 많고, 가장 잘나가는 곳입니다. 또한 신년 하례에서 늘 시를 낭송합니다. 시를 낭송해 주는 곳은 성남밖에 없습니다. 성남은 이렇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판교에 GE, 파스퇴르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그 기업들의 대표자들은 세계의 많은 연구소 중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니까 가장 빨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설도 좋고 IT가 뒷받침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인프라 및 IT 지원이 훌륭하고, 신분당선이 있어서 교통도 매우 편리하여,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고, 판교에도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부의 잘못된 주택공급 우선주의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중앙정부는 땅이 있으면 무조건 집만 지어서 표를 더 얻는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이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이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여 도시계획, 산업단지, 토지용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쥐고 있는 한 대통령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방 안보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여 정책을 해야 합니다. 2할 자치를 최소한 4할 자치로는 올려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지방자치는 재정도 충분하고 의회도 잘 해결됐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글로벌화 된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대한민국이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 외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많은 기적과 혁신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9일 장소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작년에는 싸이가 '강남 스타일' 말춤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춤, 노래, 스포츠,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나가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발달 위에서 문화와 예술 및 스포츠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일본의 소니와 미국의 애플, 핀란드의 노키아를 꺾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68년 전에는 일본 식민지였습니다. 그 후 분단이 됐고, 전쟁의 잣더미 속,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 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위대한 성과들을 이

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도에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세가 세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광주 국회의원들께서 광주 복선전철에 국비 3,600억 원을,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표면도로에 국비 1,500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숙원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의원님들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낸 예산안보다도 200억 원 이상을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조억동 광주시장님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화합 또한 뛰어나십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소리 없이 원만한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여 해결하여 좋은 상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분들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팔당댐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곳으로서, 늘 팔당댐 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조억동 광주시장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로부터 광주 시내에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협력하여 늘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광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9일 하남아이테크 2층 블루존 대회의실

경기도에 상공회의소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남홍 회장님은 하남·광주 상공회의소 겸 경기도 22개 상공회의소의 총회장을 오래 맡아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싸이가 잘나가고 우리나라가 런던올림픽 5위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바탕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을 만들어 빛나는 위상을 이끌어 내신 기업인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열정도 뜨겁습니다.

오늘 이현재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위

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인수위 위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분과의 간사로서 가장 높은 책임자입니다. 그 직책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하남의 열병합발전소의 위치나, KTX·GTX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남권 신공항과 항구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맡아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IT, 유통, 농림·수산·식품, 방송·통신을 전부 주무르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현재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자랑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박 당선인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일꾼이고, 중소기업청장 때부터 이미 실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정치 선전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박 당선인이 안 써 줍니다. 하남이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 났습니다. 또 이교범 하남시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도의원님이 두 분 오셨는데, 솔직히 저분들이 없으면 제가 경기도 의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중요한 문제마다 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의원님들이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업 지원 예산을 220억 이상 증액하여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하남의 목표는, 가다가 잠깐 들러 라이브카페에서 차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니온스퀘어로 쇼핑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남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스퀘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물이 매우 깨끗하고 남한산성과 검단산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위치도 강남과 근접하고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호텔, 쇼핑, 회의장 등 멋진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전 의원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데모할 필요 없이 국회의원, 도지사를 잘 부려서 싸우지 않고도 어떻게 하남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봐도 교육하기 좋고, 일자리 많고, 교통 편리하고, 공기 맑고, 역사와 문화유적지가 있는,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하남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데모는 끝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협력하는 하남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넘치는 하남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일시 2013년 1월 10일 국회 귀빈식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도 수원 10구단 야구 선정 프레젠테이션으로 늦어졌습니다.

저는 1994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 정치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정치를 길러 내는 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치인을 국가적인 리더로 훌륭히 길러 내는 곳이 없더라고요.

국회에 계신 많은 선배님이나 전직 대통령을 볼 때,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를 길러 내는 기관이 약합니다. 새누리당도 연수원이 없어졌습니다. 당에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왜 정치인을 양성하지 않고 공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도 했는데,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연수원이 없다면 빌려서 해도 됩니다.

이 김창준 아카데미의 특징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무언가를 접할 기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김창준 선배님은 코리안 중에서 유일한 미국의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자꾸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젊어서 연구를 해야지, 후진을 양성하고 술선수범해야지' 그러십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운동권에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7남매 중에서 저 혼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 서울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시절 큰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하다가, 2학년 때 잘렸습니다. 그 후 공장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8개 땀습니다. 공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에 두 번 갔습니다. 2년 반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석방됐습니다. 나오니 러시아,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은 아니지만, 저희는 모택동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저는 1994년에 새누리당 입당 후 처음으로 미국에 가 봤습니다. 그전에는 해외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고, 오직 국내의 민중 혁명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공장 노조위원장을 했고 집사람과 형님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 보니, 화장실 문짝이 없더라고요. 그다음 소련에 갔는데 라면 한 그릇 먹기 어렵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가깝게 들을 기회가 많지만, 나머지 나라는 잘 몰랐습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주의가 강하고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 갔는데, 세계 최강의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빅3가 있습니다. 작년에 다시 가 봤는데, 디트로이트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GM을 중심으로 많은 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디트로이트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공장이 비고 도시가 망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 뉴욕에서도 가고 싶은 곳은 다 가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 보니 사람들이 친절하고, 가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반미 감정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첫 번째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천 소사구에서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매력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니, 너무 말랐다면서 돈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니,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집도 없는 사람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선거 여론조사) 당시 1등은 박지원, 2등은 박규식 의원이었습니다. 박규식 의원은 재산 등록에서 1등으로 돈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데, (부천에서) 경상도 출신은 10% 될까 말까였습니다. 선거 끝나기 3일 전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었는데, 당시 15대 국회의 최대 이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열세, 청와대에서도 열세, 언론에서도 열세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까 보니 이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거를 마치고 나서 재선하기 전에, 당선되자마자 당 대표가 (말하기를) 자기가 특별히 생각하여 경북 영천으로 옮겨 주 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니, 집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사 람은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20만 이상이 당신을 이 지역에서 믿 고 뽑아 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지역을 옮기려고 하고 찍어 준 은혜 를 배반하면 어떻게 옳은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더라고요. 그래 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후 도지사를 하려는데, 경북지사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투리 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 재선을 하고 있 는데, 경기도 1,000년 이래 제가 최장수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정치를 배운 적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이란 그 나라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했느냐고 서울대 법대생들 200 명에게 물어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 의 다 모르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대다수는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은 단군 할아버지나 이성계가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사 람은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대부분도 건국에 대 해 잘 모릅니다.

둘째, 헌법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지사를 하면서 헌법(조문)을 도내에 달아 왔습니다. 다니면서 다 봐라, 이겁니다. 국회의원 몇 번 하고 박사 몇 번 한 사람이 우리 헌법을 보고는, 이런 헌법을 사실 한 번도 안 읽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서 개헌하자고 하면 다 서명합니다.

사실 요즘 말하는 경제민주화 등이 헌법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건국하는 데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NLL도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최전방이기에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3분의 2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LL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그야말로 백령도 자체가 38선 이남입니다. 원래 6·25 끝날 때는 미군이 다 장악했습니다. 적어도 서해안의 영해는 100% 미군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전이 되었는데, 이승만이 하도 북진통일을 (이야기)하니 NLL 자체를 38선으로 그었습니다. 백령도 이북은 전부 다, 북한에 다 내주었습니다. 38선 이북의 섬과 바다를 북한에 전부 다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북한이) NLL을 주장하는데, NLL은 대한민국과 UN이 북한에 엄청나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대신에 육지에 대치 중인 DMZ는 그대로 그었습니다. 하지만 NLL은 훨씬 (남쪽으로) 내려서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인이 NLL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공부를 안 하신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경기도지사를 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육해공군 총책임을 하다 보니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하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군 출신도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누가 나쁜지,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걸핏하면 광우병 파동을 일으킵니다. 호주 고기는 되고, 미국 고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는 미국에 다 보내서 미국 고기를 먹입니다. 저는 사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미국에 보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진리의 기본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다 침략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략하고 누구를 짓밟아 본적이 있습니까? 양같이 순한데, 오직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한반도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제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알아줍니다. 미국, 일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물건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삼성

과 LG가 일본의 소니, 미국의 애플도 꺾었습니다.

남미 사무총장이 우리 사무실에 또 와서 우호 협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분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한국에 오는 데 3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왕복 60시간 이상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릴 적에 코리아타운에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농업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에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이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입찰을 하니 30만대의 삼성 제품이 입찰되었다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르헨티나까지 농업 이민을 왔던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 제품에서 다 앞서가고 있다며, 어떻게 최고가 되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카타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식량안보증진기구가 있는데, 저는 의장을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세계 선인장의 70% 이상을 경기도가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경기도의 사막이 몇 평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이 한 평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정재배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습도, 온도, 빛을 조절하고 육종개량을 해서 물 위에서 키운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오래갑니다. 그리고 꽃의 빛깔이 아름답고 가격이 쌉니다. 좁은 면적에서 많이 길러 낼 수 있습니다. 선인장 한 포기에 1달러 이내입니다. 가격과 그 아름다움과 영속성에 있어서 우리 선인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 과정을 전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일본 식물 공장을 우리가 앞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IT가 세계 최고입니다. 둘째, LED 등의 파장에 따라 식물의 색깔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화 기술이 앞서고 있습니다. 습도, 온도 조절 방식이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가격이 일본의 절반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섭니다. 다섯째, 사막기구의 이사가 코리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안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낸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세계인들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축산 개량을 해서 소고기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값싸고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농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만든 역사가 30년도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 되었습니다. 땅이 넓다고 농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남을 침략 한 번 하지 않고도 세계 10위권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외세에 짓밟히고, 전쟁을 겪고 분단이 된 잿더미 속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을 일구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승만 죽일 놈' 하면서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태반입니다. 전 세계가 코리아를 찬양하는데, 우리는 진정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영어, 수학은 잘하지만 국사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저에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자기 나라에도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침략 당하고, 배고파서 아르헨티나까지 농업 이민을 가고, 전쟁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기댈 곳도 없는 곳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앞이 캄캄했지만,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만든 이 위대한 역사, 이것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나아가 대동강의 기적, 만주 벌판의 기적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전파할 사람들이 코리안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핀 꽃을 가르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제가 '당신의 나라는 여야 양당 체제인데 어떻게 북한의 인권(법 제정)에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면 낙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의회에 여당과 같이 갔는데, 저는 북한인권(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은 우리 한국이 먼저 통과시켜 주어야 했는데, 미국이 먼저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면 한반도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의 애기봉에 가도 북한 마을이 눈앞에 다 보이고, 통일 전망대에 가도 다 보입니다. 저 참혹한 동포들을 보면 저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 이유식과 장갑, 양말을 지원하고 말라리아모기 퇴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이 굶

거나 맞아 죽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고문한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에게 연락해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과거 당신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했던 것을 나는 다 잊었다'고 했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숨 쉬기도 어려운 교도소에서, 저를 지키는 교도관이 와서 '부인이 면회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죽으려고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보지는 못해도 (면회 왔다 갔다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부인이 있다는 자체가 저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가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영국은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국대사관에 이야기하니, '이 정도도 말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떻게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한때 대한민국을 많이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대했습니다. 친미주의자 이승만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반정부, 반미, 반재벌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2년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두 번 했었고, 학교에서 두 번이나 제적당해서 44살에 졸업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두 번이나 위반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김문수를 경기도지사로 뽑아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이 '졸업은 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흔을 넘어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을 갖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올었습니다. 그런 김문수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잔이 넘칩니다. 저같이 대한민국을 반대한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안아 주고 덮어 주고, 국가에서 봉급도 줍니다. 이런 나라에 충성하지 어느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자애롭고 한없이 너그럽고, 전 세계인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훌륭한 TV·냉장고·스마트폰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제가 사랑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셋째, 제가 나이가 드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고귀한 정신과 인격이 있습니다. 그가 장애인이든 도둑질을 하든, 그 내면에는 순수한 양이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고귀한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은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아니든, 그 자체로 개개인마다 고귀한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또 고취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은 GDP, GNP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

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고귀한 것은 위대한 영혼이 위대한 사랑을 나누고, 국경을 넘어 가장 어둡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경기도에 한센촌이 7개 있습니다. 병이 전염된다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산 건너 물 건너 경기도의 구석에 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속만 하지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꼬막손을 만지면서, 제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무원 전체가 울더라고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 울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엉터리 법이 많습니다. 밑바닥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넷째, 청렴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경기도 청렴도가 꼴찌였습니다.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패즉사 청렴영생'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부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 잘해도 부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부터 형님도 잡혀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권력은 견제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제가 도지사에 취임할 시절 감사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감사원장은 여당이었는데 저는 야당이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독한 사람을 경기도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도정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한 사람은 사정없이 해고했습니다. 복직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경기도가 청렴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당선인에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한) 친인척, 측근은 과감히 자르라고 합니다. 공직비리 수사처 같은, 모든 공권력 중의 사정기관을 다 동원하여 대통령의 측근, 국회의원, 검찰, 최상층의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감찰해야 합니다. 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0.6%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여)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저는 박 당선인이 잘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살아온 길이 상당히 별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도 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뭐 먹고 살는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했는데 굶어 죽으리라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노동 능력이 없고 외로운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을 만큼은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세계 222등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성들도 애를 낳아야 합니다. 돈 따지지 않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이 200등만 되어도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 세계에 영원한 사랑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정치인이 정통적이고 주체적인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곳이 김창준 아카데미입니다.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1월 16일 서울시 서초동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뱃돈을 준비해도 줄 아이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남북 간 교류와 화해가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장단, 개성, 개풍, 연천의 미수복 지역에 고향을 두고 계시는 도민들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정전 60주년입니다. 북한에 있는 좋은 사찰 등을 복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대대급 이상 군부대 616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 등이 가장 밀집해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많은 군사시설과 국방 전력이 몰려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날 통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조업의 3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처럼 대기업,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쟁력 자체가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학력,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손재주, 눈치, 근면도 최고입니다. 매우 우수하고, 목표한 시간 내에 목표를 이룹니다.

판교에 파스퇴르와 GE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끈기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군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도 미군보다 훨씬 빨리 달성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수입니다. 내수 중에서도 택지가 문제입니다. LH가 지금 75개 택지 사업을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만 가구를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향후 지방까지 140만 채를 짓는다는데, 너무 과도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공공주택과 택지를 다이어트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인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과잉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적어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일절 세금이 없는데 왜 주택에만 부과합니까? 경기도 도세의 58%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세금이 걷히질 않습니다.

모든 지방 재정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보육비를 준다는데,

절반은 지방이 내야 합니다. 심각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또 GTX를 추진하고 철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개를 개통했습니다. 복선전철 등 새로운 도시철도도 하고 있습니다. GTX는 세계적인 초고속 철도로,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모두 밀어주시고 있습니다. 국고를 제일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일본 동경 주변의 신도시처럼 아파트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베드타운은 전부 고사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는 복합도시는 생명이 길고, 저출산에도 견딥니다. 일자리 없이 집만 있는 베드타운은 앞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던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면 망합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신라 진성여왕 이후) 1,125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빛과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일시 2013년 1월 16일 안산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의원님 여러 분이 인권 조례를 만들어 주시어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100%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안산은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67개국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십니다. 안산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사시는 곳일 것입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민들도 외국인과 함께, 전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국민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 코리아타운이 없는

곳이 없고, 다들 성공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사시는 외국인들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뒷받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님께서도 오늘 오셨는데, 필리핀에서 오신 분입니다. 시집오셔서 국회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의 이라 의원님도 몽골에서 오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인 1세대, 2세대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셔야 합니다. 말 설고 낫선 타국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것, 열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 222등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모두 잘살고 성공해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 기관이 있고 고훈 목사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道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산상, 규정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임무를 규정에 맞게 잘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앞에는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비하면 우리 道가 운영하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안산시 지원센터의 경비실만도 못한 수준의 시설인 것에 저 역시 자존심이 매우 상합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인권 보호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道와 시와 의회와 타 자치단체와 잘 협력하는 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자스민 의원님도 국회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일시 2013년 1월 17일 용인 골드웨마리콘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잠자리 좋았나요? 이곳은 용인입니다. 용인시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여기보다는 더 좋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용인은 정말 넓고 좋은 곳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합니까. 배움의 기회를 만나 함께 모여 배움으로써 근심 걱정을 떨치고, 자살의 유혹을 떨치고,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제 목표는 배움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배움을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엄마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것을 막는 것도 평생교육의 핵심입니다. 배움은 즐거움입니다. 배움이 기쁨이 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핵심입니다.

저는 경기도 한센 학습관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의 손이 꼬막손입니다.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전전궁궁하며 학교 다닐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배움의 기쁨으로 울고, 우리 공무원들도 읍니다. 이분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관의 소임입니다.

이제는 모든 학교, 모든 학원과 모든 가정도 인간을 공부하는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인간이 해방되는 자유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움과 학습, 교육,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되고, 평생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일시 2013년 1월 21일 수원 중기센터

얼마 전 경기도가 중동에 식물 공장을 수출하기 위해 카타르 왕족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코이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노력으로, 몽골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등 전 세계에 자동차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 봤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겪으며 어렵게 살던 나라가 자주독립을 이루고, 국민은 부자가 되고, 의료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의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류를 만드는 데 (우리가)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해코지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맞다고, 바로 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버티컬 팜(vertical farm·수직농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도 우리 농업이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도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이 돈 벌 수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누구와 겨뤄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가전제품 등이 세계 일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은 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농민은 죽겠다고 합니다.

제가 농업 수출을 하기 위해 LA 등에 팔고 있습니다. 화성 포도의 경우 당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단순한 자농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농으로,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전 세계 인류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안 된다'는 피해 의식에 갇힌 농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게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경기도는 학교 급식에 道와 시가 지원을 합니다. 좋은 농산품, 유기농 등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일정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反 FTA 운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장서서 (반대)하는 건 제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FTA 반대 운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경기도내 대기업에서 급식을 (하는 데 우리 농산물을) 쓰고, 교도소 등에도 우리 농산물을 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FTA로 득을 보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산을 도와줘야 합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 의식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이 미국, 일본의 가전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Can Do' 정신, 이런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얼마든지 잘살 수 있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대동강의 기적도 더 위대한 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선 압록강의 기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우리 코리안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압록강, 송화강, 흑룡강, 시베리아 일대까지도 하루 이동권입니다. 충분히 잘살게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들의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가장 빠른 발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신화, 제조업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주택 부분입니다. 내수가 문제인데, 내수의 핵심은 건설·주택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222위로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집을 살 인구가 더 이상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민을 받느냐, 답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 보니 경기도에는 2020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8년 내에 260만 호의 부동산을 경기도에 짓게 돼 있습니다. 공공이 110만 호입니다. LH가 91만 호를 짓게 계획돼 있습니다. 민간은 140만 호 건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살 수요자는 약 10만 호라고 보는데, 남는 집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뚝 잘라서 공공 택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세금의 58%는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과천 경마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스톱입니다. 올해는 더 안 들어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지금은 집이 돈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집이 짐이 됐습니다. 집 사는 사람을 징벌하는 엄청난 세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은 잘 지으니 수출길을 열어야 하며, 동시에 많으면 60%를 양도세로 가져가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지금 미국 부동산 투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분양된 2만 8천호를 미국에 가서 팔려고 홍보도 해 봤지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외국의 자금이 우리 주택을 사 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도 출산이 줄어들면서 집도 더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집 사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적어도 집을 샀을 때 너무 손해 보지 않아야 합니다. 감가상각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집이 팔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부분의 심각성을 우리 인수위 등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제가 대통령을 이길 길이 없더라고요. '당신 집값 다시 올리자는 거냐' 묻기도 하는데, 대책이 시급합니다.

얼마 전 제가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러시아 전 국영회사의 다수 지분을 지닌 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역시 한국이 자기들의 희망이라 하더라고요. 얼마 뒤 일본에 가서도 사이닝(signing)을 할 것입니다. 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의 중소기업 계약 행사에도 예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한미 중소기업 간 계약인데도 미시간 주지사도 다 나왔더라고요. 미시간 주지사에게 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길은 한국과 손잡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미시간 주지사가) 경기도에 찾아와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미시간 주지사가 가만 생각해 보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안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오바마도 한국인들에 대해 말하듯 그분은 코리아의 교육, 열정, 기술을 매우 높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가면 시발(始發) 자동차 모델 전시가 돼 있습니다. 못 쓰는 드럼통을 깨서 엉성하게 자동차를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60년 만에 미국을 능가하는 자동차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선 놀라고 있습니다.

판교에 가 보시면 경기도가 지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엔 GE·파스퇴르 등의 연구소가 와 있는데, 자사의 전 세계 20여 개 연구소 중 한국의 연구소가 개발 진행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싸지는 않지만, 매우 열정적이며 주어진 시간에 목표를 이뤄 낸다고 합니다. 눈치와 눈썰미가 매우 좋고, 정해진 건 밤을 새서라도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높이 사더라고요.

미군 2만여 명이 경기도에 와 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시 위게임을 하는데, 보통 미군은 48시간 정도 만에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시간 만에 해치운다고 합니다. 한국 군 장병 자체가 일단 학력에서 완전히 다르고, 두 번째로 머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매뉴얼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팀워크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PKO 등 우리 군의 합동훈련에서도 우리 한국군은 최고로 통합니다. 눈빛에서부터 우리는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는 공감되는 힘을 갖고 있다 합니다.

우수한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 세계의 절망하는 나라, 힘든 나라를 돕는 일입니다.

얼마 전 이베로아메리카 총장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경기도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주와 우리 경기도 사이에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곳까지 너무 멀어서 항공으로 왕복 60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전 미안한데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또 왔습니다. 협의문을 써 왔길래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자꾸 한국에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고 할까. 자신이 젊은 시절 살던 아르헨티나 동네로 농업 이민을 온 코리안들이 너무 불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자신들의 전자제품 입찰에서 한국의 상품이 모두 합격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농업 이민을 왔던 못살던 코리안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합니다.

과거 코리아는 아르헨티나와 비교가 안 되던 나라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리안들이 이런 대역전극을 펼쳤는가, 그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갈 차례가 됐는데 어떻게 갈지 사실 약간 걱정도 됩니다.

과거 타고르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1929년 동아일보에 발표했습니다. 그 동방의 등불보다 더 빛나는 빛으로 전 세계를 비취 주는 게 바로 코리아가 됐습니다. 식민지로 캄캄하던 우리에게 타고르가 그 시 한 수로 용기와 격려를 줬고, 우리는 등불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이젠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단 불평불만이 많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하하거나 역사를 경멸하고 부정하고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네거티브 바이러스도 상당히 만연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우린 뭐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시작돼서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짧은 70년이 안 되는 기간에 가장 참혹한 6·25 전쟁을 치르고도 맨주먹으로 일어서서 위대한 역사를 쓰고,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류의 힘, 싸이의 인기 기반에도 우리 코리안 제품,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김연아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손을 두들겨 수출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수출하던 코리아가 이제 싸이, 김연아가 됐습니다. 배고픈데 프로야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가졌고 청렴합니다. 이기심만 있다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65년의 이 역사, 대한민국 국사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이 나라는 온 열정을 다해 지켜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들어와 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등 외국에서도 오는 국제적인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확 바꿨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채워 교육 내용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봐선 안 되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야 합니다. 부정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위급할 땐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19 행정'입니다. 5분 내로 쫓아가 도와야 합니다. 제가 119 체험을 해 봤습니다. 부르면 달려가는데, 갔더니 필요 없다며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다시 부르더라고요. 동네 강아지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119는 부르면 갑니다.

공무원들은 기업인이 부르면 달려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갑니까,

기업인이 갑입니까. 기업인이 갑입니다. 납세자가 갑입니다. 주인이 오라면 복이 달려가야 합니다. 주인이 부르면 서번트가 달려가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가시면 24시간 여권 민원실이 열려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거 쇼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쇼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누가 오나 하지만, 전국에서 열려 있는 곳이 우리 한 곳뿐이라 몰려들 오십니다.

복지(제도)가 150여 가지입니다.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다 망하고 빚쟁이에 쫓겨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는, 집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죽음이 눈앞이지만 자기 명의의 집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갑자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잠자리, 의료, 무엇이든 다 연결해서 도와줍니다. 先지원 後심사입니다. 동사무소마다 모두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0억 원을 이에 썼는데 모두 여러분이 내신 세금에서 쓴 겁니다.

주택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출산 복지 150여 가지가 있는데, 막상 찾아가면 맞는 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확보해서 없었습니다. 대신 노숙은 하지 마시도록 노숙인분들도 돕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를 만들었더니, 공무원들이 밤에만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대합실에서 노숙인이 누워 있게 하는 것보다 쉼터를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인에게 복지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지는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사내 복지는 해당 기업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을 위해서 기업이 복지를 해선 안 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사기업체에게 요구하거나, 기업이 복지를 안 한다고 비난하면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건 잘못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책임, 道의 사회적 책임, 이것을 안 하면서 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더 위대해질 나라입니다. 최선두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깨끗한 섬김의 리더십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무한돌봄의 행정으로 道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귀감이 되는 경기도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치인이니 말만 번지르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도 좋으니 민원실에 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연속 몇 년 행정상을 받고 있는데도, 전국에서 따라하질 않더라고요.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섬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울이고 기업인 여러분이 갑입니다. 성질 급한 분들도 빠르다는 생각이 들도록, 차이나 스피드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부르는 대로 달려가는 경기도정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월 일례조회

일시 2013년 2월 4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

조금 있으면 설날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백화점도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이 어려워집니다. 경기도의 살림을 보면 경기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세수의 58%가 부동산 취득세인데, 거래의 상당 부분이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표단이 일본에 가서 투자 유치를 5억 달러 넘게 했습니다. 일본 LCD 디스플레이 기업 NEG사와 5억 달러, 나머지는 자동차 부품사와 8,6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20년 동안 거품이 빠지면서 망했다고 했는데, 그 악조건 속에서 부동산이 상당한 대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부동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서도 이야기하지만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인해 반값아파트,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반값도, 공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의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 쏟아질 것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공급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사고 싶은 곳은 매우 가격이 비싸 맞지 않습니다.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이 공공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중요한 택지, 신도시를 다 중앙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수급을 해결하는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다 중앙에서 알아서 해 왔고, 그래서 중앙이 실패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현실을 모르기에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뉴타운이 잘못됐습니다. 각 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정 기능이 없습니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떠나는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지금도 호매실 분양이 안 되는데 인근인 화성·오산·평택·안성에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으로 애를 안 낳으니 수요가 늘 수가 없습니다. 인구 팽창 시대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입니다. 노인 인구만 늘지 젊은이들은 늘지 않습니다. 노인은 늘고, 아이들의 출산은 줄고,

소득이 있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결국 노인용의 실버 아파트나 병원 요양 시설은 늘려야 하지만 나머지 산부인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줄어듭니다.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울에서부터 경기도까지 교외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모이는 도심화입니다. 너무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직장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 두 시간을 출퇴근을 위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GTX를 해야 합니다. 동탄에서 삼성까지 20분 만에 도착함으로써 주거도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직주(職住) 일체의, 직주 근접의 큰 추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파트 안에 일자리가 있느냐, 또한 일자리 근처에 집이 있느냐, 직장 and 주거를 가깝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외에 자녀의 교육이나 본인의 삶을 위한 문화적인 향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도 단순히 몇 년 지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다녔는데, 이제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니까 구태여 출퇴근에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게 주택 시장의 흐름입니다. 과잉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은 올라갑니다. 매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첫째, 처음 기획 때부터 아파트 가까이에 직장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둘째, 지으려는 아파트 단지 안에 문화·교육 시설을 다

집어넣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자기가 맡고, 그 이후 관리도 자기가 맡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주변에 모든 문화가 공존합니다. 소위 도시 주거와 일자리, 교육, 문화, 레저가 한 곳에서 다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계되고 건축되고 관리됩니다. 기획, 설계, 건축, 시공, 관리를 통합해서 하나로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우리 부서 안에도 주택, 여성, 복지, 문화, 교육청이 다 하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 제각각 떨어져 있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같이 설계되고 같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가 느낀 교훈은 인간의 생활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칸막이로 인간의 생활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안락한 주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본성입니다. 일자리도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에 충실한 기획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획해 놓고는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고 난 후 수요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굉장한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몸부림을 쳐와서 많은 솔루션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주택을 가진 이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 하면, 집값이 급등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지금 신도시가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260

만 호를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채 지으면 두 채는 남게 됩니다. 필요하면 집 자체가 조금 더 많아지는 쪽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 집값이 올라가면 책임질 것이냐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자기 소득에 비례해 은행에서 빌려 주는 것을 국가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보지도 않고 전부 무조건 묶어 놓고서 가만있으면 되겠습니까. 내수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부동산의 탓이 굉장히 큼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는데 내수가 일어나겠습니까. 주택 · 건설 자체가 부도나고 무너지고, 민생이라든지 서민 내수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요즘에 TV 토론을 보면, 간단한 현장의 건설 시장이라든지 동네 골목 장사가 왜 잘 안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내수도 없고, 수출도 없는데, 전부 복지만 한다고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론은 가장 현장에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현장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제설 서류를 소방본부에서 보면 전부 형식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이상 상태가 있느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입장에서 차를 갖고 가야 하는지 갖고 가면 어디서 막히는지, 의정부 전철은 다니는지 하는 것입니다. 재난본부에서는 다닌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안 다닌

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지 아닌지, 생활인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눈은 몇 센티미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막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몇 센티미터인지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택이나 행정이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 통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 통계는 깔더라도, 재난이라든지 행정을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걱정하는데, 감사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 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클 것입니다. 일자리도 늘지 않고, 주택도 큰 개선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며 공격을 합니다. 집 두 채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낮춰 준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 두 채 가지면 나쁜 놈'은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국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통합적이고 사람 중심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설날도 다가왔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희망을 중심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좋은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MOU

일시 2013년 2월 4일 경기도청 상황실

박찬호 선수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찬호 선수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박 선수는 미국 사람보다 키가 더 크고 야구도 더 잘합니다. 박찬호 선수로 인해 한국인의 DNA가 좋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한미 우호의 상징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 동두천에 박찬호 선수가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박찬호 선수 가족들도 다 같이 동두천에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보자고 오세창 동두천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동두천시의 격과 명성,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동두천시가 스포츠와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문창 대표님은 박문성 선생님과 형제입니다. 동두천에 토지를 갖

고 있는데, 미국 교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두천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 형제는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위원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특별히 서한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에드 로이스 위원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번 동두천 야구장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기뻐하며 오프닝 때 꼭 방문하도록 하겠다더라고요.

경기도는 10구단 야구단 유치 이후 야구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세계적인 메이저리그 스타로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야구 발전에 건인차가 되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道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번 동두천 야구장 건립으로, 경기도 북부의 양주·포천·연천 일대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일대에 많은 야구 사업을 펼쳐 주시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젊은이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익히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나아가는 데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초청간담회

일시 2013년 2월 7일 서울시 프레스센터 19층

이기수 회장님, 김수한 의장님, 여러 어르신 앞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쁩니다.

저는 전쟁 중 태어나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만, 학생운동 시절 저 역시 독재자, 친일파, 친미파라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치권 입문 이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 두 정치인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모들은 표 떨어진다면, 왜 선거 운동은 안 하고 표 개는 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김구, 도산 선생, 링컨, 세종대왕은 다 돼도 이승만, 박정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역시 이

승만, 박정희라고 대답해서 지난 경선에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좀 하다 보니 결국 애국심이 중요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애국심을 이야기하면 수구꼴통, 구닥다리라 생각하더라고요. 좀 더 스마트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애국심'이란 말이 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고민했더니,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헌법을 알아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헌법 고치자고 하는데, 그 래선 안 됩니다.

또 역사를 보면 '이승만 나쁜 사람'이라 나옵니다.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의 역사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공부한 적이 없다 합니다. 너무 논쟁이 많아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세종대왕, 왕조실록, 이런 얘기만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백년 전쟁'이란 영상물이 돌아다닙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친미·친일파이고, 대한민국은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잘못된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교수님과 국사책을 쓰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소중한 나라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과 이론이 바로 서도록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작업해서 경기도 발간실에서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사에는 고구려, 신라, 일제 강점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해졌는지, 어떻게 기적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됐는지, 누가 주역이었는지 여기에 적었습니다. 6·25는 어떻게 극복했으며 민주화는 어떻게 이뤘고 어떻게 지켰는지 적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위대한 근대국가로 만든 훌륭한 영웅이 바로 박정희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이 책을 여기 어르신께 드려야 하지 않나 했더니 공무원들이 겁내더라고요. 이 책 돌리다 찍히면 김문수 정치 생명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이승만이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는 최근 많이 늘었지만, 이승만은 아직도 금기로 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러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 민족의 올바른 기상과 정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사와 헌법, 영토가 신성하고, 독도와 NLL 모두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것. 또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세계 어디서 박해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국가가 쫓아가 구해 내고, 올바른 국가의 정신을 세우는 것이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역사의 대반전을 통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올바르게 쓰는 주체가 바로 여기 여러 선배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북부기우회

일시 2013년 2월 7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첫째,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서까지 GTX 역사를 연결하는 것. 호남고속철도의 종점이 강남 수서인데, 거기서부터 의정부까지 종점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의정부에서 타면 수서에서 화성 동탄, 평택, 천안, 이렇게 해서 호남선으로 가고, 갈아타실 분들은 경부선으로 타는 것. 이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이 지역적으로 공약하신 부분입니다.

GTX와 KTX 노선이 일단 화성 동탄에서부터 의정부까지는 공유가 됩니다. KTX는 광역이기에 100km에 한 번 정거장이 서고, GTX는 10km에 하나씩 정거장이 있고, 일반 전철은 1.5km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다르고,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구리-포천, 구리-동두천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시작했습니다. 호원IC라든지 중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SOC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경기 북부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우선하여 국비가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SOC 철도, 고속철도, GTX, 일반 철도를 경기 북부에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앞으로 8년 이내 경기도에는 260만 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팔리는 것은 84만 호로, 3분의 1이 팔리고 3분의 2는 남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과잉 공급이 왔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봤는데, 결론은 우리나라에 부동산의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국회의원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몇 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내수 이야기를 하는데, 내수는 결국 부동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는 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내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지는 않아도, 적어도 내려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어제 시도지사와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을 했는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공감을 얻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도록, 응급 처방을 강력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세수의 58%가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취득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양도세의 다주택자 중과세 부분을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지금 은행의 DTI를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며칠 전 일본에 가서 NEG의 5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는데, 우리나라 단독 투자로 가장 큰 것입니다. 요즘 제가 대기업 회장을 만나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낙후 지역인데 대기업이 들어와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또 현재 있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만 모여서는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적어도 경기 북부의 낙후된 지역에는 외국 자본이나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집중 반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올해는 정전 60주년으로, 한미동맹이 맺어진 지 6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은 의정부, 동두천 최전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 중앙정부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많은 다양한 행사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오늘 박 당선인과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만납니다. 확고한 안보 의지를 다지고 그 가운데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구리시장님도 월드디자인센터(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 외에, 세계적인 첨단 일자리를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앞으로 가능성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은 섬유, 염색, 가구 등을 어떻게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일시 2013년 2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

설 대목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 하던 우리 케이팝(K-POP) 아레나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 옆의 한류월드 부지에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한류월드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이제 겨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류월드 부지 내에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이 유치됨으로써, 국가적 사업으로 한류 전체가 새로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류는 방송사,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많은 케이팝 스타들의 노

력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가가 한류 진흥을 위해 아레나에 투자하고 필요한 박물관, 명예의 전당 등 각종 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정해 기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건설이 결정됨으로써 경기도는 부지 2만 4천 평을 무상 임대하고, 한류월드 전체 30만 평을 함께 활용하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케이팝 아레나의 건설이 그냥 케이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제작과 각종 전시, 교육,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관광 사업, 예술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길 바랍니다.

이번 아레나뿐 아니라, 이미 경기도는 관광공사와 함께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한류 관광 마이스(MICE)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케이팝 아레나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한류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킨텍스와, 나아가 이곳에 입주하는 EBS 방송콘텐츠 진흥센터, 그리고 약 4,000실 규모의 호텔 부분과 DMZ를 비롯한 일대의 관광 시설, 서울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각종 인프라와 근접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문화·예술, 일자의 여러 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케이팝 아레나가 신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여러 부지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대명호텔 건립, 방송진흥회의 콘텐츠센터, 교육 방송의 사옥으로 결정되었으나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특히 그동안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법적 문제, 그동안의 분쟁적인 소재가 정리되었습니다.

향후 신속히 아레나가 완공되고, 우리 킨텍스라는 전시 사업과 문화 사업, 호텔과 엔터테인먼트가 융·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지도 자료 기증 MOU

일시 2013년 2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

오늘 예쁘고 소중한 많은 지도를 경기도에 기증해 주신 김혜정 관장님(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께 전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김 관장님은 지도와 결혼을 하셨는지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평생 지도를 수집해 오셨습니다. 지도에 관해 평생 한길로 전 인생을 쏟아 부은 분은 김 관장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한 지도를 갖고 일관되게 한 우물을 파신 분이 바로 김혜정 관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인류에 영토의 의의를 상기시켜 주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시는 역할을 해 오고 계십니다.

김 관장님은 멀리 일본, 우리나라 경기도 및 제주도 및 곳곳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주로 사십니다.

경기도의 도립박물관이라면 김 관장님이 수집한 지도를 가까이에서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립박물관에 지도를 기증하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신의와 성실의 정신과 공공정신으로 지도를 잘 보전하고, 교육 자료와 연구 자료로 후대에 널리 계승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모든 학교의 학생들, 나아가 공공기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애국심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단순 지도가 아닌 학술 자료, 교육 자료이면서 문화적인 가치를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센카쿠 영토 분쟁 및 각종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분쟁들에서 지도는 글자 이상으로 의미가 큼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으로 국민, 국토, 주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국토 관련 문제에서 지도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귀중한 지도를 보전하는 일은 국가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김혜정 관장님이 오랫동안 해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최대한 지도가 빛나도록 하고 교육, 학술, 문화적 기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지도가 국립박물관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김혜정 관장님이 도립박물관에 기꺼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경기도 소유라기보다는 국가, 나아가 전 인류의 소중한 자료와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김혜정 관장님이 가지신 지도 모두 경기도에 기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혜정 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일시 2013년 2월 18일 부천상공회의소 2층

주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첫째, 주택을 사서 돈을 버는 이야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사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을 영어로 '하우스푸어(house poor)'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 이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미분양 주택이 2만 8천여 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2020년 계획으로는 경기도에 260만 호의 집을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집은 약 84만 호로 보고 있습니다. 170만 호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비상이 걸려서 무조건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짓는 주택만 하더라도 110만~140만 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집을 짓는 것만 하더라도 약 30만 호 이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왔는데, 집을 안 지어서 그린벨트를 묶는다면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이분의 생각은 집값을 자꾸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유지를 해야 하고, 떨어지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살살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서승환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약간은 변화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을 범죄시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좋은 사업자라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다주택을 가진 사람을 범죄시 취급하는 경향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을 안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몇천 조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증권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이 돈을 공장이나 주택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호텔도 부천으로 가져와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호텔에서 먹고 자고 쓰게 해야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첫째로, 시중의 노는 돈이 은행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는 증권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증권에 투자하면 실패합니다. 고급 정보가 없는 서민이 증권에 투자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투자는 서민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돈을 주택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왕창 때리니까 (주택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은 필요하면 지으면 됩니다. 한 땅에서 1층짜리를 10층짜리로 바꾸면 되듯 (주택 공급은) 탄력적입니다. 토지는 정해져 있고 늘어나지 않지만, 주택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는 풀어 주면 위험할 수 있는데,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 세금처럼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누진에서부터 분리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증권 투자하는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증권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은 세금이 없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DTI는 은행 자율로 해야 합니다. 주택과 도시계획은 국토부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부천의 대장동이 농업 지역, 그린벨트입니다. 비행기에 관련한 고도 제한은 국가에서 해야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지 지역은 풀어 줘도 됩니다. 농지가 아무리 많아도 지을 사람이 없어서 대개 놀고 있습니다. 농지를 너무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농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농사를 짓는) '버티컬 팜'이라는 수직농장을 중동의 카타르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 공장에서 10층 이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와 비료 및 조명 등으로봇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습니다. 농지가

없어서 밥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국가에서 도장 한 번 받으려면 농림부에 가야 하고, 또 자기들끼리 국무회의 하고 통과시키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을 하려고 해서 대통령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한 지방자치와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주택은 과감한 권한 이양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낳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주택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금지 정책을 조장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중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의 벤처회사에서 크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R&D 등 국가 지원 정책을 하고 세금을 많이 깎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폭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500페이지 넘게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업무가 도무지 안 나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중앙에서 과감히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역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압니다. 과감하게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손톱 밑 가시를 빼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 일일이 손톱 밑 가시를 빼고 다닙니까? 이런 것은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맡기고, 크고 중요한 것만 대통령이 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나누어 주어야만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니다. 북한의 핵 실험은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외교, 큰 경제 정책, 수출 정책의 가닥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톱 밑의 가시 정도는 시장·군수가 해야 더 잘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이 많이 조장되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천에 대기업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대기업이 우리 부천에 와야 부천의 중소기업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굶은 기업이 있어야 다른 작은 기업들도 잘됩니다. 각국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많은데 중소기업에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그 나라 시장에 관해서 밝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잘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에 가더라도 미국 초일류 기업에 납품해야만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매로 해서는 언제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한꺼번에 많은 개수를 집어넣어야 마진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상생,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정거래를 해야 하고, 부당거래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혼자서는 대외 수출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크게 보면 전망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조금 경제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안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만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먹는데, 성장이 안 되니 옆의 것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이니, 세배할 아이는 네 명뿐인데 세배를 받을 어른은 열 명 이상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 한 명이 어른 두 명을 업는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 희망찬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이 희망을 안 주고 뭐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아 주면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힘든데 애까지 낳느냐'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변화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압록강, 두만강, 시베리아, 만주로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첫째, 보건, 제약, 바이오 등 의료 생명에 관해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아픈 사람들이 한국 오면 건강해지고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한국 오니까 예뻐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감한 의료 개방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태국보다 훨씬 의료가 앞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암 치료, 치과, 성형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시장이 닫혀 있습니다. 의료는 인술이기에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의료에서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도 정원을 묶어 놔는데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중국 가서 암 치료도 하고 척추, 치아, 건강 검진도 하는 등 전 세계에 의료 부분을 개방한다면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가 최고가 될 것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닥터가 18,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둘째,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도 말씀하지만 교육열이 최고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도록 하고, 한국 학교를 전 세계에 수출해야 합니다. 유대인 이상으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합니다.

셋째, 관광 산업입니다. 그러려면 호텔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호텔이 있어야 관광이 있습니다. 고급 호텔을 지어 외국인들이 관광 오면 서비스해 주고 돈을 왕창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우리나라 호텔이 약합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는 우리와 함께 시작한 유니버설스튜디오를 2년 전에 계약했습니다. 우리는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계획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토지 계약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 호텔에서) 보통요금을 주고 시험 삼아 잤는데, 보통은 하룻밤에 4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도 따로 있고 정원도 따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저택이더라고요. 호텔 하나를 가지고 돈을 엄청 벌니다.

이런 최고급 호텔을 지어도 우리나라는 잘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넷째,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실 부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으로 젊은이들이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서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천하는 정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의 3분의 2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이 넘는 군인이 있고, 대대급 군부대만 615개이고, 군 비행장만 31개입니다. 미군기지는 8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군 관계자를 만나서 전시 대책을 해 보는데, 우리 전력은 미군이 없으면 북한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핵 보유국이 됐고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국가를 지킬 수 없는 한심한 처지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도 많은, 장래가 있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부천은 남북 관계, 대외 관계에서 장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도시로서 밀집된 도시로 발전 전략을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시흥처럼 땅 넓이로 따져서는 희망이 없고, 밀도와 부가가치로 따져서 R&D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에서 훌륭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 외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인 씨게이트 코리아 R&D 디자인센터 준공식

일시 2013년 2월 20일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씨게이트 코리아 디자인센터가 이렇게 아름답게 준공된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씨게이트 미국 본사 회장 외 많은 분들이 멀리 캘리포니아로부터 와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노열 씨게이트 코리아 대표님께서 훌륭한 광고 신도시의 건물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김학규 시장님께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신도시의 부동산은 여전히 잘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출이 부진하여 매우 어렵지만, 삼성전자는 어렵지 않게 잘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나가는 광고와 삼성전자가 협력하여, 씨게이트 코리아와 함께 계속 잘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씨게이트 코리아 혼자만 잘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과 함께 출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부터 홀트복지회와 손잡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정신이 전 세계에 크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씨게이트 임직원 외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일시 2013년 2월 20일 용인시청 강당

저도 우리 매형이 예비군 중대장을 시골에서 아주 오래하셨습니다. 누님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안보가 특별한 곳에 중대장 또 지역대장을 맡으셔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이 지금 우리 군 맞습니까? 고구려 군이 더 세지 않았습니까? 신라는요? 지금의 우리 군이 반만년 최강입니다.

공무원도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 백결 선생입니까? 공무원은 청렴이 생명인데, 얼마나 훌륭한 공무원이냐는 얼마나 깨끗한 공무원인가 아닌가에 따릅니다. 예를 들 때 백결 선생, 황희 정승이 깨끗했다고 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지금의 우리 공무원이 가장 깨끗한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깨끗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우리 여성들 아닌가 합니다. 옛날엔 양귀비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서양은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지금은 중국 여성들이 모여서, 갑자기 예뻐지면 너 한국 갔다 왔냐고 묻습니다. 한국에 안 가고는 이렇게 갑자기 예뻐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롯데에 있는데, 물어보면 가장 잘 팔리는 게 화장품이라 합니다. 우리 소녀시대부터 너무 예쁘고 키도 큼니다. 연속극이 잘되는 이유가 한국 여성들을 보느라 이렇게 잘되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은 얼굴에 뭘 발랐고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보느라 한류 드라마가 잘된답니다.

지금 제일 잘나가는 기업은 삼성입니다. 이건희·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 구본무, 이런 사람들이 역대 가장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무역협회에서 했던 '장보고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청해진,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절을 돌고 왔는데 그만큼 장보고가 통일신라의 무역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무역을 장보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최고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싸이 아닙니까? '강남 스타일'. 아리랑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도 한국이 반도체·LCD 등 반도체·전자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발명가도 최고의 혁신과 발명가가 우리 한국의 IT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세계 최고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요타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독일 차를 알아줍니다. BMW, 아우디, 벤츠, 이렇게 알아줍니다.

도요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자동차가 제일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대기아차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왜냐. 화성에 있는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세계 최고 (자동차 연구소)인데, 연구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 종합연구소는 수원의 삼성연구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2만 명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GE 연구소도 판교에 있는데 우리가 6개 층을 거의 무료로 내줘 유치를 했습니다.

파스퇴르 연구소도 바이오 부분에서 공공연구소가 최고입니다. 왜 한국에 왔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하길, 한국 젊은이들이 제일 머리가 좋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률 80%라고 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근무 시간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악착같이 끝내 주는 게 우리 젊은이라 하더라고요. 팀워크도 좋습니다.

뜨거운 코리안입니다. 봉급 자체가 적은 건 아니지만 한번 물었다 하면 끝까지 해내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인들은 요즘 조금 목표 의식이 약해졌다 합니다. 사람들은 착한데 해내는 게 별로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 맞죠? 그런데 일부의 젊은이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교도소 두 번 가고 학교에서 두 번 제적되고 공장 생활을 7년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24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언이,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냐'였습니다. 유언이 졸업 좀 하라는 거였습니다. 1975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20년 뒤 제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무덤에 가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못해 드렸나 생각합니다.

소위 운동권이란 데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사 교육이 잘못돼 있습니다. 교육 최고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고, '친일 친미, 이승만이 그런 거 아니냐, 김구 선생처럼 해야 통일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쫓겨나 하와이 갔고 박정희는 유신독재 하지 않았냐고 하고, 군사 독재 세력 아니냐, 김영삼은 머리가 나쁘고 김대중은 거짓말쟁이이고 노무현은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명박은 영 재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건국부터 지금까지 싹 잡아 욱하니, 남은 대한민국은 더러운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꼴 보기도 싫다고 말합니다. 이민을 안 가느냐. 갈 데도 없다고 또 그러합니다. 미국 쇠고기는 못 먹겠다 하면서 자기 자식은 미국 보내서 쇠고기 먹게 합니다. 광우병이라는 게 나온 기록도 없고 사실도 아닌 데도 데모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무기와 특수전 부대로 무장돼 있습니다. 선군 정치로 모든 독재를 합니다.

미군이 빠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주 임진각에서 풍선만 날린다 그러면 북에서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애기봉에서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임진각 상인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50명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만회하게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파주 임진각에 포를 쏜다고 하니 파주 시내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놈들이 포가 정확하지 않아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온갖 협박을 하는데, 캠프 그리브스에 지금도 미군이 있으면 북한군이 과연 미군 머리 위로 포 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평택으로 모든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 이북 지역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하다 제가 청와대에 부탁했습니다. '동두천, 포천, 강화도, 김포 애기봉, 파주 임진각, 연천, 철원, 인제, 고성 일대에 전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돈 벌고 국방 안보도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냐고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기존 카지노에서 다 들고일어날 겁니다. 오늘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건의하길, 백령도·옹진·강화·연천은 수도권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에서 들고일어납니다. 만약 연평도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고, 미군이 주둔했다면 과연 북이 포를 쏘겠습니까?

우린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그냥 몇 방 쏘고 치워 버리지 않나요? 다른 나라라면 아주 뿌리를 뽑았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경기도 전체가 최전방입니다. 전국 육해공, 미군 등의 절반 이상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최일선에서 여러 대장님들이 일하시는 것 자체가 다른 지방보다 훨씬 힘이 드실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해군기지 하나 만들고자 수만 톤 여객선 들어오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도 싫다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평택에 해군 2 함대, 그 큰 부대가 들어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 대장님들은 달라야 됩니다. 제주도는 대장님들이 관광 안내도 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다릅니다.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입니까. 전후 논의를 하면서, 공산 국가로 가자고 하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탁통치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결정돼 지금 우리의 뿌리입니다. 남쪽에서 많은 빨치산이 1953년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북 세력이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북한에서 김일성 반대한다, 김정일 반대한다 했다면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저같이 젊었을 때 대통령을 반대하고 국가 반체제 운동을 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한없이 너그러운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못 배운 게 뭘니까. 김구 선생의 경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엔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측면에서는 반대하신 분입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반쪽이라도 확실하게 주장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승만, 한민당, 대부분의 국민이 이걸 찬성했습니다.

첫 국회의원 선거 때 이승만은 동대문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김구 선생은 통일정부를 만들자며 참가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뽑는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헌법을 만들어 지금도 훌륭한 헌법으로 돼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거주와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미국보다도 잘된 헌법입니다.

조선 식민지 어느 나라에도 이런 헌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대통령·국회의원 등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엄청나게 훌륭한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이 1948년 7월 17일 만들어진 겁니다. 잘못하면 세종대왕이 훌륭하다 말하는데, 그보다 훨씬 훌륭한 이들이 바로 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학교 가면 왼쪽엔 세종대왕, 오른쪽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은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건국의 아버지 대통령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대해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옵니다. 얼마 전 이베로아메리카 사무총장이 왔는데 이 사

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지사 사무실에 계속 와서 자기 나라를 방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데 36시간이라서 힘들다고 했더니, 작년에 또 왔습니다.

그 사무총장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 코리아타운에 살았는데 당시 배고픈 코리안들이 농업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장해서 입찰을 했는데, 한국의 컴퓨터 회사들이 당당히 입찰을 받더라고요. 가전제품은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입찰을 휩쓸었다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현대기아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합니다.

배고파서 도와 달라던 코리안이,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민족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됐느냐는 게 질문의 핵심이더라고요. 59개국이 한국 시찰을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을 딛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러 왔답니다.

방금도 미국 캘리포니아 전자회사 임원진이 와서 만나고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지하자원이 팬찮은 게 새로 나와서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온다, 우리는 오직 머리를 짜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아르헨티나 사무총장은 자신들을 식민지 지배했던 유럽에게 배우기는 싫고, 미국도 싫다고 합니다. 독일은 유대인을 죽이고 세계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라서 배우기 싫고,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독일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스스로 죄를 지어 분단이 됐지만 우리는 아무 죄 없이, 그냥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1945년 직전에 일본군은 7백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군대였습니다. 항공기, 항공모함 등에서 미국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일본을 미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독립할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승만의 생각대로 미국이 이겨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대동강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는 주민들이 밥을 먹게 해야 합니다.

북한 총살 장면을 직접 봤는데 가슴, 머리 등에 9발을 쏜 공개 총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말(비판)을 안 하는 중북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북한도 UN에 가입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회원국입니다. 중북파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김정은이 기분 나빠 화해 분위기가 깨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꾀변입니다.

우리는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 줘야 합니다. 두만강 상류에 가 보면 아주 폭이 좁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도랑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한 마을입니다. 코리안들이 만주와 연해주에 많이 살고 있는데 말도 다 통합니다.

한국의 의료가 매우 발달해서, 성형수술은 물론 암 치료도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의사들이 1만 8천 명인데, 우리 경기도가 화상진료를 통해 우리 아주대병원 등과 연결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 초기에 미국 방문을 하면 교포 어르신들이 혼도 내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여러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엔 외국, 미국 어디를 나가도, '고국이 그렇게 잘사는데 우릴 도와줘야지' 하십니다.

우리 의료보험 같은 경우, 위내시경이 20만 원 내외인데 미국은 100만 원을 웃돕니다. 제 미국에 있는 변호사 친구도 의료보험이 없어서, 진단받을 땐 한국에 와서 받습니다. 모든 의료, 치료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의료나 IT 기술 등에서 모두 최고입니다.

우리 PKO(Peace Keeping Operation · 평화유지활동) 활동도 전 세계에서 최고 인기입니다.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마음을 알아준다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도와주는지도 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코리안들은 가장 지적 수준이 높고,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한국인들밖에 없다 합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밥을 굶어 봤고, 죄 없이 분단됐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잘살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신감도 우리에게겐 있습니다.

예비군이라고 해서 전쟁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2013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일시 2013년 2월 21일 양평대명리조트

반갑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청장, 전국상인연합회장님 외 많은 분들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많이 모이셨는데, 자리가 조금 좁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멀리서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니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 드시기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니 역시 국비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국가가 역시 관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시장·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많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국가가 가장 많고 그다음 시군입니다. 도가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모임에서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요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작년 연말에 상품권 1,400억을 만들었다더라고요. 수원이 조금 괜찮았고 용인, 안양도 괜찮았다더라고요. 다른 곳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조금씩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표창장을 준비했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상품권 담당자를 알아봐서 상을 주면 기분도 좋아질 뿐더러 더 분발하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때는 현대, 기아, LG 등 대기업이 너도나도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모여서 아케이트 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니 국비가 99억, 도비가 15억밖에 없고, 시군비는 38억, 그리고 자부담이 4억이더라고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삼성이 상품권으로 나눠 줬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성남시에서도 상품권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남의 상품권은 1년에 300억 정도라더라고요. 수원은 50억 정도라더라고요. 여러분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런 연찬회를 할 때, 내년에는 상품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곳에 금메달이라든지 돼지머리라도 해서 간단하게 상을 주세요. 돈은 별로 안 들면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제가 1,000억을 줄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여러 우수 시책 등을 골라서 상을 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예를 들면 수원의 못골시장이나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뽑아 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적으로 상을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은 쇼핑 가방을 편리하면서도 가장 멋있고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적게 쓰면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올려 매출을 올리고, 상인들의 복지와 생활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모임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또한 어느 방송이 가장 보도를 잘해 주는지 체크를 해서 상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미디언 중에서도 '개콘' 등 어느 곳에서 전통시장을 가장 잘 홍보하는 사람을 찾아서 상을 줘서, 언론이나 공무원들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이왕 모이셨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 중에서도 어느 주부클럽이 잘하는지 알아보고 상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도와주시는 개인, 회사, 공무원, 언론, 배우, 코미디언 등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홍보 행사를 많이 하셔서 조금씩 힘을 모으면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뭉쳐야 삽니다. 모이면 힘이 됩니다. 약한 사람은 뭉쳐야 삽니다. 센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삽니다. 우리는 뭉쳐서 힘을 합쳐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우회

일시 2013년 2월 22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그동안 GTX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정식 채택되어서 통과됐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했습니다. GTX는 우리나라의 녹색교통이고, 세계 최첨단·최고속 철도이며, 또한 경기도의 미래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아침 출근에 30분 이상을 소요합니다. 그러나 GTX는 30분 이내 서울 모든 곳에 도달하는 획기적 교통수단입니다.

오는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계뿐 아니라 주변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의 여성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며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한 케이팝(K-POP) 아레나를 고양 한류월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호텔과 EBS 통합사업, 방송통신 시설이 복합된 문화관광단지입니다. 약 30만 평의 부지입니다. 이번에 케이팝 아레나가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류월드가 조성된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한류 MICE 복합단지 조성을 그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킨텍스, 케이팝 아레나, 객실 4천실 이상의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 문화콘텐츠가 그곳에서 구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가 전 세계 펼쳐 나가는 진원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과천과 우리 경기도 전체에게 정부가 약속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발표한 것이, 과천청사가 빠져나가는 곳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해제해서 기업이나 학교가 자유롭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는 대기업 및 학교를 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가져갈 것은 가져가면서 안 해 주니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서게 되니 과천의 음식점, 택시 등 각종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오는 월요일에 취임하는데 아무쪼록 취임과 더불어 새 정부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핵 실험 억지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의 억지력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우리 내부의 단합, 국제적 공조, 특히 중국·일본·러시아와의 공조가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하며 민생을 운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를 넘어서는 화합, 통합이 근본입니다. 여러 면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기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일시 2013년 2월 22일 수원웨딩홀

경기도는 1,250만 인구의 도시입니다. 서울과 대전을 합친 것보다 10만 명 이상 더 많은 도시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서울시는 줄거나 정체된 상태입니다. 땅은 서울보다 17배나 더 넓고, 싱가포르보다 15배, 홍콩보다 9배가 더 넓습니다. 대한민국 4명 중 1명은 경기도민입니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GTX가 잘나갈 것입니다. 여러 교통 전문가와 철도, 토목,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 만에 도착하는 지하고속철도입니다. 삼성역에서 의정부역까지 20분 안에 도착하고, 동탄에서 의정부역까지 30~40분 만에 도착합니다. 또한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까지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특히 KTX는 수서역이 종점인데, KTX와 GTX가 같은 노선이 되

면서 동탄에서 수서, 수서에서 삼성, 삼성에서 의정부까지 연결됩니다. 열차나 정거장은 전부 다르지만 같은 노선을 공유하면서 KTX는 100km마다, GTX는 10km마다, 일반 전철은 1.2km에서 1.5km마다 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할애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에서 삼성까지 지금처럼 오래 걸리면 동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신도시 공동화가 생깁니다.

옛날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하루에 한 시간씩 출퇴근에 할애해도 무난히 직장을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시간 이상이 걸리면 그 지역에서 안 살고 이사를 갑니다. 이제는 세태가 바뀌었습니다. GTX는 경기도의 미래입니다.

케이팝(K-POP) 아레나를 경기도 고양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싸이와 소녀시대의 공연들을 호수공원 옆에서 펼치게 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중공군의 묘지가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묘지 등을 잘 단장해야 합니다.

중공군은 과거 적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잡고 이 행사를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반발도 많지만, 과거의 적도 이제는 화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과의 관계 또한 호전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광둥성, 산둥성, 천진시 등 6개의 지역이 경기도와 우호·자매 도시입니다. 경기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하기 힘든 투자와 민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 외교, 일자리, 문화, 교통, 물류의 중심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허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정신, 둘째,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향·애민정신,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공무원의 영혼입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지만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의 국사책도 새로 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들이 베푼 선행을 이어받는 공무원이 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 동우회 회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젊은이들의 멘토이자 스승으로 활동하시고 공적으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잘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최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전국 최초의 여성 행정국장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보다도 훨씬 이전에 여성 리더로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항상 앞서 나가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포럼 특강

일시 2013년 2월 28일 과학기술회관

제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능공 출신입니다. 청계천에서 노조 하는 사람들과 재단과 시대를 했었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일이겠더라고요. 하루에 열여섯 시간씩 일하는데 만 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기능공 자격시험을 보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자격증 시험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기능공, 위험물취급, 환경관리기사 등 자격증을 한두 개씩 따다 보니 공장 생활 7년 하면서 5만 원으로 월급이 뛰더라고요. 청계천에서 보조 일을 하다가 기능공 자격증을 따니 일 년 만에 봉급이 5배로 뛰더라고요.

저는 서울대에서만 두 번 제적당하고, 공장에 7년 다니며 자격증을 8개 땀습니다. 교도소는 두 번, 총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 좌파 운동권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사파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1인 세습 때문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소련과 동북권이 붕괴하면서 소련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화장실 문도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말로는 지상 낙원이지만 현실은 가난과 인권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은 그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한때 유시민 씨 여동생이 교도소에서 저와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의 누님, 여동생, 전부 다 왔습니다. 이분들도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사실에 쇼크를 먹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합니다.

이분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이승만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반대합니다. 친일파에 이뤄진 건국도 잘못됐다고 하고, 주한미국 주둔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적 전통을 잇고 최소한 친일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노선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부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 오픈 리노베이션, 국제적인 코오퍼레이트(cooperate), 협력 시스템으로 오늘날의 한국의 기적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을 성공하면서金正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사적으로 대청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기습적인 부대 이런 면에서 비대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억지력이 약한 부분은 한미동맹으로 보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등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계가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반드시 미사일, 생화학무기 이런 면에서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가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가진 배타적 존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생각이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표현돼 있습니다. 북한의 주권은 사회주의,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 이상으로 훨씬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칠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한방에 우리 국민의 모든 생활과 국가의 품격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있었지만, 어떤 문건을 이야기하든,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헌의회가 만들고 국민이 채택해서 만든 매우 위대한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DMZ가 지나가고 NLL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NLL 같은 경우, 우리 남쪽과 UN군이 당시 휴전선을 양보해서 설정한 선입니다.

원래 압록강 유역의 해상권을 당시 UN군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 서해안 다 북한이 영역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38선 이남에서도 북한이 백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터 졌습니다. 지금 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도 NLL 의미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독도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역사, 존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도자들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위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1945년 이후의 대한민국 국사를 새로 써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로 기적을 이룬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제철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기적의 중심을 이룬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해서, 별도의 부처로 과학기술의 헤드쿼터를 만들자는 발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선 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출범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학기술의 총괄 사령탑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3년 전 과학기술진흥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은 지방으로 분산되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전문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려면 헤드가 있어야 구상, 점검, 개선을 할 수 있지, 머리가 없는 일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머리가 분열되면 정신분열이 됩니다. 분명한 헤드쿼터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 출발점이기에,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국가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을 별도로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공계 중에서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공계 중에서 대통령 됐다는 자체가 이공계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경, 법관 출신만 대통령 하라는 법 있습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교수가 나왔을 때도 의사 출신으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으로도 최초이지만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김종훈 장관을 내정한 것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서울 정릉의 산꼭대기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이 있냐고 너무 따지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케냐 인이냐 인도네시아 인이냐 따지면 오늘날 미국이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글로벌 리더로서 모든 사고와 정책을 글로벌 리더에 맞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의 별도 헤드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관과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이 있을지의 몫은 김종훈 장관(후보자)에게도 있지만, 과학기술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원래의 취지가 살아납니다.

경기도 GTX는 세계 최첨단, 최고속의 교통 혁신 시스템입니다. 토목, 철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 보면 이 전 대통령 왈, '지방에서 반발하지 않겠는가, 기존의 지하철·철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나 늘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기 취임 시 해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관 내정, 정부조직법 등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해 달라고 나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남양주의 박기춘 의원, 문희상 의원에게 일단 통과는 시키고 나중에 비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진 이유가 NLL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는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정통성을 알고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다음에 집권하려면 중북과 선을 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동산도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면 '부자 감세'라 합니다. 제가 요즘 일본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저출산 고령화가 심합니다.

국회에 법안을 내도 민주당이 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돈 가진 사람이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집 사면 망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이 없어서 전전궁궁했는데, 이제는 경기도만 해도 향후 8년간 LH에서 짓는 주택 중 20~30만 호가 도내에서 과잉 공급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기술포럼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종훈 씨가 적합하지 않으면 낙마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만 부처를 만드는 것만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과학기술을 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도 너무 쟁탈해서 말씀들을 너무 안 하십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가끔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운동권 출신은 곳곳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밥그릇을 많이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청백리상' 하면 황희 정승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의 공무원이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우리 역사 최고의 과학기술자는 장영실이 아니라 지금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과거 고구려가 용맹하다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의 군인들이 최강의 군인입니다. 음악도 싸이나 클래식 등 지금이 가장 훌륭합니다. 기업인들도 장보고가 훌륭한 무역인이고 하지만 지금의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의 이병철, 정주영 등이 막강한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이것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고, 국사를 안 배워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모든 산업, 과학, 음악, 미술, 군사,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을 다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자유당 어느 때보다 지금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역사적으로 비교·분석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세계 선인장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선인장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경재배로 길러 냅니다. 물 위에서 영양분, 온도, 습도, 빛 등을 조절하여 재배합니다. 이 선인장이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싸고, 가장 빛깔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선인장 재배는 사막이나 모래 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발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카타르에 식물 공장을 수출합니다. 그쪽 왕실은 기름은 많은데 음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카타르의 세계 사막기구에 수출하는데 일본의 버티컬 팜에 비해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절반 이하입니다. 둘째, 품질에서 빛을 이용한 기술이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셋째, 로봇도 더 정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보다 더 발전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도 우리는 더 적극적입니다. 카타르에 사막기구연합이 있는데 이 나라의 기술이사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기도 했고 우리 기술이 실제로 받쳐 주니 모든 네트워크, 가격, 기술이 우리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쟁국 사이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머리도 제일 좋고, 부지런하고, 팀워크도 가장 좋고, 열정도 뜨겁고, 손재주도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조직화되고 과학기술이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전부 의과대학에 갑니다. 의과대학에 비해 과학기술 사람들은 자영(自營)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은 혼자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은 지방으로 너무 많이 가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전에 오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전에 그린벨트가 90%인데 보금자리, 임대주택 짓지 말고 연구단지, 과학기술인들이 살 수 있는 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방으로 보내기보다 과학기술인들이 선호하는 수요와 선호도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법조인이나 의사는 전부 지방에 안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 의사 출신은 서울에 많이 삽니다. 하지만 대전시 카이스트 교수들은 모두 지방에 많이 가서 근무하니, 부인들이 먼저 못살겠다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3년 후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활상의 편의를 봐서 과학기술인들을 국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과 우리는 폐쇄적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대만·홍콩·인도는 글로벌 오픈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편협한 내셔널리즘보다 글로벌리즘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우리 의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의료, 보건,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독일은 죄도 많이 짓고도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도 일으키고 유대인도 학살하는 등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할 짓도 안 하고 분단, 식민지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인류의 생활과 행복을 개선하는 진정한 과학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과학기술인들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압록강·두만강의 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기적을 전파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찬란한 등불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빕니다.

3월 월례조회

일시 2013년 3월 4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덕택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청렴상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기반을 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세계적인 청렴 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이고, 세계적인 청렴 기관은 경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청렴도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청렴한 다른 나라를 보면 특히 동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청렴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가 청렴하면서도 매우 경쟁력이 높은 것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의 '클린 시티(clean city)'에서 '펀 시티(fun city)'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카지노를 도입해서 깨끗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클린'과 '편'이 어찌면 모순인 것 같고 양립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올바른 선택과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카지노에 가니까 공무원은 출입을 불허합니다.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처벌받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깨끗하지 않은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청와대 고위직은 청렴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청렴 영생 부패즉사'입니다. 청렴하다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공직 전체와 가족들까지 영생불망(永生不忘), 영원한 세월 동안 잊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은 이익이 남아야 역사에 남지만, 여러분들은 이익이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조선 말기에 동학농민운동 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패 때문입니다. 위는 위대로 썩고 밑은 밑대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청렴에 달려 있습니다.

3·1운동은 만세운동인데, 3·1운동 가지고 절대 일본이 독립을 안 시켜줍니다. (기미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을 보면 매우 위대합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그리고 일본의 침략자를 미워하지도 않겠다는 글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폭력 없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폭력 없이) 독립하겠다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해방 직전까지 700만 명의 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

게 최강의 군대가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강해서 중국도 넘어졌습니다. 베트남부터 필리핀까지, 태국까지 전부 다 넘어졌습니다. 태국은 아직까지 일본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군이 있고 항공모함도 대단히 크고 해서, 항공모함이 하와이까지 가서 진주만을 쳤습니다. 너무 일본이 강했기에, 미국으로서도 당시 소련과 손을 잡지 않으면 일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분단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당시 조선 왕 자체가 희미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관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무너졌습니까. 한마디로 국가를 지킬 의지가 없었습니다. 한쪽으로 국방 안보를 소홀하고, 한쪽은 공무원이 깨끗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일 힘도 없었고, 쓸데없는 당파 싸움과 부패와 분열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3·1운동 가지고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 가지고는 절대 독립이 안됐습니다. 막강한 군을 동원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외교론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에 가서 선제공격을 하여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미국이 핵폭탄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때렸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핵이 보통 무기가 아니라는 것뿐 아니라, 강력한 일본의 힘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이라는 강한 존재가 일본을 때려 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우리나라는 특히 외교가 중요합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국방 안보와 외교, 깨끗한 공무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아져서 국민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3·1절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3·1절의 만세운동이 고귀하지만 거기에는 고귀한 정신이 있었지 물질적인 뒷받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뒷받침은 강력한 군사력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의 군대를 꺾을 군사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해방 직전 우리의 군사력을 연구해 보면, 일개 대대급 군사력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만주에서 무장군인들이 있었다더라도 다 합해도 한 개 대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소련, 중국이 힘을 합치고 핵폭탄까지 써서야 결국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남북이 또 나뉘어졌습니다. 만약 이때 우리 힘이 섰고 우리 국민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로 갔다면 분단

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공산국가가 우리가 살길이라 하고 한쪽은 자유 민주주의로 가서 나누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간에서 합쳐야 한다, 중립 지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95%는, 단독정부라도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1948년 5·10 선거입니다. 1948년 5·10 선거에 참여한 세력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김성수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이렇게 하면 영구 분단이 된다고 보고 거부했습니다. 지식인 중에 더 많은 사람은 공산주의로 가서 김일성, 박헌영에게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국방 안보와 외교에 대한 식견,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방공이냐' 그럴지 몰라도, 3·1절에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사파, 중북파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은 알아야 합니다. 나라, 지방에 관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개인의 가정을 뛰어넘어 공공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이 나라를 잘 알아야 국가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단순한 구성원이 아닌 핵심 주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맡아서 이끌고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책임이 큼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보내는 3·1절과 여러분이 보내는 3·1절은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내용과 신념과 방향을 갖출 때 공직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현안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상 1,125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이후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비판받을 것은 받더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문제부터 경제적 문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GTX를 채택해 조기 건설하고, KTX 사업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케이팝(K-POP) 아레나를 고양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한류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섭니다. 앞으로 과천은 대한민국의 과학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꿈꾸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십년, 백년을 내다보는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과천은 미래 창조 과학을 위한 연구단지로 발전하는 것이 과천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인데, 덩치만 크지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할 자치에서 4할 자치로 가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짊어지고 가면 불행해지는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짐을 20% 정도는 지방에 나눠 줘야 합니다. 지방과 국가가 힘을 나눠서 대통령이 60% 정도 결정하고, 시·도가 40%로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책임을 진다면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경기도 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동계체전에서 12연패를 달성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 부회장이신 김정행 용인대학교 총장께서 이번에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체육인들이 전국, 한국 체육 전체를 휩쓸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도 경기도 10구단을 비롯해서 동두천의 박찬호 야구장, 양준혁의 멘토리 야구단이 등장하면서 경기도에서 저변이 확대되면서 힘 있는 야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절대 한 지방의 일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른 공직자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좋은 새 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경찰 충혼탑 개막식

일시 2013년 3월 12일 경기경찰청

경기경찰 1,166분의 순국순직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의 어려운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량 경기경찰청장님과, 현장에서 365일 쉬지 않고 경기도 치안과 대한민국 공공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혼탑 제막식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담은 충혼탑이 더 많이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경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매 맞는 경찰, 집회나 시위에서 쫓기는 경찰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체 세력을 부정하는 세력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살길이라 말합니다. 한반도에 공산 세력이 존재하고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6·25 전쟁, 빨치산 토벌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부정 세력들의 집회와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자기 이익만을 위해 공권력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경찰들이 희생을 하여 지켜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개인의 조직이 아닌, 우리 사회 공공의 질서와 법칙을 지키는 기관이자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경찰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오늘 순국한 경찰관 및 유가족, 경기경찰청장님 외 많은 경찰 관계자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명예로운 경찰이자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주체 세력으로 우뚝 서는 데 충혼탑이 작은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기도민, 모두 순직 경찰관 및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를 드리며 훌륭한 충혼탑을 만들어 주신 여러 경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령들도 경찰관들을 늘 응원하고 성원할 것입니다.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일시 2013년 3월 16일 파주영어마을

반갑습니다. 최근 제가 본 여러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에너지가 넘쳐서 휴전선이 뚫어질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오두산 전망대에 갔습니다. 한강과 임진강 너머 북한 마을과 산과 들을 보고 왔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한 번씩 꼭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곳에서 북한 땅까지 거리가 몇 km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임진강 너머 북한까지는 2km 정도인데, 바로 이곳에서는 한 8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북한과 가까운 땅입니다.

영어마을 건물이나 스타일이 미국식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리더이자, 로컬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지금의 젊은 리더가 아니라 역사적인 리더, 히스토리컬 리더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논의해 봅시다.

예창근 총장님께서 여기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시고 이곳 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김상민 국회의원도 함께 오셨습니다. 김상민 국회의원님은 수원 수성고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수성고 출신 있으시면 같이 올라와서 사진 한번 찍으십시오. 여기 선후배가 만났는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명문 학교는 좋은 학생을 길러 내는 게 바로 명문 학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후배가 선배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십니다. 좋게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민 의원님보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람으로 진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의 단순한 영(young) 리더가 아니라 지역의 로컬 리더이자 내셔널 리더가 될 것입니다. 김상민 의원님 경우 내셔널 리더이고 저는 로컬 리더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경우 글로벌 리더입니다.

여기 휴전선이 있다고 우리가 갇혀 있지 않겠죠. 통일은 제가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를 가능성이 더 큼니다. 여러분 가운데 통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모두가 통일을 꿈꾸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체면상 이야기 안

했지만, 뒤로 가서 이야기하면 통일은 골치 아프다며 우리끼리 그냥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곳, 이곳엔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이 한반도에 생겼던 많은 정부가 있습니다. 또 식민지로 36년 지배한 일제 강점기,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구상 한반도의 모든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제일 좋은 정부가 어떤 정부라 생각합니까? 여학생부터 말씀해 보세요.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중에 가장 국민이 편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학생 :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 계십니까?

(목포 영흥고 남학생 :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이지만, 매일 북한에서 불바다를 외치는 대한민국보다 1392년 건국된 조선이 가장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라 생각합니다.)

조선은 당시 세종대왕도 계셨지만, 망해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짓밟혀 7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제 김연아가 경기하는 것도 보셨지만 김연아가 경기도 출신, 군

포 수리고 출신입니다. 우리나라가 런던올림픽에서 5등 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잘나가는 나라입니다. 군도 7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가요 가수에서도 제일 잘나가는 가수, 싸이도 있습니다. 이런 가수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요.

노래도 제일 잘합니다. 한류스타라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까? 우리끼리 잘나갔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잘나가는 것이 없지 않나요? 조선시대에 '오빠 세종 스타일' 있었습니까?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세계 1등 있었습니까? 박세리, 최나연처럼 골프 1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하는 게 없습니다. 피겨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세계 1위입니다. 거북선도 훌륭한 배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조선 능력은 세계 1위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세계적인 메이커로 성장해 미국, 중국, 유럽, 아프리카,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한국인 출신 미국 의사도 1만 8천 명입니다. 의과대학이 1년에 5백 명 이상씩 배출됩니다.

반기문 총장님도 UN의 사무총장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구도 많고 기술도 발달해 문화, 예술, 학문, 특히 부문 등 세계 톱 10위권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을 자랑합니다. 다들 공부도 잘하고 노래, 춤, 개성 모두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한반도 반만년, 오천년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고등학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1945년에 문맹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1% 이내입니다. 한글, 한자, 영어, 뭐 못하는 게 없는 여러분입니다. 매우 뛰어난 고

등학생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머리가 좋은 국민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대학생 되면 조금 공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좋고, 학력 수준도 가장 좋고, 손재주도 우리가 최고입니다. 나무젓가락뿐 아니라 쇠젓가락도 씹니다. 세계 최고 손재주입니다.

거기다 우리 젊은이들은 팀워크가 좋습니다. 너무 개인적이지도 않고, 아까 저 들어올 때처럼 다 같이 북한처럼 박수 친 학생들도 있고 일부는 박수를 안 치는 학생들도 있고, 적당히 개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학진학률이 50%가 안 됩니다. 일본도 안 됩니다. 스웨덴, 독일도 대학진학률 50%가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력이 가장 높고, 문화 예술의 끼도 많고, 팀워크도 제일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리안들은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나라 없는 식민지는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식민지만 겪은 게 아니라 남북이 분단돼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여기 파주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언제, 왜 죽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공군, 영국군, 미군 등도 죽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굶주려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걸핏하면 어릴 때 굶었다는 소리 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꼰대라는 소리 나오죠. 우리는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러죠.

저는 어릴 땐 쌀밥도 못 먹고 죽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었고 약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8남매인데 우리 형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아파서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미국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44살에 미국에 처음 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젊은 나이에 미국도 가 봤죠. 아주 잘살고 기후도 좋은 나라죠.

한국은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에티오피아에서까지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에 못살던 코리아가 어떻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살게 됐는지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겪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대회를 하면 세계 60개 나라에서 배우러 옵니다. 전 세계인들은 한국이 어떻게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살게 됐는지 궁금해서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뛰어올랐는지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우리 한반도의 44배 땅 크기입니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 중에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중국보다 잘살니다. 미모도 과거엔 양귀비를 꼽았지만 요즘엔 중국 사람끼리 말하길, 갑자기 예뻐져 나타

나면 너 한국 갔다 왔냐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가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예뻐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엔 양귀비표 화장품이 최고였다면 지금은 소녀시대, 김연아가 최고 미인이 된 시대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역사를 쓴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여쭙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일 멀리서 오신 광양제철고 학생 일어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포스코와의 관계 등도 짧게 함께 설명해 보세요.

(학생 : 우리 민족은 어려움 속에서 잘 단합하는 성향 때문에 잘살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왜 우리만 잘살게 됐을까요, 그럼? 북한은 못살지 않나요.

(학생 :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가 확실해 일을 해도 능률적 이고 효율적입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왜곡되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 줘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로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지만,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 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쪽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나라가 됐고, 한쪽은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북은 친구가 사라지고 고립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생회장들이신데 글로벌 리더로서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

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출세와 이익을 넘어서는 그 어떤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고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어느 곳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물을 못 마시고 죽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하고, 세 번 하시려고 3선 개헌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또 해 먹으려고 법을 고치려는데, 제가 반대해서 학교에서 정학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유신 등을 반대하다 두 번 제적을 당했습니다.

공장에 가서는 봉제 등 노동자로 7년을 일했는데, 그러면서 집사람도 만났습니다. 집사람은 순천여고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당시 구로공단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에서 잘리고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7년간 노동자 생활을 하고 교도소에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44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제적을 당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니.' 이 말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일 때 제가 44세로 졸업장을 받아 어머니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졸업장을 놓고 절을 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는 제가 졸업하고 취업하

고, 너무 가난한 우리 집을 위해 월급을 받아오는 것을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화병, 속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효자였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땐 우리 어머니보다 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이들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장 생활을 했고 공장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44살이 돼 국회의원 세 번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선 초기부터 따지면 최장수 도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회장을 해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잘린 것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만 갔고, 박사도 아니고 학사도 25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겨우 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남은 작은 힘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험한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 번 하고, 역대 최장수 도지사를 했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숨겨 놓은 돈이 있겠지, 당신' 해 봐야 저는 돈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해선 절대 지도자가 되질 못합니다. 주변에서 금방 냄새를 맡습니다. 점수 따려고 봉사하는 척하는 것이라는 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금방 압니다.

모든 걸 바치는 진정한 지도자, 전 세계는 모두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240년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였고, 중국도 최강이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항상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독일은 유대인을 죽이고 침략을 해서 분단이 됐지만 우리는 누굴 쳐들어가 본 적이 없고, 먼저 누굴 죽인 적도 없는데 분단이 됐습니다. 억울한 분단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학생들입니다. 저희들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모두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결국 국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자신, 친구, 가정, 국가를 뛰어넘어 미국, 아프리카 모두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진정한 실천을 하고, 제 나이가 됐을 땐 세계 속에서 빛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일시 2013년 3월 18일 성남 판교 SK케미컬

오늘이 가장 큰 경제활성화 회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빌딩이 매우 좋은 곳이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린 대로 이 대책회의는 경기도경제단체총연합회 강호문 대표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모든 기업이 모여 있는 경기도기업협의회 백남홍 회장님 등 여러분도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 경제 대책에서 첫째가,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경제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뭘 못하게 규제를 하기도 하고, 공무원이 끼면 일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국회, 언론, 의회 등 많은 감사가

껴 있어서, 어떤 일에 공무원이 끼어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스피드를 생각하면 공무원이 끼선 안 됩니다.

중국을 보면 공산당이라 그런지 매우 빠릅니다. 지금은 '차이니스 스피드'가 '코리안 스피드'를 능가합니다. 매우 빠른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능가했습니다.

공무원이 끼들어서 여러분을 도와 드리면 좋지만, 괴롭히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끼들기 때문입니다. 국회도 보면, 조직 개편에 47일이 걸렸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빠져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서 듣고 도와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끝나고 해 주시는 말씀 듣고 작지만 도와 드리려 합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학기술인이 바라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싫어하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것을 빼다가 지방에 옮기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과천, 판교에 인접하면서 젊은이들이 오가기 편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최우선적으로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좋은 땅을 풀어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정책을 폈습니다. 힘이 있다고 인위적으로 정책을 펴, 과학기술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이 많은데, 임대주택 부지로 자꾸 쓰는 게 맞습니까.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집도 지어서 일자리와 생활주거교육을 함께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무리 말해도 중앙정부에서 듣질 않습니다. 기초과학만 갖고는 안 됩니다. 기업이 많은 곳에 연구소를 지어서 기업과 실용적인 과학이 함께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아마 과학기술인들은 저와 생각이 비슷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창조 경제, 미래 창조 과학 경제, 이런 것들이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는 합의되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경우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급식 등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매우 강한데, 과학기술은 오늘도 보시다시피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예산뿐 아니라 정책, 입지 선정, 모든 부분을 힘겨루기가 좌우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들은 매우 똑똑하시지만 발언권이 너무 약하십니다. 변호사와 비교해 보세요. (과학기술인들이) 응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의사는 강남에 다 사시고, 변호사들도 서울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인은 대전, 울산, 포항, 창원, 광양 등에 가 계십니다. 우수 인재가 왜 안 모이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책이 꿈과 과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힘이 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공계 나오셨고 과학기술인들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학기술인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몇 가지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하거나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신속하고 간명하고 집요하게 발언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 정부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천에 미래부가 자리 잡게 됐는데 이것도 아주 잘한 일이고 저 역시 환영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일시 2013년 3월 19일 서울 여의도렉싱턴호텔

여러 가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조직법도 그랬지만, 지금 급한 문제는 취득세 감면 문제로 인해 통과가 안 돼 부동산 거래가 아시는 것처럼 절벽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거래량이 2만 1천 건이었는데, 올해 1월 5천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5천억에서 마이너스 7백억으로 줄었습니다. 추경 예산도 없고, 감액 예산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우리 세수의 절반인데, 올해 거래량이 월 5천 건에 불과하니 제대로 살 수가 없고 향후 전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선 지자체 유지가 어렵고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뭐 문제냐' 하는데, 지방은 파탄 상태이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긴급하게 국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목을 조정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일을, 우리 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지방 살림 봐 주십사 호소, 간청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경기도 공공택지가 보시는 자료처럼 매우 많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산도 안 되니 될 리가 없습니다. 광고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산도 안 되는 마당에 경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파할 방법은 오직 국회만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심각합니다. LH 사업도 거의 경기도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LH의 사업 대부분은 경기도에 있어 경기도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화성, 오산 등에 임대주택을 쏟아 붓는다면, 우리 지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일본 브이텍스코리아(주) 준공식

일시 2013년 3월 21일 평택오성산업단지

브이텍스코리아를 이끌어 주실 오다 히사타카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전기 평택시장님 함께 오시고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브이텍스코리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공무원들을 찾아 주시면, 찾아가서 겸손히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멀리 있습니다. 평택시도 특히 경기도청이 멀리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찾아와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브이텍스코리아가 만드는 제품이 초진공·고진공용 밸브와 립쳐 디스크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 자체가 매우 앞서 있고 정확도가 높은 기술이기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큼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쓰레기 소각장, 해수 담수화 기술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사업, 좋은 기술, 좋은 투자를 한국에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에 가도 만나기 힘든 분을 오늘 이렇게 경기도에서 만나 영광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동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에서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버블이 꺼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경기도의 자매도시 일본 가나가와 현과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현황과 도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면, 특히 경제, 사회,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20년 전에 미리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경제도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 국제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점을 보다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윈윈(win-win)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오늘 브이텍스코리아의 오프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브이텍스코리아의 제품이 경제 발전, 지역 발전 외에도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 개선·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평택시와 경기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브이텍스코리아를 발전시키고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장님 외 여러분들의 훌륭한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38주년 기념식

일시 2013년 3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오늘 대전에서 천안함으로 순직하신 분들께 참배를 하고 막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요즘 '백년 전쟁'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나라의 정신을 파괴하고, 정신을 쪼먹는 독소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있고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입니다. 헌법 위에 이 주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그분을 비난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기수 기념회 회장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법정 문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을 딛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어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복잡한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앞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찢찢 매고 있고, 중국 외교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찢찢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국가적 과제는 공산주의로 갈지 자유주의로 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학자보다 더 확실하고, 어떤 외교관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판단으로 나라를 끌고 오고, 6·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바로 미국의 참전과 UN의 참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즘의 복잡한 정치 속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에 대해 교단에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유튜브에서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용 역사 교재를 만들었는데, 많은 반대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며 당장 그 역사 교재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호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하면 전부 다 그분들을 존경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링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들이 링컨은 존경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합니다.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이승만 대통령 만화책을 사서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잘 만들

었습니다. 만화도 잘 만들었지만, 앞으로 영화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링컨 대통령 이상으로 우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전국 18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설문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국민이 늘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역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실 대전까지는 다 오십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는 바로 국회에서 열리는 데도, 두 분밖에 안 오십니다. 여기 오면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한 분만 택하라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나라를 세워야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해야 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 끊임없이 영화도 만들어 주시고, 소설로 시로 노래로 만들어 계속적으로 온 국민의 구석구석에 적어도 '강남 스타일' 이상으로 히트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동계체전 종합우승 12연패 해단식

일시 2013년 3월 27일 수원 호텔캐슬

선수 여러분, 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님은 선수 출신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유도회 7번째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님이 경기도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다가, 경기도체육회장이 아닌 대한체육회장으로 점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3관왕을 10명, 2관왕을 20명 배출했습니다. 3관왕 하신 분들 중에 스키의 이채원 선수, 빙상의 장미 선수, 쇼트트랙의 박승희 선수, 바이애슬론의 정주미 선수가 오셨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김연아 선수가 경기도 군포 수리고 출신입니다. 그때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때인데, 전지훈련비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밀어줬습니다. 지금

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경기도 체육은 단순히 경기도, 전국 체육이 아니라 세계 체육을 넘어 세계의 역사를 빛내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포시에는 빙상 경기장이 없고, 코치도 없고, 빙상을 하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완전 불모지에서 맨땅에 헤딩을 하여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장이 없고 홈그라운드도 아닌데 3관왕을 10명, 2관왕을 20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어린 선수들이 위대한 기록을 세워서 이 선수들이 제2, 제3의 김연아가 될 것입니다. 세계 스포츠에서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전국 체전이 아니라, 세계 올림픽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만들고, 세계 스포츠의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우회

일시 2013년 3월 29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고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 안보의 위기, 저성장 장기 침체의 위기, 부동산과 내수의 위기로 3대 중첩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큰 방향은 물론 민심의 현장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4%에서 2.3%로 낮아진다는데, 저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국가가 세수에 있어서 공기업 매각이 안 되어 전체적으로 13조 이상의 세입의 결함이 있다는데, 경기도도 5,000억의 세수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정부 예측대로 되어도 도세는 5,000억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작년 6,000억에서 7,000억 이상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복지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정 예산을 10조 한다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시중에 1,000조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삼성전자에도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 공장에서 작년에 2개 라인을 증설하여 20조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허가해 줬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가운데 불산 사고가 났습니다. 주민들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니, (공장) 돌아가는 것도 가동 중지하라고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책임자를 만났는데, 모든 회의 결과 미국 오스틴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인텔이나 애플이나 제조 공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서 한 나라에 우리처럼 이렇게 몰아서 투자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분산 투자한다고 합니다. 애플도 미국 국내 투자를 안 하는데, 우리는 삼성이 국내에 제일 많이 몰아서 화성 공장 2개 라인이 있습니다.

재벌 때리기. 대통령 선거 시에도 국민들도 전부 반대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 (대기업의) 상품권 발행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때리기를 합니다. 또 상당수

글로벌 오너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기업의 여유 자금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10조 추경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간이 10조를 쓸 때와 정부가 10조 쓸 때 일자리를 누가 더 많이 만들고, 누가 더 최첨단의 미래 창조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는 누가 더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까.

시중에 수십 조의 투자 여유 자금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만드는 데에 그린벨트 풀어야지, 집 짓는 데에 그린벨트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포천에 갔다 왔는데, 중소기업 염색 공장에 사람이 매우 모자라더라고요. 한미 FTA 이후 경기 북부 지역의 섬유 부분은 미국 수출이 15% 이상 늘어 호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하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돈도 안 들고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범을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취임했는데 장관 및 정부조직법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안 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안 됩니다. 일본 기

업도 주춤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경도 빨리해야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저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채 발행도 도장을 받으러 가야 하고, 또 나중에 갚을 자신도 없습니다.

중앙이 추경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중앙정부가 10조를 빚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너무 대기업 때리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야 하고, 규제 완화, 反기업 정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경제가 당분간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도 자체도 비상 경영 체제를 하는데,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자살자, 노숙인, 생활고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잘 살피고 보듬어 주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지와 무한돌봄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디딤톡 콘서트

일시 2013년 3월 29일 경기도청

경기도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뒤의 산이 팔달산입니다. 200년 전 정조가 화성을 쌓아 화성 산자락, 팔달산 자락이 있고, 저 앞에는 수원 비행장이 보이는 명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한돌봄을 아십니까? 올해 5년째로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판잣집에서 밥을 못 먹고 자랐습니다. 7남매 중 6번째인데 남매 중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어릴 때 밥을 못 먹고, 학교 진학이나 유학은 꿈도 못 꿔었습니다. 경북 영천 시골에서 자라서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5학년 담임인 배인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습지를 출판사에서 한 권씩 선생님에게 드리는데, 그 학습지를 저에게만 주

셨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난 후에 교실에 남아 그것을 다 풀고 왔습니다. 저는 참고서를 얻게 된 셈입니다.

그렇게 2년간 학습한 덕택에 성적이 좋아져서 대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니 부모님 걱정이 많더라고요. 하숙이라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척집이 있어서 자취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대구로 다니다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7남매 중 아무도 대학 갈 꿈을 못 껴는데 저 혼자 대학을 가서 꿈을 이뤘습니다. 배인숙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챙겨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지금은 천주교 신자인데, 내일이 부활절 이브입니다. 제가 천주교로 들어온 계기는 수녀님에 의한 것입니다. 성남의 '만남의 집'에서 빈민사목과 노동사목,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사목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장 7년 생활 중 노조위원을 했습니다. 당시 삼청교육 대상으로 저를 잡아서, 제가 도망 다니고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수녀님이 제가 노동법을 가르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장에 7년을 다니며 노조위원장을 하고, 한때 인기가 좋은 노동부 강사였습니다. 저는 잡혀서 교도소를 2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그 후 출감을 해서 수녀원으로 수녀님을 찾아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녀님은 그 뒤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실 뻔하시기도 했습니다. 포천에서 양로원을 하다가 77살의 연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녀님이 전국의 노동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여러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평의 노동자들, 부산의 고무 공장, 광주, 대전, 구로공단, 전태일기념관 등 전부 다 집도 사 주고 도와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배에 밥이 되어 배고픈 이를 치유해 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인간에 대한 긍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의 젊은 사람, 지금 43살 된 젊은이를 아는데 그는 동두천에서 수해가 많이 날 때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수수가 잘 안 팔려 꽃을 팝니다. 옥수수를 팔 때 마침 수해가 나서 중앙시장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당의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팔던 옥수수를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고 밀천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하나도 없고 장가도 못 갔다는데, 집도 월세를 살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수해가 나서 다들 어려운데, 장사 밀천 벌겠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어렵지만 모두를 위해 다 도왔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충격을 도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포천에 가면 장자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기가 나길래 포천시 장에게 물었습니다. 시장이 말하길, 연기가 나는 곳은 한센촌이라는 곳인데 그곳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몽둥이를 들어도 말을 안 듣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센마을에 가니 한센인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제가 도와 드리러 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얼 도와 드리면 되겠느냐 물었는데, 한센인이 되어서 너무 억울하다더라고요. 자신들은 122번 고발당하고, 연천의 한센인은 250번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계속 폐수를 버리고 공기를 유해하게 했다면 고발당하면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국가에서 혜택은 못 받고 단속만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각 부 장관들을 모두 설득해서 공장을 합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다 보니 그들은 꼬막손이고 얼굴도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 꼬막손으로 그들은 글씨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센인들은 병을 옮긴다고 해서 집에서도 다 쫓겨났습니다. 마을 주변에 한센인이 오면 다 죽창으로 찌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이 글씨를 못 배워서, 공무원들이 행복학습관을 만들었습니다. 70이 넘는 할머니들이 글씨를 배워서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울고, 공무원 모두가 울었습니다. 글씨를 배운 기쁨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고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쓰고 읽을 줄 아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운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요즘 학생 기자단들 공부하라면 싫어하지만 이분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버려진 곳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많

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은 누구라도 어려운 분들 있으면 늘 도와 드립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동사무소, 시청, 도청, 온라인, 전화,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헤쳐 나가는 경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복지TV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일시 2013년 4월 2일 한양대 컨퍼런스홀

지금 우리나라에 3대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방 안보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늘 있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로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아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위협을 느낍니다.

군사적으로 비대칭이라 합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 대륙 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잠수정, 특수전 부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북한이 비대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핵은 가장 값싸게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기 북부에 승진훈련장·영평훈련장이 있는데, 방송에서 보시면 산이 부서진다는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반면 핵은 한 방 때리면 방사능과 그것이 함유된 비산 등이 오랫동안 인체와 주변에 영

향을 미칩니다. 재래식 무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국방 안보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간은 6자회담을 통해 조율할 수 있겠다고 해 왔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핵을 어떻게 봐야겠는가의 문제에서, 그간 국방 안보의 문제 차원에서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철수를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북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육군 비행장 31개, 2함대 사령부 등 전력이 전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빠지면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안 됩니다. 육군이 절대 부족하고 잠수정이 부족합니다.

비행기 대수는 적어도 고성능이라 괜찮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체제가 국민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사과까지 있습니다. 북한이 좋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한 번도 정권 교체된 적 없는 3대 세습입니다. 우리는 다원구조입니다. 복수정당에, 가치관도 다양합니다. 북한은 유일체제입니다. 하나의 왕조적 정통 체제와 태양과 같은 충성심, 전 인민의 단일화. 우리는 종교부터 다양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안함 폭격을 누가 했는지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과 맺은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많은 인맥을 활용해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한 경고를 했음에도 (1949년) 당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고, 바로 1년 이내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평화를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다니면, 미군이 빠지고 나면 정보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기 체계, 지하 동굴 등을 우리가 정통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핵을 만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보를 미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용산 등 미군 정보 체제를 보면 그에 상당히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병역 기간도 줄어듭니다. 아마 몇 번 더 대선 치르면 모병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징병제 대신 직업군인제를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습니다. 한 방 맞은 다음 반격을 할 수 있는데, 선제공격은 매우 타격이 큼니다. 힘이 비슷할 땐 먼저 때리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북은 선군정책(先軍政策)입니다. 그다음이 경제입니다. 자기들은 위대한 혁명의 정신을 가진 인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승만을 죽일 놈, 친미주의자, 부정부패, 독재자로 봅니다. 박정희는 친일파고 유신 독재하다 나중엔 시해를 당하고, 전두환·노태우 등등 그렇습니다. 김대중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김영삼 대통령 머리 나쁘다 하고, 이러니 대한민국 자체가 지

킬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운영하니 잘 아시겠지만, 회사의 직원들이 나만 알고 회사나 조직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있어 회사에 다니고 생활할 수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나라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생각을 해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국민·국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정통성이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 모두 엑스포를 치고 있습니다. 이래선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로 떠오릅니까. 일본을 능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전자제품이 일본을 넘어서고 우리 자동차가 미국 GM, 크라이슬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노키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모두 다녀 보면, 대한민국이 만들면 월드 베스트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 회사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연아도 군포 수리고 출신인데, 아주 어렸을 적 학생 때부터 우리가 경제적 도움을 줬습니다. 군포엔 아이스링크도 없고 선생도 없습니다. 과천링크장 아니면 목동링크장을 찾아다니면서 세계적인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방력도 세계 7, 8위 수준입니다. 고구려, 무신시대 때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게 대한민국 국방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 보면 이순신, 김유신, 이런 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역사상 최고로 강한 군대라고 가르치는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옛날 장보고가 최고의 무역상이라 해도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만 한 기업인은 한반도 반만년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평생 노조운동 하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싸이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은 역대 국가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좀 못사는 나라에 가 보면 공무원 때문에 못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제조, 교육, 모두가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를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 보면 세종대왕, 이순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국방 안보의 핵심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용솟음 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낮에 연평도 포격을 맞아도 분노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양주에서 미선이 효순이가 탱크에 치어 숨졌을 때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반미운동을 합니다. 제주 해군 기지도 반미운동이 심합니다.

우리는 서해안의 해군 2함대 사령부 등에 좋은 입지를 다 내주고

국방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특별법으로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화성에 경찰서가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진짜 없다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평택에 장갑차, 대포, 사격 훈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으로 또 가야 합니다. 매일 훈련하러 포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두천, 포천에 무기만 두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 상인들이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모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언론이 봐 주질 않고 대한민국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화학무기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북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합니다. 핵과 미사일 규정을 어기는 순간 세계적인 무역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입·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폐쇄적인 처지에 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위기는 바로 저성장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입니다. 이것은 '일본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본 따라 배우기, 미국 따라 배우기를 통해, 캐치업(catch-up)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성장을 했습니다. 30년간 8%의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을 너무 많이 따라 배워서 소니를 이기고 전자제품도 많이 이기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어렵습니까. 일본은 '실버 민주주

의라 합니다. 60대 이상의 표가 20~30대보다 두세 배 더 많을 정도입니다. 선거 분석을 해 보니, 실버 세대를 위한 공약이 점점 늘고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은 줄어듭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노인 표를 의식한 공약이 계속 나옵니다. 연금, 4대 질병, 노인병 등 계속 정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돈 내는 건 경제 활동이 가능한 18~60세 나이의 근로자입니다. 일본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더 부자입니다. 부자 실버에, 가난한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베가 저렇게 움직이지만, 인구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해 봐야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남녀가 만나 불꽃이 튀고 사고도 치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도 먹지 말라는 사과 먹고 난리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이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상속 연령이 68세입니다. 아들이 68세 돼야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습니다. 무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보기엔 할아버지가 돈이 있나, 남자가 아파트 있나, 이렇게 따지게 되고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라고 하면 완전히 끝내 취급을 합니다. 인간이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출산율 세계 210등인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은 젊은이 7명이 노인 한 분을 모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업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나오지도 않는다 합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랑도 생기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야단칩니다.

과거 일본이 종신 고용, 사내 복지, 근면 성실, 정밀 공업, 이런 부분을 국민정신과 결합하고 잘 노력해서 세계 제일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두세 배 속도로 따라붙고, 저출산 고령화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과감하게 내놓으신 것이 극약 처방이라 봅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은 변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고 경제는 계속 안 좋습니다. 부동산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가 여러분 겪으시는 것처럼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 지금 유지가 어렵게 된 데 있습니다. 지시할 사람만 있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려면 집에서 '너 대학 나와 뭐 하나' 하며 일 못하게 합니다. 결국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의 대학진학률이 50%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혜택을 준다니까 안 받으면 억울하니 너도나도 더 대학으로 몰립니다.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만큼 간이 크질 못합니다. 박 대통령이 간이 좀 더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마이스터고교를 만들어 세심하게 들어갔습니다.

고졸로 제대로 취업이 된 사람은 월급도 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서도 고졸을 뽑고 있습니다. 이러니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73%까지 대학진학률이 떨어졌습니다. 약간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남매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못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저는 생각이 뼈뺏해서 돈 모으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이 정말 없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돈을 안 모으게 구성돼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더러운 세상'이라고 소리치며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러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보통 앞서 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부정입니다. 부정적 사고의 씨앗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혼해서 뭐 하나, 애 낳아서 뭐 하나, 살아서 뭐 하나, 돈 벌어서

뭐 하나. 최근에 경악스러운 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삼질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삼질 없이 살아왔습니까. 돈 이야기를 한다고 부정합니다. 아니 그럼 돈 없이, 경제 없이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중국의 모택동이 뭐라 했습니까? 모택동이 중국 남쪽을 순방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 아이들이 묻길, '선생님 공부 꼭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모택동이) 좋은 질문이라면서 '공부하면 눈 나빠지고 친구 떨어진대'라고 해서 (그 후 학생들이) 선생을 무시하고 구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중국이 겪는 동안, 우리는 공부하고 돈 벌고 반만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금방 중국이 정신을 차리고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배우고 캐치업을 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배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저런 사람, 성장 지상주의자'라고 욕합니다. 성장 없이 돈 없이 복지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김문수는 성장 만능주의자, 수구꼴통, 변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도 있습니다. 반미, 반일을 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처럼 우리끼리만 잘살자는 겁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이사회가 결정을 했는데, 화성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기존 계획에 회의적

이며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 투자에 가장 적극지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화성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에서 지방에서 언론에서 경찰에서 계속 지적하러 오니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투자에 차질이 있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개 라인에 15조 원을 투자하고 3천 명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 2개 라인 사업 투자 계획이 사라지면 나는 경기도지사로서 용납할 수 없다, 다시 투자하는 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당신은 親제벌이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親삼성이고, 親LG고, 親노조, 親노숙인입니다.

기업이 최고의 경제 주체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과천, 세종(정부청사가) 세금 한 푼 냅니까. 납세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위해 그린벨트, 농지도 풀어 줘야 합니다.

경기도에 2020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있는 주택도 남습니다. 향후 8년간 260만 호를 더 짓게 돼 있는데, 필요한 건 80만 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더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그린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어제도 공장을 찾아갔는데, 공장 위로 지나가는 그린벨트 라인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꿔 줘야 합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도와야 합니다.

모쪼록 대학 나온 것보다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잘되는 세상이

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사장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아닌, 서로 긍정적으로 돕고 이해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통의 분모를 찾아 뛰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환경과 경제가 대립 관계가 아닌, 함께 굴러가는 협력 관계가 돼야 합니다. 제가 미국 환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 상태는 매우 깨끗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와 환경, 성장과 복지, 정신과 물질, 남과 북, 노와 사, 남와여, 노인과 젊은이,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저, 공무원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가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7천억 원 이상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우면 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빚내서 복지를 하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는 데는 국민의 통합,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들,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중과 질의응답 >

질문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방자치나 간접해선 안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6개 도립병원이 있는데 우리도 적자가 큼니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 노조는 민노총이고, 최강성이 경기도립병원 노조입니다.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역대 도지사 중 처음으로 모든 도립병원을 다 방문했습니다. 구석구석 거미줄 떼고 주변 청소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부터 하고 노조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만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숙인들 병 고치고, 노숙인 쉼터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 변화가 일어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땐 점심 시간 마다 냄비 뚜껑 꺾꺾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떨 땐 봉급도 제때 못 나오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급은 칼같이 주도록 지시, 조치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풀리지 않는 갈등들, 그것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머리 좋고 가슴 따뜻한 한국인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의 분쟁이든 한국인이 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정신력은 우리가 식민지, 전쟁을 겪으며 모두 이겨 낸 데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이 대단하다지만, 독일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분단이 되었고 다시 통일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왜 죄 없이 분단이 돼서 통일을 이루지 못합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노사 모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협력하고 노력하고 청렴하고, 누가 쥐도 돈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도 모두 거절합니다. 그러면 참 인간미 없는 사람이라고 욕도 합니다. 하지만 청렴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을 도와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제가 온갖 수모도 당해도, '의회란 결국 도지사 공격하는 게 의회지' 하고 이해합니다. 긍정하고 이해합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문

수원비행장 이전 복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산 스마트 허브 정책은.

답변

수원비행장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위도 상에서 보면 안산화성 매립지가 나옵니다. 약간 더 내려가면 화성 매립지입니다. 둘을 합치면 6천만 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화호 매립지 일대는 인천공항과 매우 가까워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역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옮겨 가는 지역의 주민투표에서 3분의 2가 참여해서 절반이 찬성해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못 옮기게 해 놓은 정책입니다. 수원은 떠나면 만세를 부릅니다. 12조 원의 땅이 생깁니다. 결국 현재의 법률 체제 안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부서 자체를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복잡해하고, 선진국도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는 권한이 적어 정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잘 뭉쳐서 이야기하고,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월 월례조회

일시 2013년 4월 3일 경기도 북부청

포천에 소시지, 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계기가 되어서 들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개별 입지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쏟아부은 우리의 정성과 정신을 고객에 전달하는 것이다.'

소시지, 햄 파는 공장에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공장에 직원이 140명 정도 되는데, 소시지 만드는 포천의 작은 공장 입구에 그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에서의 정신은 그냥 정신이 아닙니다. 혼을 쏟아부은 정성이고, 그 정성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소시지를 깨끗하고 맛있게 하자'도 좋은데, '자신의 혼을 쏟아붓자'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정성을 고객에게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공무원의 업무는 서비스업입니다.

여기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기준에 맞춰 물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정신을 쏟아부었다고요. 그러나 진짜 정성과 정신을 쏟아부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느낀 생각은 '이 공장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이었는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저는 반도체 공장이나 제약 회사, 식품 공장을 많이 다니는데 보통 에어샤워를 하고 장화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손을 씻고 들어가는 방법을 다 써 놓고도, 소독약을 또 구비해 놔줍니다. 그리고 에어샤워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냥 규정보다도 몇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보니, 기계가 있는데 독일제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제가 그다음이고 국산은 몇 개 없더라고요. 왜 독일제와 일본제를 쓰나 물어보니, 사장 말씀이 '우리나라는 햄과 소시지가 주식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햄과 소시지를 주식처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계가 발전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 기계를 써 왔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쌀 도정 같은 기계는 더 좋을 수 있으나 햄, 소시지는 독일보다 20년 뒤쳐지고 일본보다는 10년 뒤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수도 가고 공부도 하고, 아직까지 배우고 있다더라고요.

그 소시지는 주로 기내식이라든지 호텔에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제품 단계부터 원재료, 제조생산 과정,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물질을 중시하고 과학적 기준을 중시하던 우리의 일반 생각과는 다르게 이곳은 처음부터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 과학과 기계, 절차 위에 바로 정신과 혼이 있더라고요. 총력을 다해 혼을 쏟아붓는 정신이 있기에 그 회사는 상당히 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20년 내에는 세계 제일의 회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회사가 포천 구석에 있더라고요.

4월 1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주택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꽤나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큰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발표를 하신 정책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상당한 힘을 실은 정책이라 봅니다.

평소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부분들도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추가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각종 개발 사업이 잘될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구조화, 고착화됐기에 극복을 잘 못합니다.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20년 장기 침체를 겪다가, 최근에 아베가 강수를 던져서 일시적으로 반짝 일본의 붐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더 많습니다. 100개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주택·부동산 내수 부분에 활기를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투기는 없을 것입니다. 일정하게 계속 가라앉는 주택·부동산 부분에 조금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위기는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이 둔화된 데에 있습니다. 정부가 20조 규모의 추경 발행을 채권 발행해서, 빚져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 들이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천 청사의 이전 부지, 또는 52개 경기도 공공청사 이전 부지에서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고 이곳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청사는 옮겨 가는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비발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연천, 임진각 등 북한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포격 위협을 받는 서해 5도와 연천, 임진각의 최전방 DMZ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의해 해제·완화하는 조치를 의결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경기·인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시행령에 백령도, 서해 5도와 DMZ 중립 지대 일원의 100km 지역까지는 벨트 지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보금자리의 총 87%가 있는데, 이 부분에 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용도로 써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호텔, 아니면 다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의 기아자동차같이, 공장이 있는데 추후에 그린벨트를 만든 경우입니다. 남양주의 빙그레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며칠 전 의왕시에서 했던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국내 최고의 축산물 백신용품을 만드는 공장인 대성미생물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1966년 그 공장을 만들었는데 5년 뒤에 그린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과천의왕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공장부지 700평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 옆이 그린벨트라 안 된다더라고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 농지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산지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은 완화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보금자리 집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봐서 완화해 줘야 합니다.

또 국방 안보상의 위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북한이 명백하게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정치적인 보류를 하지 말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래야 이것이金正恩에게 전달됩

니다. 과거 연평도처럼 포격을 했다가는 몇십 배의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의 최신 장비가 오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겁을 안 먹는데, 미국은 오바마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2기에서 세계 나오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911 테러를 한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땅굴까지 찾아가 응징했습니다. 미국의 장비가 오고 강력한 응징을 표방해야 북한도 도발을 안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산동성 간부들이 우리 경기도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 전날 미국의 이상한 비행기가 날아왔는데, 미국이 군산 앞바다까지 와서 그 비행기가 미국의 공터 내륙 지방부터 날아와서 군산 앞바다에 폭격을 투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중국까지도 겁을 냅니다. 중국이 겁을 내는 것이 좋은 게, '미국이 도발하면 중국에게도 안 좋겠구나'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미국이 점점 한반도에 더 개입하고 더 강력한 무기 체제를 배치한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게 살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야 미군이 철수하고 완화할 것 아니냐, 북한에 중국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안 가는 곳이 없고 끝까지 빈 라덴을 응징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일정한 정도의 경고를 해야 북한이 자세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중국의 그분들 말씀으로는 말해도 북한이 안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주축이 경기도 북부의 의정부입니다. 동두천, 포천, 의정부, 파주 일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입는 피해에 대해 우리 국가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이 열 배도 넘는 보상을 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한류월드 지역에 엠블호텔 개장을 했습니다. 특일급 호텔이 경기도에 개장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김포의 애기봉, DMZ, 철원 일대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백령도에 중국인들이 와서 카지노도 하며 놀면 북한이 절대 대포를 못 쏘게 될 것입니다. 대포를 쏘면 중국 관광객이 피해를 입게 되고,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와서 관광 용도로 와서 적당히 즐기다 가는 것은 우리 국위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국방 안보를 위해서 최전방의 지역에 획기적인 특단의 결단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을 개발하자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NLL과 DMZ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핵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인류에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또 심심풀이로 어느 날 대포를 쏘는 도발적 인사는 반드시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확대됨을 절대 막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국방 안보의 위기

둘째, 저성장과 침체의 위기

셋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주택 내수 위기

이런 3대 위기를 벗어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일시 2013년 4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오늘 이렇게 지방분권을 위한 소중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멀리서 와 주신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의장님 외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김현삼 의원님, 장태환 의원님, 안혜영 의원님 등 많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함께해주신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방자치를 위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님, 조성호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손톱 밑 가시'를 빼자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시를 뺄 것입니까. 그런 일 하러 다니시는 일은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손톱 밑 가시나 신발 안 돌맹이 빼는 일은 시·도의원,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대통령 위치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 문제나 외교 문제 등 각종 고차원적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있는 민생 문제, 손톱 밑의 가시를 빼거나 신발 안의 돌맹이를 찾아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언론에서는 한 사람도 지방자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를 빼자고 하면 얼른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서실이나 장관들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언론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마침 경기일보의 사장님이 오셨는데, 솔직히 지금 지방언론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중앙이 다 하는데 지방이 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방언론이 발전해야 하는데 지방언론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집권적이고 제왕적이며 중앙 행정부서, 국회, 중앙언론 삼자의 연합에 의한 중앙집권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 최강입니다. 심지어 중국보다 우리가 중앙집권이 더 강합니다. 지방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과

언론의 삼자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할 자치라 하는데 진짜 2할 자치입니까. 2할은 고사하고 1할도 안 됩니다. 현장에 가면, 경기도 같은 넓은 지역은 지방자치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기 힘듭니다. 하는 일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서 과감한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께서 반드시 지방자치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세가 50%가 넘습니다. 이 세제도 고쳐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지사가 만나면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7년째 경기도지사를 하지만, 17개 시도지사가 만나면 정당 때문에 의견이 다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의 존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뛰어넘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시대에 정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대통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권한이 전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전부 대통령 눈치 보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국민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결국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좀 나눠야 합니다. 북유럽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주거나 미국처럼 연방제를 하면 대통령이 행복합니다. 권한의 분권은 지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하 2할 자치를 4할 자치로 가야 합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일에 과감한 종합 주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찬성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서 일본의 나쁜 것, 잃어버린 20년의 길에 따라 들어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이 일본보다 더 가파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감한 분권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택지개발 산단을 L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87%를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까지 주택을 260만 호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90만 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60만 호가 앞으로 남아돌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린벨트에도 또 집을 짓겠다는데, 이게 되는 정책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집이 남는데 또 집을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중앙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를 집 짓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데 이용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방의 사정도 모른 채 위에서 무조건 집 많이 지어서 집값 떨어뜨리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민생을 현장에서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고통으로 20년간 헤멜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토지 이용, 부동산, 그린벨트의 관리 권한, 농지, 택지지구에 관해서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대구나 광주 등 지방부터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또 교육감과 도지사를 따로따로 뽑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요즘 돈이 남는데, 교육청이 재정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알려져서 우리 일반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을 계속 도와주자고 합니다.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시·도지사 전부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금지를 빨리 여야가 협의해야 합니다. 광역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금지법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러닝메이트제와 정당 공천 금지, 이 두 가지 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내년의 지방자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저는 경기도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경기도 공무원이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의원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톱 밑의 가시만 아니라 그만큼 구석구석 살살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기초의원들 아니십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지방분권을 해서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해야만 합니다. 학자들 중에서 이기우 교수님 빼고 저한테 호응을 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해도 중앙언론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늘 지방 토착 비리, 자치단체장 잡혀가는 것 등뿐입니다.

그러면 중앙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것은 중앙의 독선, 중앙언론을 이용한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은 비리, 부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 지역을 넘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자리가 자주 열리고 지방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돼서,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지방자치를 힘 있게 추진하는 개혁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일시 2013년 4월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야 지역을 모두 힘을 합쳐서 철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지방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경기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고쳐야 할 부분이 첫째, 교통 문제가 50% 이상입니다. 둘째, 교육이 20%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 부분이라고 합니다.

교통 중에 획기적인 친환경 녹색교통이 철도 교통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경기도는 보금자리를 많이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보금자리의 8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지역까지 철도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방이 40% 부담하라고 합니다. 기존 25%에서 40%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철도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경기도는 세금의 54%를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데, 요즘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표한 4·1 부동산 정책이 빨리 입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즉시 발표 날짜에 환영사를 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7,000억 정도 세금이 감소했고 올해도 5,000억 이상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공무원들의 봉급 문제까지 어려워질 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번 할 때마다 복지비용이나 교육 부분 등을 전부 매칭펀드화 시킵니다. 발표를 대통령께서 하시지만, 지방이 늘 절반 내지 25%를 같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 문제도 거의 다 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능력은 없는데 위에서 발표할 때마다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점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에게 40%를 당연히 부담하라고 하지만, 원래대로 현재의 25%를 부담하라고 해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철도까지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철도는 신도시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LH 단지가 경기도내 102개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개

맡혀 놓고 철도를 우리가 40%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열쇠는 국회의원님들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것 하나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의원님들께서 귀한 자리에 오신 만큼 신속히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RCY 단원 리더십캠프 특강

일시 2013년 4월 6일 평택 무봉산수련원

여러분들을 보니 저도 같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RCY 위원장이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오택영 평택 부시장님, 박창규 RCY 본부장님 등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저는 RCY 적십자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서 한번 만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현충일 혹은 3·1절에 가 보면 RCY 단원들이 와서 리본도 달아 주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아주 예뻐서 한번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합니다. 친구들은 다 놀 때 현충일에 봉사해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시는데, 인사도 너무 공손히 잘합니다. 인사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착한 RCY 단원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백 번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그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갖고 봉사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겠다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연평도와 천안함처럼 해군들이 죽었을 때 누가 구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RCY 단원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좋은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안 믿고 나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서른세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앓은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사람은 눈뜨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총각으로 서른세 살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바고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였고, 장가를 가시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신 가장이셨습니다.

다. 그래서 나중에 도를 닦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쳤습니다. 세상의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다 헛된 것인데, 마음을 잘 닦아서 도를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공연히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연히 걱정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히 다스려서 풀어 나가면 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왕을 포기하고 도를 닦아서 남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왕 자리를 버리고 부인과 아들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RCY와 비슷하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양동우회에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호회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RCY는 별로 없었는데 수양동우회는 많았습니다.

RCY 활동은 글로벌 휴머니티 리더십을 형성하는 모임입니다. 지구상의 인도주의적인 리더십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십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회 수가 많은 노래입니다. 싸이는 내셔널 싱어가 아니라 글로벌 싱어입니다. 또 김연아 언니는 피겨스케이터입니다. 그러나 내셔널 피겨스케이터가 아니라 글로벌 피겨스케이터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삼성, LG의 스마트폰은 한국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

들이 사용합니다. 세계 판매가 1등이 삼성, 2등은 애플, 3등은 L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 삼성, LG 스마트폰은 글로벌 상품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현대기아자동차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글로벌 리더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장미란 선수는 고양시청 출신으로 세계신기록만 네 개를 달성했습니다. 최나연 골프선수도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코리안으로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RCY는 코리아의 RCY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RCY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RCY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 RCY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RCY의 지도자를 넘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군포 수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군포시에는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까지 가서 배웠습니다. 군포는 스케이트장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매달을 땀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군포 수리고 안에서 스케이트장도, 스케이트 선수도, 친구도, 코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연아 언니 둘이서 스케이트 해 보자 해서 과천 스케이트장에 가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스케이트장도 없는 군포에서 세계 글로벌 선수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세계 피겨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같이 스케이트장이 많은 나라에서 우승한 게 아니라, 스케이트장도 없는 곳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고등학교 때 외국에 훈련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도 예산으로 밀어줬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수가 됐습니다. 스케이트장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데, 엄마와 둘이서 어떻게 세계 최고 선수가 됐을까요.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굳은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터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안 세우고, 스케이트장도 없고, 코치, 감독, 친구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과천까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RCY입니다. 다들 얼굴만 예쁘고 몸 건강하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RCY를 통해서 남에게 봉사하겠다는 뜻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것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나중에 시험 봐서 내가 돈 벌고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글로벌 휴머니티 리더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없으면 못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랭귀지,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글로벌 리더

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언어도 잘 알아야 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판자촌에서 7남매가 살았습니다. 그중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감히 대학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대학 갈 생각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밥을 못 먹었습니다. 과외도 못하고, 전깃불도 없어서 호롱불 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까지 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에도 판잣집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을 보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 두 번 쫓겨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동안에 교도소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7년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흔네 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데모를 하다 잡히고, 제적을 당해서 공부를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하고 도지사를 두 번 했습니다. 지금 도지사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일을 하고, 도지사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RCY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어려운데 제가 계속 당선된 이유는, 제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도와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뽑아 주고 제가 도지사가 됐습니다.

평택시장님은 시험을 잘 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공부를 잘해서 됐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잘해서 들어왔습니다.

대학은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쳐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시장이나 교육위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거를 해서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찍어 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쳐서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장 선거를 통해서 반장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반장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시험을 잘 쳐서, 선거를 통해서 예수님, 부처님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남의 어려움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마음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선거를 잘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훌륭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혼하더라도 깨끗하게 더 잘 자라야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했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해도 휩쓸려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해서 세계 성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저들이 나를 몰라서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억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RCY 봉사단은 그런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될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도, 돈 많은 사람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자살하지 말고 도망가서 잘살면 됩니다.

적십자의 정신은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하는 정신이 적십자의 정신입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말려야 합니다. 스위스의 앙리 뒤낭이 150년 전에 적십자 운동을 제창했는데 그 정신은 매우 훌륭한 위대한 정신입니다.

RCY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북한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절망하는 친구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희망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RCY를 저는 사랑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저도 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청중과 질의응답 >

질문

첫사랑은 누구입니까?

답변

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못살았는데, 집 옆에 극장집 딸이 있었습니다. 주인 딸은 이층집에 살고 저는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가 나서 창문을 보면 신데렐라 같은 소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짝사랑했습니다.

질문

지사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나요?

답변

가장 힘든 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같이 어린 친구들이 자살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창창한데,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 그러려는 친구 있으면 도지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질문

도지사님의 이상형이 있다면 그 이상형과 비슷한 연예인은?

답변

배우 안성기 씨와 가까운데, 그분과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최은희 씨가 있습니다. 걸그룹 중에서는 소녀시대가 경기도 홍보대사인데 윤아가 가장 좋더라고요. 예쁜 딸 같습니다.

질문

체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체대에 가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답변

경기도에 있는 용인대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용인대 회장님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선수 출신으로서) 최초입니다. 경기도 체육이 전국체전에서 11연패를 했습니다. 용인대 학생들이 메달을 많이 따고 잘하고 있습니다. 용인대, 경희대, 경기대 모두 좋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많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질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나요?

답변

도지사라는 직업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깊이 있는 책, 성경, 불경, 논어 같은 고전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을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막 넘기는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좋은 고전을 깊이 있게 죽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논어나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중학생 정도는 충분히 고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틀려도 좋은데,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체력도 최고, 지성도 최고, 감성도 가장 풍부한 나이입니다. 친구도 좋아하고, 이성의 관심도 있고, 지성과 체력, 모든 감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절대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고등학교 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좌절해서 죽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

지사님도 애니팡을 아시는지?

답변

알지만 애니팡은 많이 안 합니다. 손자가 있어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것을 주로 합니다. 어른들이 여러분 같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 너무 예쁩니다.

안보체험교육

일시 2013년 4월 8일 해군 2함대 사령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을지문덕함에 우리를 승선하게 해 주신 함장님 외 2함대 사령부 사령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 군 단체장 및 각 직장과 대학에서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국방 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전 세계 뉴스에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수출과 성장을 및 내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가 정체성과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근혜 대

통령이 취임하신 이후 아직도 조각을 다 맞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합의나 청문회 과정 등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국민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이 어느 선인지, 대통령의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또한 불우했습니다.

이럴 때 충분한 리더십과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국민의 합의와 단결이 없으면 이 나라의 존립이 어렵습니다.

국방 안보에 있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계속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리더십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각 기관, 여야, 집행부와 입법기관 등 모두가 국방 위기 중에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오늘 2함대 사령부, 특히 을지문덕함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지방과 중앙, 집행기관과 의회, 언론과 행정기관이 따로가 아닌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국방 안보를 위해 하나로 단결되는 것이 최고의 국방력입니다.

최근 한미동맹을 굳건히 잘 유지해서 B2, F22 등의 신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반도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중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북 핵실험을 UN 결의에 동참시킬 수 있고 우리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하는 외교 역량이 국방 안보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있는 가운데 국가적 리더십을 하나로 단결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기업, 각 단체장이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일시 2013년 4월 9일 중소기업지원센터

지금 우리나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국방 안보의 위기입니다. 매일 들으시다시피 북한이 개성공단도 폐쇄하겠다고 하고, 미사일과 대포를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핵을 개발해 핵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핵 한번 터뜨리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일본 왕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한독립군의 수는 한 개 대대도 안 됐지만 일본은 약 700만 이상의 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일본이 중국 대륙, 만주, 필리핀, 미국의 하와이까지 가서 진주만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막강했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미국이 낸 전략이 소련과 손을 잡는 것

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공산주의와 손을 잡아서 일본과 나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마침 핵이 개발됐습니다. 핵 한 번 떨어뜨리니 끝장이 났습니다. 주변이 다 녹아 내려가고 엄청난 열과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폭풍에 의해 주변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간 그 피해가 지속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용산 미군기지에 핵을 폭발하면 최소 20만에서 60만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결코 간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군사 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해군 을지문덕함을 타고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우리의 해군 잠수함이 절대 부족하다더라고요. 지난번 천안함처럼 어뢰에 의해서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탄저균, 콜레라 등 여러 균을 넣어서 터뜨리면 주변이 감염이 돼서 참혹하게 죽습니다.

우리도 고성능의 생화학무기가 있었는데 다 없었습니다. 북한, 시리아만 갖고 있었습니다. 생화학무기, 잠수함 등에 있어서 북한과 우리가 비대칭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비대칭의 문제점은, 북한은 국론이 통일돼 있지만 우리는 국론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론 통일이 안 될 뿐더러 국가의 리더십도 분열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임에도 그 법을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관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완전히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는 분립돼 있습니다. 삼권 분립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이 있습니다. 행정부 안에서도 노동부, 국방부, 환경부 등이 모두 따로, 부서별로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나뉘고, 집행부와 국회가 나뉘고, 국회와 사법부가 나뉘고, 언론도 나뉘고, 기업도 나뉘어 있습니다.

분권은 장점이 있지만, 위기 대응 능력은 약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자 아빠, 엄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빠가 독재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 시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신속하게 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CEO 리더십이 있는데 대체로 독재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강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분은 천재지만 어머니가 미혼모였고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집도 굉장히 어려워서 생활 형편이 힘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6개월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CEO 리더십이 수평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CEO가 별로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위기 돌파 능력은 독재가 더 강합니다. 조금 모순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들 합니다. 쿠데타, 유신, 3선 개헌 등 강력한 독재를 하면서 경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우리 역사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데모하고 좋은 것 다 받아들이면 사회는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박정희 스타일은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데, 일제 식민지 보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지었습니다. 월남전에 장병들 목숨을 바쳐서 나온 봉급의 반 이상을 떼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식민시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반으로 잘라서 대규모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독재적인 권력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이것에 대해 떠들면 집어넣어서 노조운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 민주주의 시대가 와서 소송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속 경제성장은 가고 저속 경제성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장이 작년보다 GDP 1% 떨어지면 경기도 세금이 2,500억이 줄어듭니다. 작년의 성장보다 2% 떨어지면 5,000억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안 걷히면 중소기업 지원도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지원도 하고, 애들 밥도 먹이고, 아픈 사람 치료도 하는데, 세금이 안 걷히고 있습니다. 저속 성장의 문제점은 세금이 안 걷히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20년 이상 저성장을 하다가 아베노믹스 시대가 왔는데, 한마디로 돈을 푸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

납니다. 월급쟁이는 봉급은 똑같이 버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일본은 20년 이상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디플레이션이라 해서 물건 값이 자꾸 떨어집니다. 물건을 사제기할 필요 없고, 돈만 갖고 있으면 며칠 뒤에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5억 하던 것이 올해 4억 9,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일 년에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자꾸 떨어지니까 집을 사지 않습니다. 전부 전세만 삽니다.

경제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아베가 6년 전에 취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풀어서, 소위 몸이 허약해져 있는데 단백질 주사를 맞혀서 일시적으로 힘이 붙게 하는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이 되는데, 일본은 엔화가 세계 중심 통화가 아니니 어렵습니다.

우리도 원화를 한국은행에서 찍어 봐야 국제적으로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제 수단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방 안보의 위기, 경제 위기가 동시에 있고, 이것을 동시 수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화성 공장 반도체 두 개 라인을 짓는데, 한 개 라인이 15조로 첨단 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 라인이면 30조인데, 투

입해서 공장을 짓고 한 개 라인에 3,000명이 3교대 작업을 합니다. 두 개 라인이면 6,000명의 직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회의한 결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시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기업하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땅도 더 싸고, 인건비는 조금 비싸지만 거의 비슷하고, 세금은 거기서 더 많이 깎아서 기업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불산 사고만 해도 환경부가 조사하고,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경기도에서 조사, 도의회에서 조사, 국회의원 조사, 주민, 언론에서도 와서 조사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장에서 죽은 사람도 물론 보상을 많이 했지만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어도 겁이 난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한국처럼 피해가 많지 않고 미국의 환경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덜 까다롭다더라고요. 한국의 환경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환경은 너무 까다롭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니, 차라리 미국에 가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애플도, 공장은 미국 본토보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도 미국에는 공장이 별로 없고 이스라엘, 대만 등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 대기업은 세계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이나 중국의 서안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다 나가면 과연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세 금도 그 나라에 냅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대기업을 때리면 대기업이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이기에 해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개방 경제, 글로벌 오픈 경제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할 때, 대기업 이야기를 하면 신물이 난다더라고요. 귀어짜는 게 사실 많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워낙 많아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해서 때리면 전부 다 밖으로 나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해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특히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벤처,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연구나 새로운 품목에 지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부의 추경이 20조인데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정부도, 시군도, 道도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경기도는 일 년에 14조 정도를 쓰는데 주택 거래세가 세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세금이 잘 안 들어와 도와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금종례 경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없어서 도와 드리는데, 양이 별로 안 됩니다. 정부에서 20조 추경을 해도 삼성전자 두 개 라인의 30조 규모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쓰는 돈은 대체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

들은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사람들 도와 드리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정부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를 먼저 도와 드리는 것이 원래 정부의 기능입니다. 원리 자체가 정부는 대기업부터 먼저 도와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기술과 판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벤처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경기도도 몇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과연 어디로 그 돈이 가겠습니까. 받는 곳은 소수일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수출·수입이 세계 최대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고 내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전부 수출합니다. 내수를 위한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한 식당이 잘되면 다른 식당이 잘 안 됩니다. 내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호텔, 식당, 기념품, 전자제품, 화장품, 술, 정도가 팔릴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쉽게 풀어내지 못합니다.

첫째, 한국 경제에서 큰 애로가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학 나온 사람도 실력이 아주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채용 후에 다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대학생들도 그것을 아니, 졸업을 안 하고 휴학을 합니다. 인턴을 하고 졸업을 늦춥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도 늦고 결혼도 늦춰집니다. 그러니 애를 낳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출산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보다 더 발전해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미국 가서 개업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의사가 약 18,000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픈 사람들을 화상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암 수술, 척추 수술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싸고 잘합니다. 의료보험 체계도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로 젊은이들이 의과, 간호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의료 정원을 통제합니다. (의과대학 졸업자가) 많이 나오면 과잉 진료가 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간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제약 회사나 연구 분야로 많이 가고,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합니다. 의사들도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고도 공과대학도 안 가려고 합니다. 가려는 사람에게 길을 터 주는 것이 정부 경제 정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변호사들은 변호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기 때문입니

다. 변호사는 한 번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큼 좋았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턱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중에 의료, 보건, 복지, 제약 분야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를 보러 오고, 그곳 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수술 방에 직접 들어가 참여해 보기도 했습니다. 수술 방에 가서 보니 러시아, 독일, 미국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료인들이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의 환자가 더 늘어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어려운 병이 많습니다.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와 노인 관계의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어린이가 가는 소아과나 산부인과도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도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로 평준화돼 있습니다. 개인 사립학교는 다양화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도 기술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돈을 많이 받아서 없는 사람들은 장학금도 주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산업, 대표적인 사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영어, 한자 교육도 많이 시켜서 세계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도 값싸게 영어 맞춤 교육을 받으려면 한국에 유학 가야 한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비싸서, 영어 배우러 필리핀으로도 많

이 가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도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영어 배우러 싱가포르나 홍콩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더 값싸게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경기도도 영어마을이 있는데 의회에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손님을 받으면 국내 학생들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주 영어마을에 가면 최고의 시설로 매우 잘해 놔습니다. 하버드대보다 더 잘 지어 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가의 반도 안 되게 받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영어강사를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 세계에서 가장 값싼 최고의 영어 교육을 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 우리 송산 그린시티 화성 시화호 매립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국유지인데, 제가 대통령이 라면 무료로 땅을 빌려 줄 것입니다.

싱가포르도 우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계획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2년 전에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도박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받아서, 그 땅을 60년을 빌려 주고 카지노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가서 하룻밤 잤는데 매우 좋더라고요. 가장 큰 집은 대저택 같더라고요. 정원도 있고 야외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하루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워낙 넓은 부지입니다.

싱가포르 땅 넓이가 서울보다 작습니다. 경기도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에서, 좋은 호텔과 관광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산과 계곡이 있고, 숲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매우 좋습니다. 이것을 왜 버려둡니까.

이런 땅에선 관광 산업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클린 시티'에서 이제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편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깨끗한 도시에서 이제는 재미있는 도시로 바꿨습니다. 미국의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담배 피우고 버리는 등 말 안 들으면, 곤장을 때리고 미국 의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부장적인 엄격한 클린 시티로서 아시아 최고의 청렴 국가입니다. 부정부패도 없고 공무원 월급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작년에만 관광객이 1,200만 이었습니다. 우리는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싱가포르 넓이가 남한의 100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앞으로 국가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입니까. 만약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집중 양성하겠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관도 못 뽑고 심각합니다. 신속하고도 명확한 비전을 갖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외국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그 이유가 머리가 좋고 눈치도 빠르고 부지런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 점이 희망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군포 수리고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김연아가 자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전지훈련비를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군포에는 스케이트장이 없고, 코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선수가 둘이서 과천으로 스케이트장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맨땅에 헤딩을 해서 세계의 전설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1등을 해서 기록적인 점수를 얻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도 저도 집사람도 울었습니다. 한국의 우리 딸이 피겨스케이트 1등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의 딸이 피겨스케이트 해서 서양 요정 같은 아이들 다 제치고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어린 친구가 스물도 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것을 해냅니다. 이게 한국의 정신입니다.

삼성이 소니와 애플을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새마을 대회를 화성 행궁에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60개 나라에서 왔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는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성공은 손에서 나옵니다. 과거 가발과 러닝셔츠 등을 만들었고 지금은 반도체·LED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마음먹고 손대면 세계 1등이 됩니다. 싸이가 말춤을 추듯, 한국인이 하면 세계 신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의견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국론을 모아야 합니다.

며칠 뒤에 제가 남미에 갑니다. 미국을 들렀다가 가는데, 한 번 가는 데만 서른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비행기를

조금 타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와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협약식을 갖고 사인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방문하기를 위해서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24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습니다. 독일 40%, 스웨덴 30%, 미국 60%입니다. 우리는 반값등록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다 대학을 나오니 쓰레기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물리 전공을 한 사람이 아침에 도로의 쓰레기 청소를 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은행장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돈을 세면서도 늘 웃는다더라고요. 웃으니까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이제 20대 초반인데 빨리 결혼하면 아이도 빨리 낳고, 손님이 오면 즐겁습니다.

대학의 박사가 돈을 세고 쓰레기를 쓸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등입니다.

남들은 모두 '원더풀 코리아'라고 합니다. 기적과 성공과 놀라운 성장을 다 봅니다. 남미의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과거 코리아타운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은 남미에 농사지으러 오던 못살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사는 것은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베로아메리카 교육 담당자였던 그가 얼마 전에 컴퓨터 입찰을 하는데, 교육용 컴퓨터에 전부 삼성과 LG가 입찰됐다고 하더라

고요. 가격도 가장 싸고 품질 좋고 A/S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 보니 놀랄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놀고먹고 하는데, 한국은 매우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는 원래 잘살던 나라이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코리아는 매우 못살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면서,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용광로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천지진동할 에너지가 폭발 직전까지 왔는데, 이 힘을 리더십으로 창조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CEO의 리더십입니다.

북한도 김정은이 나이가 서른도 안됐는데 3대 세습으로 벌써 왕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남북이 긴장하게 되고, 주가·환율·수출에 직격탄이 올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 남미의 패션 업계의 95%를 코리안이 다 장악합니다. 이민 왔던 농업인들이 이제는 장사를 다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바시장, 패션을 다 장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듭니다.

기독교는 이 작은 나라가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 전 세계를 태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손재주도 최고고, IQ도 최고, 부지런하기도 최고입니다. 팀워크도 잘됩니다. 이것을 올바른 리더십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북한은 굶어 죽어도 단결하는데, 이게 코리안의 속성입니다. 리더십의 좋은 긍정적 발전을 통해서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류는 못 꾸미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단, 대가를 주면 저는 죽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류 꾸미는데기가 막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밑의 가시를 빼자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군수나 도에서 더 잘 알고 잘 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더 큰 국정 문제에 치중해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잘 모릅니다.

미국 텍사스대학 UT 프로그램(경기도-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UT 프로그램에 합격이 되면 텍사스 출신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맥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경기 맥이 최고의 맥입니다. 이 맥을 잘 타고 잘 활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세요.

홍기화 사장은 중소기업과 현지를 잘 알고 외국도 잘 압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상해도 잘 압니다.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 다 도와드릴 수는 없더라도 정성껏 듣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것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벤처 창업 기업의 꿈을 갖고 머리를 짜고 땀을 흘려서 잘해 보자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아시스가 되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과의 간격을 좁히고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대한 질문은 120으로 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좋은 기회가 많이 오는데, 성공과 기적을 만드는 것은 CEO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초청특강

일시 2013년 4월 11일 안성 한국폴리텍대학

여기 경기도립 안성병원이 옆에 있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도립병원장도 여기 같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기술학교가 있는데, 그곳과 이곳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큼니다. 여러분 나노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나노센터가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만드시더라고요. 힘드셔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드와 모델링 작업도 있으시던데 누가 잘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캐드는 평면, 모델링은 3D 입체 설계군요. 스마트 소프트웨어 전공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앱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일이군요. 영상그래픽, 패션디자인 등 최첨단 교육이 있군요. 우리 경기도 기술학교는 용접, 자동차 수리 등 좀 과거의 교육을 하는데 매우 비교됩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어서 밥을 못 먹고 자랐습니다. 중고교는 대구로 유학을 와서 자취 생활만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 와서 생겼습니다. 공부가 재미없고, 그 공부가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 들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제적당하고, 이후 민청학련 사건과도 관련돼 수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마흔네 살에,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2년 6개월 있었고, 공장을 7년 다녔습니다. 미싱, 재단, 다림질도 하고, 완제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또'라는 것도 들어 보셨습니까. 똑딱단추를 다는 걸 또또 작업이라 하는데, 그것도 했습니다. 23살에 아동복 공장에서 일하는데, 또또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사장이 어느 날 오더니 그만 다른 공장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의 근로자들은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이 든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엔 자동차 정비를 배웠고, 보일러 관리공도 했습니다. AAA 지퍼 공장과 도루코 먼도날 공장의 보일러공도 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환경관리기사 자격증도 다음으로 땀고, 다음으로 위험물취급, 전기안전, 전기기계 자

격증 등 기능사 자격증도 5개를 땀습니다. 청계천에서는 한 달에 1만 원을 받았는데 자격증을 따니 5만 원을 받게 땀습니다. 아주 잘나가는 기능사가 된 겁니다. 제가 다녔던 공장은 지금 고척교도소(영등포) 앞에 있었는데, 5만 원이면 출퇴근을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게 땀습니다. 제가 공장 다닌 3년 동안 봉급이 제대로 나온 달이 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1980년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정부에서 저를 잡아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려고 땀습니다. 수배가 돼 도망을 갔고, 그 때 나이가 서른이었습니다. 칫솔을 안주머니에 하나 넣고 친구 집을 찾아가 떠돌며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루 묵으면 친구가 다음 날 아침, 수배된 저를 숨겨 줘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친구 부인이 저를 숨겨 주는 걸 너무 무서워 해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숨겨 주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찾아가는 친구들마다 하루 이상을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구로공단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순천여고를 나와 대학 시험에서 떨어진 뒤, 서울로 올라와 키보드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땀습니다. 기존 노조위원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집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땀습니다. 노조위원장 회의 때 집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결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저에게 퇴짜를 땀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잡혀 교도소에 들어갔고, 석방 이후 계엄령에 다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지금 집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마포 골목 구석에서 집사람 여동생들이 빵집을 했는데, 거기 다락방에 숨겨 줘 머물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몇 달을 묵었고 계엄이 해제돼 자유롭게 됐습니다.

저는 이후 책방을 했고, 형사들의 감시도 계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집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공장 생활에서 모았던 새마을금고의 적은 돈을 찾아 식을 올렸습니다.

집사람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님이 계시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단칸 셋방을 얻어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방안이 너무 추워서, 요강이 뽁뽁 열고 우리 딸애기 손이 뽁뽁 열었을 정도였습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때라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추워서 아기랑 셋이서 꼭 껴안고 잤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느낍니다.

그 방에 살다 저는 또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1986년 서대문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목포교도소, 광주교도소를 돌며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면회가 안 됐습니다. 오직 집사람만 가능했습니다.

집사람이 면회 오면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를 한 번은 데려왔습니다. 딸이 면회를 왔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팔던 삼백 원짜리 과자를 사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작은 종이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딸아이에게 쥐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시집가던 29살에, 24년 전의 종이자동차를 꺼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었

던 시절의 종이자동차, 그걸 보관했다가 돌려주더라고요.

너무 못한 아빠죠.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주던 우리 딸. 지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사위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둘 만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제가 묻길, 그 남자를 사랑하느냐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돈보다 화목한 게 우선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폴리텍대학 졸업한 뒤 거의 취업을 합니다. 사실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예능 나온 사람 90%는 직업이 없습니다. 비보이(B-Boy), 영화·연극인 대부분이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하면 우리 딸과 사위보다 더 봉급도 많이 받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렵고 배고프고, 교도소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배고파하기보다는 식사를 조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기 군포 출신 김연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군포에 스케이트장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피겨스케이팅 여왕이 됐을까요. 스케이트 선배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둘이 손잡고 과천, 목동, 태릉링크장에 가서 원정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지사로서, 김연아 선수가 전지훈련 갈 때 비행기 샅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이 없더라도 엉덩방아

짙으며 엄마와 세계 일등이 됐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세리, 최나연, 세계 일등이 수두룩합니다. '강남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싸이가 세계적인 음악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세계 일등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해냈습니까. 바로 여러분처럼 스마트 소프트웨어, 캐드 모델링을 열심히 공부해 온 선배들이 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젓가락을 오래 써 와 손 근육이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제조업도 잘하지만, 의료 수술도 매우 잘합니다. 일본, 중국도 젓가락을 쓰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쉬운 나무젓가락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마음먹으면 뭐든 해내는 패기도 갖고 있습니다. 팀워크도 제일 좋은 게 한국인입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팀워크가 좋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뛰어납니다. 예술, 스포츠, 뭘 하든 남성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위대한 건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김연아를 만든 김연아 어머니도 그렇듯, 어머니의 힘은 위대합니다.

또한 한류의 뿌리는 기능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 기능대회도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든 최고 실력입니다. 기능 덕택에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경제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류의 꽃은 '대장금', 싸이, 김연아인데, 그 줄기는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들입니다. 그 뿌리엔 바로 여러분 기능, 기술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있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위에 싸이, 소녀시

대의 화려한 꽃이 핀 것입니다. 꽃 밑의 줄기와 뿌리는 바로 여러분의 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역사, 저력, 성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 역시 기능사 자격증, 기술 자격증을 항상 내놓고 빛을 받습니다. 저는 학사도 간신히 마흔네 살에 졸업했지만, 20대 때부터 기능사·기사 자격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세 번, 도지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장수 관찰사입니다. 박사도 석사도 아니고 기능사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고등학교만 나왔고 저와 만나서 잘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 나왔나요? 낱자마자 버려지고 입양됐습니다. 아빠는 중졸, 엄마는 고졸이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창업해 애플을 만들어 냈습니다. 페이스북 저커버그도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 아내와 자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팔에 안겨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또 운동하고 잘리고, 결국 제 딸이 6학년 돼서야 제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받아 어머님 산소에 놓고 절을 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마음의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좋은 딸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폴리텍대학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일시 2013년 4월 11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로 첫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GDP 성장이 1% 떨어지면 경기도 세금의 약 5,000억 이상이 적자입니다. 도세 중 부동산 세수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세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방 안보의 위험입니다. 경기도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 DMZ, 육해공, 미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시 서해 5도를 빼고 취약지인데 특히 서울이 취약지입니다. 개성, 파주, 고양 단거리와 6·25 때 있었던 의정부, 철원, 동두천이 축선입니다. 서울의 육로 상 축선은 모두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 서울을 방어해야 하고 병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국방 안보를 빼고는 사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방상 중요한 지점입니다. 개성도 경기도에 속합니다. 경기도는 국방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경기도에는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과 경기도가 수출 1, 2위를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비율이 보통 (전국의) 5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뚝 떨어졌습니다. 국가 주도의 LH 신도시 택지 공사가 경기도에만 100개가 넘는데, 부동산 침체 상태이기에 일자리, 식당이 모두 절벽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 국방 안보, 수출·일자리, 부동산 세수의 위기는 우리 道로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8할은 중앙의 권한이고 2할 자치만 지방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절반 이하는 경기도, 나머지는 시군이 차지합니다. 전체 100% 중에서 7%의 역량만 도가 미칠 수 있고 나머지 13%는 시군이, 나머지 80%는 중앙이 갖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제 나름대로 구상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도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투자 유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가장 큰 이유가 노사관계 때문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으면 해고해야 하는데, 그냥 해고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노사 조정 제도도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겪어 본 외국 기업들의 고통이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 곳이 싱가포르와 대만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외국 기업을 많이 뺏겨 버립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에 경기도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화성에 두 개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한 개 라인 당 약 15조 이상을 투자해서 한 라인 당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두 개 라인을 합치면 30조 원으로 약 6,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산 사고로 매우 시끄러워졌고 너무 시달려서, 미국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려면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화성시, 노동부 등이 전부 협조를 해야 합니다.

요지는 국내 기업이 지금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SK도, 한화도 지금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해 있는 SK 하이닉스만 해도, 회장이 구속돼 있으니 투자 결정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로서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요한 투자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에 경기도는 매우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통과만 된다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축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부분은 국회의 법만 통과되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나머지 수출 부분은, 북한 요인만 잠재적으로 안정된다면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도 지금 원만한 상태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만나 보면 '한국에 왜 들어가냐, 몸조심하라, 전쟁 조심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또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노사민정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고칠 건 고쳐서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진주의료원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도립병원이 6개가 있는데, 진주의료원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도립병원에서는 일반 병원이 하지 않는 노숙인, 장애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시켜 주고 무료로 치료해서, 일단 적

자가 나더라도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민정 협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적 개선을 해야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고속 성장에서 저속 성장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침체 문제는 일본과 가장 비슷하고 지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위기감이 굉장히 큼니다. 큰 사고가 안 날 정도로 협력해서, 없는 살림에 원만하게 노사민정 관계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력, 잠재력이 이미 소진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복지비용이 계속 높아지는데 이것을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계속 빚을 내서 할지, 해결 방안을 내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일시 2013년 4월 12일 경기도청

오늘 이렇게 각 시군에서 오신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을 뵈니 폭우, 산사태, 태풍이 있었던 지난여름이 생각납니다.

태풍이 불고 길이 끊어지고 침수가 돼서 고립이 되면, 누가 구하러 가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나서지만 그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용감한 사람들, 군인, 경찰, 소방관, 해병전우회, 그리고 여러분, 자율방재단이 앞장섭니다.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 나라에 상관없이 세계 어디라도 도우러 달려가십니다. 일례로 지난 일본의 대지진, 태국의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자율방범은 위기 시 스스로 나섭니다. 이렇게 회장도 잘 뽑고 조직 체계를 잘 잡아야 위기 시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위기 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을 돕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살고자 하고 남을 돕는 정신이 없다면 자율방범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기 시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훌륭한 방재단원들이자 위기 도우미입니다.

작년까지 기록상 635회의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기록 이상으로 더 많이 위기 시에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직접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정신 자세로 자율방재 활동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최전방에 위치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매일 핵무기를 터뜨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대포를 쏘면 떨어지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국방 안보상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율방재단연합회를 만들어 나서는 것에 우리 도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최우선으로 여러분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업무협약식

일시 2013년 4월 15일 경기도청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모시기 위해서 카네이션하우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영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님은 여러 국정 및 행정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이십니다. 여러 면에서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생활고와 질병을 비관해 자살하시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살하는 일 없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잘 모시는 것이 국가적 책무이자 가정의 책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선 제도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많습

니다. 따로 특별한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일본이나 고령사회의 경험을 살피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정책이 매우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오늘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작은 사업이지만 어르신들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입니다.

농협 조재록 본부장님 외 여러 조합에서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양, 이천, 여주, 가평, 연천 등 여러 지역에서 카네이션 협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대한민국의 어르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 상태에서는 절대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빈곤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비롯해 저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계기자단 초청 투자설명회

일시 2013년 4월 17일 라마다호텔

저명한 세계 기자협회 여러분,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심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방문하셨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기아자동차와 LG전자 등, 여러 글로벌 회사들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긴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으로 북한군의 도발은 점점 약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평화 선언을 공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숭고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스턴 ·

맨해튼 폭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DMZ를 방문하실 때, 접경 지역 반대편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를 방문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즐기시고, 머무시는 내내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일시 2013년 4월 25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오늘 특별히 많은 돈보따리 가지고 경기도를 찾아 주신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님, 장영철 사장님 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재율 중부일보 사장님 등께서 공동 행사를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 도의원님들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친척이 못 갚는 바람에 판잣집에서 살면서 10대 생활을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보증을 서지 마라'였습니다. 저와 제 주변인들이 빚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면 사는 것을 봐서, 평생 저는 빚을 지지도 빚을 내 주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 2012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이 무한돌봄 서민 지원에 협의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다른 공무원이 일하는 창구는 별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서민금융 지원창구는

늘 사람이 만원입니다. 인기가 최고여서 제가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서민들의 빛은 그야말로 가정과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사회와 고립시키는 길입니다. 제 주변에서 무한돌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빛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도망 다니고 위장 이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고 은행에서 나서 주신 덕에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노숙인들을 만났는데, 노숙인 200여 명 중에게 무한돌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95% 이상이 이 제도를 잘 모릅니다. 경기도민들도 5년째 하는 이 무한돌봄 사업을 아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금융은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이 긴 서류를 다 읽어 보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알리고, 이분들을 손잡고 데려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 은행을 잘 아는 사람들만 혜택 받으려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오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찾아가 창구까지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우회

일시 2013년 4월 26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반갑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왔는데, 시애틀 코스트코 본사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입구에 가전 매장이 있는데 삼성 제품이 거의 80%, 그다음 LG가 있었습니다. 파나소닉과 대만 제품이 조금 있고, 나머지 소니는 없더라고요. 소니가 왜 없냐고 물었더니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파는 곳 보니 삼성이 거의 80%이고, 미국의 블랙베리와 LG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도 없더라고요. 애플이 없는 이유는 많이 찾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또한 포장된 김을 많이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김을 요즘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김의 품질이 좋아서 우리 것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 기술 융합, 자본 유치, 문화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 경기도는 가평군수 선거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국회의원들의 권한에 상당한 위협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선거 체도를 볼 때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성공단에 대해, 오늘 오전까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폐쇄되지 않겠느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이 폐지돼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경우 없는 행동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경기도 기업이 많이 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획기적인 발표를 했고, 경기도는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이 지체되고 있고, 여러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고 신속하고 획기적인 부동산 제도 개편을 통해 최소한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신속하게 합의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보다 너무 악화되지 않는 합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랍니다. 설사 일부 완화 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성장률이 8분기 연속 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일본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23년 간 저성장을 하다가 최근 아베노믹스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8분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 의사결정 지체, 기업들의 투자 기피로 국내 기업들도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이 절대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외자도 들어오지 않고 국내 기업도 해외로 나간다면, 결국은 과연 무엇으로 성장을 이룰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위협 중에는 북한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심각한 갈등과 의사결정 지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이상으로 저성장과 장기 침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셨다시피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에 기숙사나 식당 하나 만드는 것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린벨트는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제는 주택이 모자라는 시대가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그린벨트를 풀든, 농지를 풀든 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와 상관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환경을 선택하든 일자리를 선택하든 과감하게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저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팔당댐에서 축산과 같이 전통적으로 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산업은 계속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도 최근에 무조건 단속해서 문 닫게 하고 이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폐수를 방류하는 기업은 이전해야 하지만,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 기업도 무조건 몰아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물을 깨끗이 하고 더럽히지 않는, 물과 상관없는 기업은 팔당 지역에 허용해야 합니다.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군사 부분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상관없는 군사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과감히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그린벨트 몇 평 푸는 것조차도 일일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현행

제도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아울러 新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관광,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에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미래 산업인 새만금, 서해안의 시화호, 화성호에도 땅이 5천만 평 이상이 있습니다. 과감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미래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과천도 그렇습니다. (정부청사를) 옮기고 나서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기 위해 과천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도 일본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노사 간에 과감한 대타협을 이루어 일자리를 늘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켜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위상에 와 있고 어떻게 침몰하고 있는지, 냉정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정책만 펴서 시간을 지체할 때, 중국도 일본도 전 세계가 기다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일대 대혁신과 대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기도부터 솔선수범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진 미진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지도자분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일시 2013년 4월 29일 경기도청

먼저 한국노총 허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이런 것을 하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관공서,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 자체가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및 주도를 해 주신 허원 한국노총 의장님 외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기 시에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심하게 주변을 살피고만 있으면 위기가 불행으로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 있게 헤쳐 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의 위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위기, 국내 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돌리는 위기,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허원 의장님 외 한국노총 노조 지도자들께서 늘 평소 노사관계를 원만히 이끌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道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경기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한국노총이 중심이 되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하자고 결심하고 합의문에 선언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0분 전 국가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세 분의 노사정 공동 회견문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하려는 취지와 같습니다.

이런 일은 국가가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아무도 눈치 본다고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이 일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욕을 먹더라도 먼저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우리보다 30분 먼저 빨리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느끼는 점은 첫째, 모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노조도 할 수 없고 오직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창업이든, 투자든, 확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이유는 노사관계가 불안하

고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이 먼저 주도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업이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둘째, 노조에서 가장 선호하는 말씀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인데,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월급만 올리려고 하고 걸핏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노조의 협조 없이는 비정규직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조합 스스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가장 어려운 비정규직자나 실업자와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조가 중심이 되어 이것을 선도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돌아볼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긴데,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봉급을 줄여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일은 적게 하고 봉급이 똑같다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직한 노동 문화, 직업윤리를 주도하는 것이 노조이지, 사측이 강조할 일이 아닙니다.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분들은 다른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심보다 높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셨습니다.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도해야 합니다. 보육 문제,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과 교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근로 장학금을 줘야 합니다.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게 대폭적인 장학금을 줘야 합니다. 일과 교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 베드타운이 많은데, 일자리와 집이 멀리 떨어져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와 주거가 서로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대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한국노총의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지 위주로 협력하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희생과 헌신을 하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노동조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장과 일터가 일할 만하고, 그곳에 복지와 교육의 기회가 있고, 주거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부, 각 기관, 공공의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허원 한국노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일시 2013년 4월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님 외 노총 조합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님의 주도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을 했습니다.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님,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님, 호금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님 등이 주도하시고 박남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합쳐 일자리를 더 만들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고 창업하고 확장하도록 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노총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전국 최초로 주도한 한국노총 허원 의장님 외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일과 교육이 양립해야 합니다.

전부 대학만 간다면 일은 누가 가겠습니까. 일할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장 근로자들을 최우선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셋째, 일과 주거가 조화돼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직장이 더 가까울 수 있도록, 앞으로 생기는 신도시 안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집만 짓는 정책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투쟁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화와 타협과 소통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투쟁 전에 대화하고, 기업도 노동조합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미국에 다녀왔는데 한류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류의 뿌리에는 바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TV, 냉장고, 핸드폰, 옷 등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어 한류의 중심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십니다. 귀하고 높은 가치를 만드는 창조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주인이지 회사의 비판자로 서면 안 됩니다. 사장만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회사의 주인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정도 지키고 교육도 잘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파트너로서 정계, 각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부의 모든 분들이 도와 드려야 합니다.

회사의 주체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체로서, 한류의 주인공으로서, 위대한 창조자로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에 박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워크숍 초청특강

일시 2013년 5월 2일 안성능률협회 연수원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많으시죠? 여러분들 의소대원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둘 모두 자랑스럽지 않으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나라로 가든지, 나라를 바꾸든지 하면 됩니다. 북을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뭐라 합니까. 그렇죠, 중북이라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잘못된 나라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반대로 자랑스러운 분이라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가요. 이승만 대통령보단 박정희 대통령이 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네요, 여러분들 보면.

대한민국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는 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습니다. 식민지 이후 3년간 미군정이 우리를 통치하다 1948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첫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북에는 무슨 나라가 섰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김일성이 세웠습니다. 북의 대표는 김일성, 남의 대표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이승만이 세운 건지, 누가 세운 건지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훌륭한 의용소방대가 됩니다.

의용소방대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여러분이 제복을 입으신 것입니다. 제복은 개인이 입는 양복과 스커트와는 다릅니다. 의용소방대라는, 119라는 공식 복장을 입고 계십니다. 공공의 복장을 입고 계신 여러분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도를 생각하고 시군을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모인 게 바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이렇게 박수는 치면서 이 나라를 김일성이 세운 나라인지, 이승만이 세운 건지 도통 몰라서 되시겠습니까? 당시 이승만, 김성수 이런 분들이 모여 나라를 세운 것이고 UN이 승낙을 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는 모든 규정을 맞췄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김구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나중에 통일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시급하니 반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중공업, 전자회사 등으로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먹고살게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별로 없겠지만 제 주변엔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당신은 김일성을 건국자로 세우자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그렇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를 욕합니다.

이렇게 욕하려면 그 대상은 누가 돼야 하나요. 북에 있는 저 김씨 세습자들 아닌가요? 이런 분들을 보면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이승만이 나쁜 것만 있습니까. '공산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라를 지켰죠?'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누가 일으켜 세웠죠?'라고 물어야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친절하고 안전을 위해 우리를 구조해 주는 분들일 뿐 아니라, 세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나라를 누가 세웠고 누가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65년의 짧은 세월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연아를 보세요. 스케이트장 없는 군포에서 세계 일등이 됐습니다. 스케이트장 하나 없는 곳, 선생 한 명 없는 곳에서 엄마와 손잡고 세계 일등이 된 김연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1억 명 될까요. 우리가 5천만 명, 북이 2천만 명, 거기다 해외 동포까지 8천만 명이 안 넘습

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남 스타일'에 10억 명 이상이 따라 부를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류현진 공 던지는 것 보셨죠? 삼진을 12개 잡습니다. 상대방이 치질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 코스트코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파는 곳에 삼성이 80%, LG가 10%, 나머지는 대만·일본제가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파는 곳은 거의 삼성입니다. 마찬가지로 LG가 조금 있고 나머지가 미국의 블랙베리 폰이더라고요. 제조업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119도 세계 최고 맞나요?

저는 최고라고 보는데,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익을 위해 모여 반짝반짝 빛내 주고 있습니다. 시·군·도,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리고 다문화 가정까지 걱정해 주시고, 산악에서 구조하고, 노인들 안전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이 동서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 미국, 러시아를 폭격하면서 유대인을 가스실에 넣어 죽였습니다. 물론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직접 선거를 통해 뽑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침략한 적이 없는데 분단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아직도 분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독일도 이미 오래 전에 통일이 됐는데.

경제는 몸, 머리, 손에 투자하고, 기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이고 투자입니다. 폭탄주 열 잔을 오늘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놓고 내일 뻔을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포천에 염색 공장이 많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사, 변호사만 하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아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게 하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이런 부분 건의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나쁜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19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도움의 손입니다. 자식은 짜증을 내지만 119는 짜증 내지 않습니다. 새벽 1시에 부르면 웬만한 자식들은 다 짜증을 내지만 119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 끄러 가서 인명 사고가 납니다. 안 좋은 소리 한번 드리자면, 남 살리기 전에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요. 순직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언제 어디라도 즉시 달려가는 119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주체 세력, 주인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시작했는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이 나라를 세웠고 누가 호시탐탐 대포를 쏘려 하는지, 누가 나라를 욕하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지난 65년 동안 가장 위대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통 주체 세력이고 진짜 주인입니다.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일시 2013년 5월 6일 경기도청

고생 많으신 수도권단장님,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님 특별히 화랑훈련에 함께하셨습니다. 51사단장님, 55사단장님, 10전투비행단장님 감사드립니다. 군에서 을지훈련 등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기를 넘기면서 국방 안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순진 수도권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또 도내 시설장님들 감사드립니다. 76개소 가운데 가, 나, 다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급에 해당하는 시설대표자들은 다시 한 번 개별 소개를 해 보세요.

제가 통합방위회 의장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 북한이 워낙 강하게 나와서, 모든 외국인 분들이 처음 물어 보시는 게 괜챻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올해가 최근 가장 관심이 높은 해입니다. 우리 통합방위회가 먼저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76개 기관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공유, 공지(共知)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형식적인 회의는 줄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건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파주 등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 말고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말은 의장이라 하지만 실제로 의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입니다.

국방 안보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너무 정보를 군이 독점하고 있으니, 통합방위회 의장을 하고 있으면서 크게 아는 게 없어도 되는데 싶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과 군 안보위원이 알고, 귀동냥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정말 통합방위회를 한다면 우리끼리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이 매우 위험한 고비였는데, 한미동맹이 견제해서 전투기, 항모 등도 많이 왔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생각지 못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공격에 대해 확고한 대처를 이번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인 중요 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대처했기에 이만큼 건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자 유치를 하러 갔는데, 미국에서도 괜찮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몇억 달러씩 투자하는데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국방이 우선이어야 경제도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수도권단장님 등께서 확고한 의지와 나라를 잘 지켜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분들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 교육감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등 수십만 관계되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확실하게 내용을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통합방위회가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북부기우회

일시 2013년 5월 9일 양주 송암스페이스센터

자료를 보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기를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지정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양주교육청부터 젊은 청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걸 도와주면 또 감사를 받지 않을까 겁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삼식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39번 국도도는 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 회사가 하겠다는데, 요즘 부동산이 어렵습니다. 길까지 자기들이 댔겠다고 하고 개발 지구를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얼른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따지는 게 많습니다.

현삼식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37번 국지도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과 뜻이 같습니다.

마침 도로국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은 양주 백석 출신이십니다. 빨리 안 해 주시면 시장님 고향에 못 오게 하신답니다. 도로과장도 고시 출신으로 우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을 북부 지역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의 51%를 북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탄 대회를 하는데, 그만큼 이곳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이라며 도로도 닦아 주지를 않습니다. 이곳에 탄약고가 있고, 그 옆에 37번 국지도가 지나가고, 군사시설도 많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미 상하 양원 합동 연설회 하는 것을 보니 영어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첫째, 글로벌 협력을 한미 간에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FTA를 넘어서 '가치동맹'으로서 우리 한미가 같이 갑시다.

둘째,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몇 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셋째,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뉴욕까지 우리나라 최고 대기

업 회장들이 같이 갔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세무조사를 좀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듭니다. 가뜰이나 어려운데 더 쥐어짤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안 무너지고 건디는 것만 해도 애국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설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 괴롭히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도와 드려야 합니다. 돈 좀 없으면 우리가 아껴 쓰고, 너무 쥐어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자꾸 짜면 결국 민심이 폭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다녀온 후에 더 좋은 발전과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국방 안보를 위해 애쓰신 경기 북부 지역, 이 나라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적인 따뜻한 배려를 많이 해 드려야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가 39번 국지도 도장을 빨리 찍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인천권역 화랑훈련 사후검토 보고회

일시 2013년 5월 10일 안양시청

삼군 사령관님 외 부사령관님, 수도군단장님, 51사단장님과 17사단장님, 55사단장님, 경기경찰청장 및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이 경기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하도 여러 말을 많이 하고 핵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CNN, 알자지라 방송 등 세계 각국의 방송이 저에게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지느냐 물어보더라고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이 확고부동한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기에,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바로 김정은 머리 위를 때릴 것이니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자기 말로 영활하다고 하는데, 영활한 지도부가 있기에 자기들이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난리법석 속에서 무사히 위기를 넘긴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는 군 장병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강평을 하는 데 100% 동의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킬 만한 위대한 나라인가,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 확고한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나라가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 이 나라가 정말 고맙고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는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조직 중에 군이 가장 충성심이 높고 가장 애국심이 높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학교 등 다른 조직에서도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전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입니다.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교육과 직결돼야 합니다.

군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공무원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이고 이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 내가 더 행복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책임으로 이어 가느냐가 통합 방위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고 이 나라에 비판 정신이 횡행

하고 있어 주인 의식이 부족합니다. 애국심보다 비판 정신이 너무 많아서, 특히 비상시에 신속히 응집하는 대응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삼군 사령관님 외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도자투어라인 개통축제 오픈식

일시 2013년 5월 10일 장소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강우현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원래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도 없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우현 이사장님께, 남이섬처럼 이곳도 그렇게 해 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는 도자기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남이섬보다는 조건이 좋지 않으나고 설득하고, 맡아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제안을 승낙하셔서 이렇게 멋진 도자공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와 맞물려 강우현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특히 도자는 경기를 매우 많이 탑니다. 그리고 곤지암 도자공원을 대혁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너무 많이 파는 것 아닌지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의원님을 비롯해 도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강우현 이사장님이 독재 체제로 하셔도 무조건 밀어준다고 했습니다. 강우현 이사장님이 하시는 대로 믿고, 그대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자 맡은 팀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강우현 이사장님 밀어주시는 의원님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국립민속박물관장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국 도자의 50%가 경기도 도자 업체들입니다. 전국의 절반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도자가 잘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기도가 달려 있습니다.

도자는 그 자체가 생활용품이자 예술이고 과학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예 학교와 학생들이 이곳에서 큰 보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물레를 체험하게 하고, 도자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국 물레 체험과 도자의 인기가 단연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도자가 세계에 널리 퍼져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도자 문화가 시작되어 세계인들의 생활 및 예술 속에서 더 널리, 더 크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일시 2013년 5월 16일 안산산업기술대

어려운 가운데서 기업을 잘 이끌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출신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 번 드립시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윤화섭 의회의장님께서 무조건 오라고 하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3분의 2가 야당이고, 저는 새누리당입니다. 무조건 제가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서울시처럼 되고 맙니다.

환경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못 들어 드렸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중, 삼중으로 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곳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도 예산은 15조 원인데 반해, 교육청

예산은 12조 원입니다. 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해 말을 못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반면 의회는 일반 예산과 교육 예산 합쳐 27조 원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할 지방자치로, 세계에서 가장 지방자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를 초청하신 건 잘못하신 겁니다. 대통령을 초청해야 했습니다. 도지사가 이 단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조정식 의원님은 국가산업단지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위기 극복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 합의, 국론 통일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요지로 말씀드립니다.

국방 안보가 위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장을 해도 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핵은 첫 번째로, 엄청난 열을 냅니다. 두 번째, 엄청난 빛을 냅니다. 쳐다보는 순간 눈이 멀니다. 세 번째, 방사선 낙진 피해가 엄청납니다.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도 다른 비대칭 무기입니다. 다른 것과 대칭이 안 됩니다.

이 비대칭 무기를 지닌 북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북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난 60년간처럼 큰 갈등 없이 지낼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연평도, 천안함 등의 사건도 있었지만 한반도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향후 60년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합니다.

독일은 통일 20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을 도발한 전범 국가로 반인륜적인 행동을 저지른 국가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입니다. 이 독일이 분단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침범, 학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38선으로 분단됐습니까. 오직 하나, 힘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당시 일본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데, 진주만 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항공모함, 육해공군 등 최고의 군대가 일본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무너지고, 소련도 사할린을 뺏기고, 미국도 공격을 당하니, 미국과 소련이 합작으로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 분단의 책임은 일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입니다. UN과 미·소·일·중 모든 나라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책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일·중·러, UN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독일은 다시 합쳐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라 일·중·미·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한미동맹입니다. 아시다시피 육해공, 미군 대한민국 주둔 전력의 7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에 자주 갑니다.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전부 부대입니다.

군부대를 다녀 보면, 미군이 만약 빠지면 우리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은 미군의 철수를 제1의 목표로 합니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우리의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더니, 비밀 문건에서 다 공개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시작전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으로 모든 미군이 빠지는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군은 아시다시피 빈 라덴을 10년간 추적해서 결국 사살했습니다.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주면 끝까지 따라가 응징합니다. 국가의 평화 주권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동원합니다.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뼈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국군포로가 그렇게 많아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미국은 돈을 엄청 주고, 죽은 사체라도 가져옵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땐 최근 미국이 쉘가스에 의해 암반 속에 묻혀 있는 기름과 가스를 추출해 경제성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 정도로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잘될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2008년 GM이 무너지고 봉급이 절반 이하로 깎였습니다. 미국은 임금이 대폭 깎이고 위기에 빠져도, 지속적으로 재정 위기 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다시 잘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반대하고, 중북파가 반대하고,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 코스트코 회사에 갔었는데 본사 안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매장 투어를 하는데, 전자 제품을 파는 곳을 보니 텔레비전·모니터가 삼성이 80%, LG가 10%, 나머지가 필립스 정도였습니다. 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이 다 잡아내서 일제가 없습니다.

옆의 스마트폰 판매장을 보니 역시 삼성이 80%, LG가 10%, 다음이 블랙베리가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애플은 거의 찾질 않아 진열해 놓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우리나라의) 먹는 김 포장 제품이 잔뜩 있더라고요. 너무 잘 팔려서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상원 부의장 신호범 씨를 초청해 공무원 강의를 했는데, 다들 향후 20년 내로 코리안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오바마가 케냐 출신의 자식입니다. 오바마 이상으로 잘생기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스마트한 리더들이 코리안 중에 있다고 합니다. 코리안 의사가 미국에 1만8천 명이 있는데, 화상으로 한국의 의사들과 함께 미국의 아픈 환자들을 진찰해 줍니다. 고치기 힘든 병이면 한국으로 와서 고치도록 합니다. 서울대 의과대 출신의 3분의 2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합니다.

우리 의료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와서 배워 갑니다. 러시아 의료는 그간 유럽에서 배워왔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배웁니다. 장비도 훌륭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 안보와 경제적 첨단기술과 여러 부분에서 매우 앞서 있다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미국을 합쳐도 우리와의 무역량이 중국이 더 많습니다. 중국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된 것은, 중국 시장의 고속 성장률이 과거의

10%에서 지금 6%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또 내셔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게 중국입니다. 폐쇄된 민족이란 점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관치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등으로 영토 분쟁이 일어나 중국-일본 간 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 간부들을 만나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북한 뒤를 따르며 후견인으로 남을 것이냐. 이걸 중국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북한은 폐쇄 정책과 핵 개발 정책을 하는데, 이걸 따라갈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요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가서 아주 잘하셨는데 딱 한 사람이 사고를 쳐서 걱정이 있을 뿐이지요. 중국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와 드리겠다고 제가 만나는 중국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있었고 저 역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를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목표를 갖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뛰고 있습니다. 성과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려 합니다. 우리도 그 대통령이 성공했고, 지금 우리는 그 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중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관광객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와의 관계에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독도 문제가 있고, 일본과 맞붙어 군사적 갈등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요즘 어려움이 큼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나친 세무조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기업들 세무조사는 세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중북파, 주사파, 북한 편을 들고 우리나라를 사사건건 비판하는 건 안 됩니다. 천안함, 연평도 등을 함께 비판하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방 검사도 인권 침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북을 비판하지 않는 일은 안 됩니다.

우리가 국론의 통일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이런 부분만 노력한다면 남북 간 국방 안보 위기 등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임금을 일정하게 내려야 합니다. 하청업체 수준 가까이 내려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강성노조는 사회 전체를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국가 리더십이 이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배워 일본화, 영어로 하면 재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이라는 이 방법으로 일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일본을 따라해 이긴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연아까지도 아사다 마오를 이겼고 스포츠, '강남 스타일', 다 이깁니다. 굉장한 저력으로 성공을 했는데, 저출산 고령화도 일본을 이기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이 최장수 국가인데, 우리가 일본 고령화보다 더 심합니다. 앞으로 30년 내로 아이 두 명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저출

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 주택 건설 침체, 소비 부진을 촉발시킵니다.

미국은 이민 정책을 써서 오바마의 아버지처럼 케냐 등에서 온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개방이 되고 있지만, 미국만큼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일과 출산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시·도·국가가 출산 여성들에게 가점을 줍니다. 군대 갔다 와도 0점인데 아이 하나 낳으면 3점, 둘이면 6점, 크게 올려 줍니다. 또 아이 낳고 오면 원하는 부서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유연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기업은 외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이런 정책을 쓰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가 지금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누가 우리의 벗이고 누가 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일본이 23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졌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그것입니다. 지금 아이를 얼마나 안 낳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1학년이 절반 수준입니다.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건설 경기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LH가 짓는 것까지 포함해 2020년까지 필요 주택에 비해 두 배를 더 짓게 계획돼 있습니다. 독신 가족이 늘고 있는데, 핵가족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제가 아이 좀 낳으라 하면 '저 물질 모르는 꼰대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을 가지면 하우스

푸어가 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 가진 사람 세금 깎아 주자고 하면 부자에게 혜택 준다고 뭐라 하니, 제대로 정책이 나오질 못합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급처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빨리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세무조사,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계속 이러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맙니다. 외국에서는 공짜로 땅 주고 돈 주면서 기업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에 매립지가 6천만 평이나 있습니다. 싸게 주겠다고 외국 기업에게 제안해도 거절합니다. 다른 곳은 공짜로 줍니다. 우리 현대차 관련 기업이 미국에 있는데 1만 평을 공짜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만 돌리면 땅은 무료입니다.

지금도 창조경제 등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땅 정도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땅이 남습니다. 시골 농토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과거 관행대로 일합니다. 공장, 기숙사, 식당 등에도 용적을 제한이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은 변해야 합니다.

지금 창조경제를 계속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뭐가 창조경제입니까. 말로만 둥자고 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지금도 80% 대학 진학을 해서 눈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절이 될 것입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일시 2013년 5월 23일 과천시민회관 대강당

딱 졸릴 시간인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우리 경기도는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세가 세수의 50%를 넘고, 여기에 경마장 같은 레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세가 가장 커 경기도가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많으신 것처럼 동병상련입니다.

지사가 땅장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유치를 하러 해외 나가면, 도면을 들고 가서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 들어오 시라' 소개합니다. 평택, 화성, 파주 등 산업단지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땅을 제공합니다. 그 위치가 얼마나 사업성이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LH 개발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52군데에서 총

2천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올스톱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성남에 갔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기 위해 순환 재개발 부지 임대아파트 분양을 보면 사실 LH 민원이 경기도 민원의 90%입니다. 민원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구 지정을 해 놓고 보상을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면 왜 값이 적냐, 보상을 마치면 왜 집을 안 짓냐 등 대부분 LH 관련 민원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부동산 포탈을 만들어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평가사들이 아실 것입니다. 홈페이지 자료 공개를 잘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저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프로페셔널, 저는 아마추어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국가공인자격증 8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공장 생활을 7년간 하다 보니 보일러기사 등 돈 안 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환경기사 등입니다. 여러분의 감정평가사 자격과는 완전 다릅니다. 감정평가사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과 할 일 자체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경기도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서당도 다니다가 중고교에서 무기정학도 당했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와서 다니다 2학년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나이 44살에 졸업했습니다. 그간에 교도소에 두 번, 2년 6개월 갔습니다. 늘 대학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유신 반대, 3선 개헌 반대 등 계속 반대였습니다.

삼청교육대에 수배되어 도망 다니다 집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집사람은 구로공단에서 컴퓨터 키보드 만드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이었는데

데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 정치권 중에서 가장 반정부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세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새누리당에 들어가 있나,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갔다', '이제 철이 드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당시엔 독재 정당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사람 중 가장 고문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잘살고 소외된 곳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경기도가 되겠다고 제가 정해서, 여러 곳에 써 붙였습니다. 저는 도지사를 두 번째, 7년째 하고 있는데 조선 이후 최장수 관찰사 도지사입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석구석이 눈 감고도 다 보입니다. 현장 행정을 중시해 모든 곳을 압니다.

수원 공무원은 의정부를 모르고 과천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 수원도 과천도 어느 곳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취임해서 '경기도 바로 알기' 책을 만들어서 이 시험에서 60점을 넘어야 5급 승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험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인데 단체협약을 할 때마다 이것 좀 없애 달라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도는 서울의 17배, 싱가포르의 15배, 홍콩의 9배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해 왔는데, 경기도는 사실 도시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매우 다양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 DMZ, 최전방, 팔당, 도심도 있습니다. 과천처럼 서울 지역

번호 02를 쓰면서 경기도지사를 박원순으로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시민을 더해서 10만을 합쳐야 경기도민의 수와 같습니다. 경기도는 단일한 지역이 아닙니다.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인데 경기도는 '보통道'입니다. 이렇게 크고 다양하고 국방, 육해공군의 70%가 집중돼 있는 곳인데 왜 보통道입니까.

모든 군 훈련장도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22%, 그린벨트도 전국 최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첫 번째 생각으로, 이 넓은 땅에서 시장·군수를 서포트 하는 데 주력하고 도 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은 줄였습니다. 너무 넓어서 한 곳에 집중하는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성과 연천에서 필요한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조화시켜 넓고도 좋은 땅, 인재가 많은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수가 서울보다 20% 많은 젊은 층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취임한 이후 길이 가장 막히는 곳을 보니 경부고속도로더라고요.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다 붙여서 포도송이처럼 주택을 지었습니다. 교통 체증의 원인은 국토부입니다.

광고도 사실 거의 국토부의 손에 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 고치려고 해도 국토부 장관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보금자리라는 것도 제가 반대해 왔습니다. 이 과천에도 보금자리를 하려고 해서 크게 반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땅인

데 보금자리가 웬 말이나 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곳이어야 하는데, 일인당 190만 원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짓게 했었습니다. 교통도 어려워 터널을 서울대 산 밑으로 뚫는 방법도 거론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천의 청사들이 세종시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통 체증이 심해서 처음엔 2층 경부도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 임기 중 욕만 먹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50미터 지하로 파서 동탄-삼성, 삼성-일산 등을 20여 분 만에 도달하는 GTX를 제안했습니다. 청량리에서 서울 거쳐 부천, 송도까지, 이렇게 가는 계획을 짰습니다.

마침 민간 10대 건설사가 건설비의 60%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정부가 내고, 나머지는 도와 자치단체가 조금씩 내도록 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든 오케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멈췄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기재부에서 세금이 안 걸려서 비상 상태더라고요.

이게 되면 세계 최초 광역지하철도가 됩니다. 이 GTX를 만들면 대 심도이니 토지 보상도 없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복지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복지비는 점점 올라갑니다. 반값등록금부터 노인 비용

까지 계속 듭니다.

일본을 보면 '실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표가 많은 60대 이상에게 구애를 합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고 청년 복지는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정치학 용어로 실버 민주주의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저출산이 심합니다. 출산율이 1.3명인데, 일본보다 우리는 더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자살률도 단연 1위가 됐습니다.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족으로 바뀌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것, 해도 이혼을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집안 제사가 있으면 젊은 아이들보고 시집·장가 안 가고 뭐 하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표 떨어지는 소리 그만하라 그렇습니다. 친척으로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인들을 모셔다 기도, 설교, 강론을 할 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면 축복받는다고 출산 장려와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행정, 정치적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겠느냐,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야 학교도 있고 외식도 하고 사회 활동도 될 텐데, 노인들만 있으면 소비되는 건 병원뿐입니다.

병원 산업은 앞으로 유일하게 잘될 것입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가 함께 회의하는 곳에서 들어 보면 간호사를 구하기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24시간 3교대로 일하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의료 부분에서 카자흐스탄 의료협회와 함께 경기도가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장관이 와서 직접 우리나라 대학병원 수술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의술은 장비, 기술, 임원실 등이 최고라는 독일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하바로프스키, 미국 등과도 의료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국 사무소가 LA에 있는데, 그곳에 경기도 원격 화상 의료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의 병원들과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한국 의술이) 매우 훌륭하다며 한국에 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 의사들이 1만 8천여 명이 있는데, 치과 관절수술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을 연구해 봤습니다. 일본은 지난 23년간 엄청난 경제 불황을 겪었습니다. 부동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별하게 바닥을 다져서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맞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획사, 분양사, 관리사 모두 별도인데, 일본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청구권 보상금으로 포철·현대자동차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화, 재패나이제이션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만 배우면 되는데, 저출산까지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구는 5천만, 일본이 1억 2천만이고

땅 면적도 일본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나쁜 것도 따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딱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남북통일뿐입니다. 최전방에 우리 대성동 마을과 북의 기정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성동 마을을 보니 거주민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더라고요. 이곳도 그런데, 통일이 되면 소유권 분쟁이 매우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과 중국이 만나는 단둥 지역입니다. 저희가 중국과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부탁하길, 중국이 북한에 말해서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성장도 '북한이 우리 말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일거리나 분쟁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중국 길림성 두만강 일대, 작은 도량 하나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곳까지 물류, 교통, 지역 개발, 인구 이동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통일이 되면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재부의 현재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선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분쟁과 갈등 비용이 감정평가 비용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관에 대한 믿음이 크고 사람들이 잘 따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모든 감정 업무 자체를 복수로, 다수로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LH가 2자 평가에서 3자 평가로 바꿨습니다. 다변화와 전문성이 그 이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 부동산 정책을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신은 다시 집값 올리자는 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말은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제 생각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작년보다 거래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프가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그린벨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 지으려고 했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일자리 창출의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농민이 가난해지는 이유도 농지 때문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구를 넓혀 가니까 농지는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없어서 농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할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금자리, 그린벨트를 풀어 놓은 곳과 지정 지구를 해 놓은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뉴타운 부분은 서울보다 훨씬 어려우니 주민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와 1인 가구화 시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고로 빠른 시대가 되는 시점에서, 과거 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이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하면 실패율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간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땅도 넓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연천의 임진강·한탄강 합류 지점이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모두들 희망을 갖고 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도전 시기입니다. 김일성·박헌영은 북을 세웠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세웠고, 김구 선생은 다른 길을 외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김연아, 싸이, 못하는 게 없는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을 압록강, 대동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길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가와 조국, 국민을 위해서 하고 계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늘 경기도는 여러분과 열린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중과 질의응답 >

질문

경기남북도 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

분도 불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면적이 북경의 70% 정도입니다. 아직 작습니다. 공무원도 도지사, 부지사, 공무원이 더 생기니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누기보다 합쳐야 합니다. 광역 통합 행정이 주민 편의에 좋습니다. 기존 행정 관행 속에서 통합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는 창조 행정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도 기존 300여 개 있던 걸 140여 개로 제가 줄였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는 노숙인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복지가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칸막이 행정, 칸막이 복지로는 있는 밥도 못 찾아 먹습니다. 왜 이렇게 해 왔습니까. 공무원이 편하자고 이런 칸막이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청 등 주요 기관을 모두 경기 북부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반 이상을 투자합니다. 3번 우회도로, 호원IC 등 여러 노력 중입니다. 연천도 감정평가 지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군인이 3만 5천, 주민이 4만 5천인 어려운 곳입니다. 동두천도 미군기지가 42% 면적입니다.

질문

대선에 가신다면, 일제의 과거 청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시장·군수도 선출로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만 시장, 구청장 선거와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 법을 고쳐야 할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이 그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이 사람 공천 줘야 한다고 하면 줘야 합니다. 안 주면 공천 심사가 진행되질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잘못된 기득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시의원·도의원 등 대부분의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여러 이유를 대서 정당 공천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오직 국민만이 자기 대표를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년 6·4 선거에도 아마 정당 공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주민들도 욕만 하지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큼니다.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입니다. 행복주택 등 동네에 집 몇 채 짓는 것까지 대통령이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사 청산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를 갖고 이렇게 갈등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세워진 이래 이렇게 빛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느냐고 북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저
도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 안
된다고만 해선 안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모두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우리를 배우려고 아우성입니
다. 중국공산당도 박정희 모델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만 우리를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도 일당 독재이면서도 경제는 성공하고 싶은 마
음으로 박정희를 배우려 합니다.

우리 역사의 명암은 통합적으로 보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사는 위대한 역
사입니다. 독일은 분단이 됐지만, 23년 전 통일이 됐습니다. 국민이
뽑은 히틀러가 인류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당연한 분단을 당했습니다.
일본도 전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허리를 잘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
런데 오로지 하나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분단이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
을 잘라야 하는데 스탈린 말을 받아들여 한국을 분단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UN이 손을 잡고 우리를 통일시킬 책임이 있습니
다. 좀 미친놈처럼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런 학설이 없다고 하는데 학설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질문

땅장사를 가장 많이 해 보신 경험에서 창조경제를 어떻게 봅니까.

답변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이었지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 임기로는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경제란 말도 듣기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창조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조가 유행이니까. 그래서 저는 창조행정은 결국 도민 위주, 칸막이 제거, 현장 행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첫째,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대학이 없으니 필요하면 짓게 하고, 수정법에 막힌 것들을 푸는 것입니다.

둘째, 과천을 창조경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계 석학을 모시는 것입니다. 석학들이 울산, 광양, 대전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남태령 너머 바로 서울을 둔 과천은 세계 석학들이 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셋째, 화성시 수천만 평에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개논코리아 시화MTV 신공장 준공식

일시 2013년 5월 31일 안산 시화MTV 신공장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신동빈 회장님께 여긴 롯데호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좋은 공장을 지을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건너편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건설에도 많은 애를 써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회를 보면서, 투자를 너무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대기업이 눈치를 봐야 하고, 롯데백화점도 물건 살 때 눈치를 볼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매출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10년 했는데, 안건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 매우 큰 법안이 한순간 시행되는 만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연 국회의원은 최대 산업단지가 있는 안산 출신입니다. 많은 산업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좋은 생산과

투자가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자원공사나 국가 기관이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땅값을 더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땀 흘리며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보다 저출산이 더 심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땅값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장사 위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역사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땅이 부족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벽찬 희망과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 7년째인데, 돌이켜 볼 때 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도 7년간 수자원공사와 아직 토지계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미래가 없습니다.

공직도 정치인도 모두 이 나라가 어디에 와 있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라,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행복한 상생과 번영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불경기 가운데 롯데가 이렇게 크고 좋은 투자를 해서 빠른 준공을 하게 돼 기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월례조회

일시 2013년 6월 3일 북부청사 대강당

요즘 추세가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약게 살자, 눈치가 빨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고,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자체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임난 충의단이라는 곳에 가서 초헌관을 맡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의병들을 추모하는 향사입니다.

마침 저희 13대조가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나갔습니다. 전투를 해서

한 번은 이겼는데 세 번째 경주 서천 전투에서 대패하여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을 지금까지도 우리 문중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보통 4대 제사를 지내는데 13대 됐는데도 아직 사당을 만들어 제사를 합니다. 우리 문중에서 하고 마을에서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한 열 분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니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관군은 말할 것도 없고 관찰사, 군인 등 모든 공무원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일반 행정 관리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왜군이 다 차지하는데, 이때 글을 읽고 있던 백면서생, 아무 관직도 없는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의병장이 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자기 먹을 것과 남 먹여 살릴 돈이 있는 사람이 의병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털어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의병이 잘 못 싸우니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밤에 기습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자세히 읽어 보니,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훈련이 안 돼서 몰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주변의 목숨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돼 개인적인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한 사촌, 가족 다 몰살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전쟁 끝난 후 우리 집안에 한성부 판관이라는 벼슬을 줬는데, 판관이라는 것은 종3품 정도 되는 벼슬입니다. 돌아가신 후 벼슬을 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일정한 벼슬을 주는 형식

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군 유해 발굴 현장에 갑니다. 6·25 난 지가 60년 이상 됐는데, 60년 이상이 된 유해 뼈를 찾아야 합니다. 미군은 북한에 돈 주고 뼈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생존 국군포로도 제대로 못 데리고 옵니다. 살아 있는 국군포로도 못 데려옵니다.

국가에는 국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의 위대함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태극기라는 것은 국가의 상징,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사와 우리들의 꿈이 있습니다. 보통 애국가는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애국가를 힘 있게 부릅니다. 지속성, 영속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안 바꿀 것입니다.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데, 신성불가침한 국토와 국민의 생명, 주권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국가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업이 보훈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극빈자나 장애인 그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1번입니다.

미국은 이런 점에 철저합니다. 9·11 테러를 한 빈 라덴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보복을 합니다.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주권을 짓밟은 사람을 백 년 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보복합니다. 강력한 의지가 실행돼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만 따지고 계산만 합니다. 국가의 영속성, 불가침의 어떤 주권의 존엄성, 절대성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진 절대적 위치, 이게 무너지면 망합니다. 하지만 이게 살아 있으면 그 나라가 존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국민 된 도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다가 죽는 사람은 바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우(太愚)는 대현(太賢),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보훈을 해 주고, 그 정신을 기려 주고, 후손을 돌봐 주고,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에 서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도 그 종교의 영속성을 가지려면 신앙을 가지다가 죽으면 성인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인, 영웅이 돼야 합니다. 이 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바보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물질 위에 정신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더 큰 기억을 국가가 해 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더 크게, 더 영광되게 기억하고 올려 드린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희생하신 그분들을 반드시 높이고, 유족이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아빠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 고생을 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IMF 때 일본보다 더 추락했는데, 이번에 아마 15년 만에 일본보다도 경제가 더 성장이 안 될 것입니다. 나눠 먹을 게 없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기는 게 없으니 서로 안 뺏기려고 싸웁니다. 파이가 더 커져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파이가 더 안 커지니 압박과 갈등이 심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4월 1일에 발표했는데, 지금 경기도 세수는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도 잘 안 됩니다. 정부, 道는 세금이 잘 안 걷힙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 135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깎아야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디서 깎겠습니까.

결국 우리 경기 북부가 최대 피해자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SOC를 약화하다 보니 GTX가 걸립니다. 호원IC, 광역철도, 국도 37호·39호, 여러 면에서 국고를 받아야 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경기 북부입니다. 경기 북부의 SOC가 최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깎이면 벌떼같이 들고 올라옵니다.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합니다. 결국 다툼에서 착한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기 북부는 SOC 부분을 강화해야 남북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 특별히 힘을 합쳐 여론을 일으키고 꼭 SOC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세종시에 가서 의정부까지 GTX, KTX를 1번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동두천 고속도로도 도로 중에 1번으로 애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손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고와 땀방울은 국민이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가 정신도 국민들의 머릿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기 북부 지역의 홍보맨, 영업 사원, 주인이라는 주인 정신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일시 2013년 6월 7일 51사단 신교대 강당

방금 사단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51사단 구호도 그렇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데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51년생으로, 어릴 때 밥을 못 먹어 늘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제 꿈은 밥을 실컷 먹어 보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다 이뤘습니다.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1978년, 거의 서른 살이 다 되어 갈 때에야 전 기분이 들어온 마을이었습니다. 사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며 모셔진 13대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점령해서 모두들 도망을 갈 때, 저희 할아버지는 의병을 일으켜 싸움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기고, 경주 서천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전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시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죽으면 떠를 두르고 있겠다고 하셔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종3품 판관이라는 벼슬을 받았고, 그분에 대해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병을 일으키려면 사람들 밥도 먹여야 하고 위험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후 벼슬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왜놈'이라는 말을 아주 나쁜 사람을 일컬을 때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군은 모두 도망을 가고 의병뿐이었습니다. 의병이 스스로 돈을 내서 병사를 먹이고 무기를 구했습니다. 정규군에 못 이기니 밤에 습격을 하곤 했습니다. 적의 관군과 싸우면 전멸을 할 정도로 형편이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최강 군 아닙니까?

어릴 때 제가 서당을 다녔는데 명심보감을 공부했습니다. 공자 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이에게는 화를 준다(爲善者天報之以福 爲不善者天報之以禍)는 내용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계속 공부합니다. 백 번 천 번, 자고 일어나면 계속 읽습니다. 영어도 수학도 없이 이 내용만 계속 공부했습니다. 매우 가치가 높은 말을 하는데, 영어·수학 같은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왔는데 돈이 없으니 친척집 뒷방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3선 개헌을 시도했는데, 거기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교과서에 권력자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3선 개

헌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야, 김문수, 너 지금 반성문 쓰면 데모한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제가 잘못된 거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답한 친구야' 그러면서 고교 3학년에 학교에서 잘랐습니다.

집에서 물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작은아버지가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이후 한 2주 지나니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복학이 됐습니다.

이후 다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도저히 서울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알아듣기도 힘들고 간질간질, 남자들이 무슨 이런 말을 쓰나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입학식 이후 첫 시험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험을 보려고 대학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고 어떻게 국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대학에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운동권 선배가 연단에 나와 '여러분, 대학에 잘살기 위해 왔습니까' 외치는데, 아주 저와 코드가 맞더라고요. 강동구 심재권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서클의 선배였습니다.

(서클에서 하는 활동이) 첫째는 반일 데모였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둘째는 반미운동이었습니다. 양키 고 홈이다. 다음으로 반정부적 운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

나라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딱 저하고 맞았습니다.

그때 마침 전태일이 분신자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했습니다. 당시 전태일이 말하길 '나 에게도 한자를 읽을 똑똑한 친구가 있었다면 좋았을걸' 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이 모두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공 장에도 가 봤는데, 물이 안 좋아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로 올라가고 귀에 염증이 나서 중이염도 심했습니다. 영장을 가져와 저를 징집하려 했지만, 군 병원에 갔더니 저를 보고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군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잘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마을에서는 저 에게 우리 동네 빨갱이 나왔다고들 하셨습니다. 김문수가 서울대 간 줄 알았는데 빨갱이가 돼 나타났다고들 하셨습니다. 안기부, 중앙정 보부에서 와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H 운동을 하면서 따돌림도 당했고, 다시 복학을 한 뒤 에는 민청학련에 연루돼 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임종을 보러 찾아가고, 다시 공장 생활 7년을 시 작했습니다. 공장을 다니다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한일도루코 노조 위원장 시절, 우리 집사람은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어서 만 나게 됐습니다. 한번 프리포즈를 했더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며 딱 자르더라고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신이 끝나고 교도소 간 친구들도 다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 그 사이에 더욱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1988년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국가적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장에 들어간 뒤 50명이 해고를 당하고 다시 복직을 거치면서, 죽었다 살아날 때마다 저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수배자가 됐을 때 노동부 공무원 한 분이 저에게 말하길, 너 시골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알 필요 없으니 무조건 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 결국 집사람이 동생과 함께하는 빵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땐 노동계 탄압이 매우 심해 도저히 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1986년에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잘못된 것에 반대하다가 보안대에 또 끌려가 2년 6개월을 당했습니다. 서울, 안양, 목포, 광주교도소에 다 있다가, 결국 올림픽 끝나니 풀어 주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뒤 민중당이라는 정당을 했습니다. 그 정당이 1992년 선거에서 표를 너무 못 얻어 해산 명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권인숙 인권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1994년 처음 제도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 미 국무부에서 반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반미, 반정부, 반일, 반재벌을 하니 저를 불러 미국 투어를 시켜 주더라고요. 해외에 처음 1994년 가을에 나가 미국을 둘러봤습니다.

가서 보니, 미국이 아주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아주 사람들이 친절하고 줄도 잘 서더라고요. 그러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가치,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운동권의 교육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때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산당이었습니다. 김일성, 박헌영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승만, 김성수로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김구 선생이 나라를 가르는 건 안 되며 무조건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경우 단독정부를 만들면 안 되며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한민국이 단독정부 수립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 의해 지켜지고, 민주주의도 없고,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이 나라가 과연 잘되었겠습니까. 의심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948년 5월 10일 처음으로 UN 감시하에 첫 선거가 치러졌을 때 김구 선생은 보이콧했습니다. 남한이 단독으로 제헌국회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헌법으로, 국민의 95%가 열화와 같이 뜨겁게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동대문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당시 참여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이후 중국군도 세지만 소련군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중국과 소련의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멀리 있는 미국과 손잡고 이겼다는 점

은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군이 피로, 죽음으로 낙동강 전선부터 지켜 낸 것 아닙니까? 건국 과정, 호국 과정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고, 다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인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당시 군인은 가장 훈련이 잘되고 공부도 많이 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왜 군인이 선거도 안 하고 힘으로 나라를 지배했는가,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로 봅니다. 핸드폰 제조만 잘하는 게 아니라 65년 만에 최고로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자동차 등 명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습니다. 군인도 한국군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웰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도 당해 봤고, 멸시도 당해 봤고, 전쟁도 치러 봤습니다. 이런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으니, 우리 군은 가는 곳마다 주민 친화적이고 따뜻하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군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읽고, 도와주더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할 줄 아는 정신적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민 전술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뿐입니다. 지금 한반도 군인 역사상 최고의 강군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교과서에 써야 합니다.

전국새마을대회를 하면 전 세계 60개국에서 찾아옵니다. 왜 왔느냐

물으면 한국을 배우러 왔다 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에 안 가고 왜 한국에 배우러 왔습니까' 물으면 다른 선진국들은 과거부터 잘살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자원 빈국에서 오직 맨손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런 나라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연아가 군포 출신입니다. 그런데 군포에는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스케이트장이 없으니 과천, 목동에 가서 스케이트 훈련을 했습니다. 선생도 없이 엄마와 엉덩방아 찢으며 맨땅에 헤딩, 맨땅에 엉덩이를 찢으며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김연아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도지사 집무실에도 왔고 우리가 도와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로 이사를 가서 조금은 섭섭한데, 그래도 얼마 전 세계 일등에 다시 올랐을 때 TV를 보면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울었습니다. 이런 맨땅에서 저렇게 예쁘고 실력 좋은 우리 딸이 나온다는 건 눈물 나는 일입니다.

옛날 미인의 상징은 양귀비였지만 지금은 한국의 미인들이 상징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예뻐져서 나타난 친구를 보면, '야 너 한국 다녀왔냐'라고 할 정도라 합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도 4주 과정으로 중국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우리는 독재로 시작해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도 아직 독재 국가이면서 이후 성공도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 성공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를 조금은 해야 나라가 성공한다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너무 풀어 놓으면 응집력이 부족하니 당분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려 합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봅니까. 세습 독재 아닙니까? 우리도 2대 세습이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것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세계 일등입니다. 싸이도 그 얼굴에 몸집에 세계 일등이 말이 됩니까. 어제 싸이 아버지를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엄마는 아주 예쁘다고 농담하시더라고요. 우리 코리안의 정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다면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엔 싸이라고 하면 '뭐? 싸이코의 싸이야?'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싸이를 초청하느라 다들 그 아버지에게 줄 서더라고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세계를 휩섭니다.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참혹한 전쟁 속에서, 분단을 아직도 겪고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 분단은 2차 대전, 유테인 학살 등 잘못된 점에 기인한 것이 매우 큼니다. 일본도 악독한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위안부, 마루타, 나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전범 국가 일본은 분단을 안 시켰을까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시키고, 야스쿠니 신사보다 더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왕은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국제 질서가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분단의 책임은 첫째 일본, 다음 미국, 소련, UN입니다. 이들은 우리 통일의 책임이 있

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분단되는 과정과 대한민국 성장 과정을 거듭 깊이 공부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UN 모두 대한민국의 통일에 힘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에 다녀오면 애국심이 가장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머리가 이상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할 나라이고, 대통령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비판만 있고 긍정이 없는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국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핵심은 국가 리더십의 중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군 정도가 전부 아닙니까? 군에서는 분명히 '우리 군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게 우리나라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국민이라고 답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라고 답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처럼 왜놈들이 들어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되는 일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관군은 도망가고, 의병은 밤에 공격하다 죽었는데 이들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스펙 좋다고 해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를 던지는 주인 정신이 바로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 주인 정신이 가장 투철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소원으로,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

면 안 되나'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20년 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제가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갖고 산소에 가서 놓고 인사드리고 울었습니다. 울어 봐야 소용없고 어머니께 해 드린 것도 없습니다. 해 드린 건 없지만, 나라를 위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제 몸을 던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선 응집력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강한 조직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무조건 중요한 것인지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된 상태지만 나라를 세웠던 올바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분단된다면 나라를 세워선 안 된다는 김구 선생도 계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처럼 단독정부라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은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다만 단결해야 합니다. 주사파, 중북파,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려운 곳, 아프리카·남미 등에 희망을 주고 우리 한강의 기적을 압록강, 두만강의 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장 긴장된 이 경기도를 60여 년간 아주 안전하게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군사령부 안보 특강

일시 2013년 6월 12일 용인 3군사령부

오늘 군사령관님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아주 편안히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오늘 전투체육의 날인데 늦은 때까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늦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이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 주인 정신이 투철한 주력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되는가 다들 잘 아시기에 따로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3대 위기입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침체되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더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복지를 할 수 없어집니다. 모든 어려움이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로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첫째, 시집·장가를 안 갑니다. 지금까지는 대가족·핵가족 시대였고, 요즘에는 1인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가도 이혼을 쉽게 해 바로 둘이 하나가 돼 버립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210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습니다. 이혼율은 세계 2위입니다. 모두 헤어져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아예 안 낳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우리 젊은이들이 돈, 직장이 없다는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처녀 총각이 바람이 불어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오바마도 미혼모, 이혼 가정 출신입니다만 국경을 넘어 빈부를 넘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 총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육사 출신 여성 장교가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 자기 남편이 한눈을 팔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기고 극복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목사님, 스님, 신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시집, 장가 많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이것 또한 노산이 원인

이라 합니다. 출산 적기는 10대 후반~20대 초반이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16살에 시집와서 계속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엔 말도 안 되죠. 작년에 흑룡의 해라고 해서 일본보다 조금은 나아졌는데, 앞으로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보살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부동산 불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원인은 역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도 없으니 집을 늘릴 일도 없습니다. 일본이 걸었던 것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돈의 평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투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삼성 모바일연구원이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곳에 연구원 1만 명이 있고, 기존과 합치면 연구원 3만 명으로 세계 최대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새로운 모바일을 계속 만들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부가 창출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일자리는 있지만 3D 업종이라 젊은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통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을 살린다고 슈퍼마켓, 백화점을 못하게 합니다. 전통시장은 노인들이 주로 가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는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마트나 슈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클린 시티'를 지향하다가 요즘엔 '편 시티'로 변해 갑니다. 카지노와 놀이동산을 만들어 중국인을 겨냥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카지노그룹 젠팅 사의 투자를 받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 경제성장을 두 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광요라든지 청림을 최고로 하던 싱가포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카지노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 안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땐 제일 문제가 국민들 중에 종북파가 있다는 것, 또 여러 생각이 다른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 된 응집력을 늘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 된 국민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반군, 반정부, 반미, 반일, 반재벌, 이런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교도소에도 갔고 제적도 당하고, 대학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심상정 의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요지는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은 세우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구 선생도 알고 보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5·10 제헌 최초의 보통 선거, 비밀 선거였는데 이때 전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이 선거를 반대한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불참한 사람이 김구, 김규식 선생입니다. 박헌영, 김일성 역시 반대한 사람이자 북을 만든 사람입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90%가 넘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역사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도움을 준 사람처럼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난봉꾼, 친일파, 친미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 합니까. 김구 선생은 이런 대한민국 설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몇 차례 기록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대학이나, 이미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잘못된 일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 생가 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참배를 합니다.

북에서 인공기를 거부하고 김일성, 김정은을 거부하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된 국론이 전쟁에 이깁니다. 청나라는 여진족이라는 작은 민족이었는데 명나라를 켜했습니다. 분열된 다수는 단결된 소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방 안보의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발전했는가, 주적은 누구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 바로 군뿐입니다. 학교도 지금 애매하게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깨려는 북의 행위는 덮어 놓고 대한민국 지도자를 욕하면 결국 애국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은 국토, 국민, 주권 아닙니까? 자기 헌법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권 의식이 확실하지, 자기 나라를 부정한다면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군이 국방 안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훈련도 좋지만, 우리 국민 속에서 잘못된 국가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군대에 들어왔을 때 잘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모든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가 가장 위대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보다 가장 발달한 주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를 살린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국기를 볼 때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애국심이 뜨겁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애국가 나올 때 다들 흐지부지해집니다. 노래방에서 '강남 스타일' 부를 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지덕체(智德體)가 아니라 지지지(智智智)입니다. 토익 900점이 넘는데도 회화는 안 됩니다. 다들 죽집게 공부만 합니다. 수능 만점 수준이어도 나라의 역사는 모릅니다. 육사를 나온 엘리트가 자살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참고 참고 또 참으면 화평이 온다는 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올바른 이치입니다. 지덕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체덕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볼 때마다 '너 시험 몇 점 맞았냐' 물으면서 죽으라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엄마는 이런 악담을 해선 안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된다고, 건강하라고 하는 말이 더 바른 말 아닙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배우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위대한 리더십이 바로 역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리더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면서도 북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계 230개 나라에서 가장 성공적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지난 65년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고, 한반도 최강의 군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도 돌아보면 이순신, 김유신, 강감찬, 을지문덕, 많이 붙어 있습니다. 65년 최고의 강군을 만든 우리 군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 보면 싸이 '강남 스타일',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대한민국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반정부 시절을 살았고 전태일 등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이름 아래 우리 정부를 반대해 온 인생입니다. 미국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우리를 분단시켰고, 일본도 우리를 식민지배해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 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차분히 공부를 해 보니 이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개인의 목표는 통일 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의 목표, 쌀밥 실컷 먹어 보는 건 이미 달성했습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 전범 국가였기에 분단됐고, 이미 통일도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전범 국가도 아닙니다. 일본이 전범 국가이고, 일본 왕이 최대 전범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분단시키고 일본은 그대로 뒀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분단의 이유는 미국과 소련에 있고, 일본·미국·러시아·중국, 16개 참전국 모두가 적어도 우리나라가 죄 없이 분단된 나라임을 인정하고 통일에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통일은 필수이고, 국제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통일돼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이어가고, 세계의 모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반국가적인 사범으로 벌방에도 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 번 뽑아 줬고 경기도 최장수 관찰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에서 반정부를 외쳤다면 제가 이렇게 살고 있거나 했을까요. 태극기를 보고 애국가도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대하고 기회를 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밥이나 실컷 먹어 보고 싶은 소원을 몇천 퍼센트 넘게 달성하게 해 준 이 위대한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런 위대함을 알려 줄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인 의식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청 특강

일시 2013년 6월 13일 전남도청 김대중대강당

전라도 순천은 저희 집사람 고향입니다. 제가 여수공항에 내려서 오면 공항이 매우 작고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저를 알아보기는 하지만 한 명도 알은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지만 인사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정동 남은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았습니다.

1987년 말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김대중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당시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도소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밖에서 '김대중' 하는 시위대 소리가 우리 방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교도관이 하는 말이, 그분이 당선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방이 안 되고 광주교도소에 갔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교도관이 하는 말이 '박관현이 알지? 여기가 죽어 나간 방이다,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 방에서 박관현 씨가 단식하다 실려 나가 죽었습니다. 제가 망월동 묘지에 매년 오는데, 박관현 씨가 저보다 나이가 세 살 어립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나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주교도소는 제일교포 간첩, 남파 간첩이 많습니다. 저는 꽃을 가꾸면서 광주교도소에 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교도소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생했지만, 마침 (목포가) 처갓집 근처입니다. 목포교도소는 전국 교도소에서 멸치젓갈을 주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멸치젓과 김치입니다. 서울교도소도 구더기가 지나가곤 했는데, 목포교도소는 더했습니다. 짧은 운동 시간에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났는데, 꿰맬 수 없어서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저로서는 여러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고3 때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해서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과서에, 권력자가 자기 권한을 위해 임기 연장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라 해서, 저는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반성문을 쓰냐 하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시험이 형편 없더라고요. 저는 괄호 메우기를 하러 학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길을 밝히고, 국민들과 가까이 하고, 지극한 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젊은 학생이 쉬는 시간에 와서 하는 소리가 저를 사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하러 대학 왔습니까. 좋은 것을 위해 희생하러 이 나라, 이 대학에 온 것 아닙니까'라는 말에 필이 쏘히고 눈에 불뚱이 확 튀었습니다. 그 선배가 심재권 국회의원입니다. 그 집도 운동권 집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계속 데모를 하다 대학에서 잘리고, 민청학련 때 잘렸습니다. 공장 생활 7년을 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 영등포지부 위원장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구로공단의 세진전자라는 키보드 판을 만드는 공장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집사람을 딱 보고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 생각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10·26이 터졌습니다. 당시 제 친구들은 서대문구치소에 많이 가 있었고, 저는 1980년 초에 남영동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해고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던 중 서울의 봄이 찾아와 모두가 굉장히 흥분이 돼 있었습니다. 전원 다 복직되고 다 성공을 해서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한국노총을 더 민주화하자고 단식했습니다. 집사람도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농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5·17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와 집사람은 모두 잘렸습니다. 노동부에 가니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고향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피한 사이 부위원장 등이 다 잡혀가고 저는 피해 갔습니다. 피해서 간 곳이 집사람 처제와 처남이 하던 빵집 뒤 다락방이었습니다.

계엄이 끝나고 난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왜 하필 전라도 여자와 결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는데, 오늘 아침까지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1년 됐습니다. 전라도 여자가 최고인데, 당시 우리 집안에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소위 요주의 인물이 돼서, 담당 형사가 결혼식까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봉천중앙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초대장도 만들지 않고 하객들도 없이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전선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1980년 5·17 이후 잡혀 구속된 분이 주례를 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경찰에서는 구속됐던 사람들이 주례와 사회를 하고 위장 결혼을 해서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결혼식장까지 감시하러 왔습니다.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찌나 추운지, 방안에 있어도 딸아이 손이 뽁뽁 열고 요강이 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하나 더 낳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낳지 못하고 자녀가 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딸아이가 시집을 가서 아들도 낳고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 아무리 계엄 상태에서 쫓겨 다니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단칸 셋방, 그 추운 방에서도 우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에는 아내가 그런 소리 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이라도 인류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열여섯에 시집와서 아이 7명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7남매 중에서도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힘든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도 하고 애도 낳고 키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지덕체(智德體)가 중요한데 요즘은 지지지(智智智), 시시시(試試試)가 돼 가고 있습니다. 시험만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이제는 핵가족이 되고 또 1인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입니다.

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서 도망을 다녔는데, 형님이 어머니가 임종 직전이라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냐'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나니 허전해서 산소에 가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입니까, 아니면 덕성입니까. 효성이냐, 건강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자녀가 시험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래, 걱정 마, 성적이 다가 아니야. 너는 착하고 너는 부지런하니까 잘살 수 있어'라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시험 성적을 우선으로 하니, 학생들의 자살률도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도지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을 경기 부천 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사구는 전라도 출신이 30%, 충청도 30%, 경기도, 경상도 출신은 10%도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왜 갔느냐,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김문수 너는 3등이야', 1등은 박지원, 2등은 그 지역 토박이 현역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3등이었지만, 마지막 선거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깨 보니 제가 당선됐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이나 당대표가 여기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두 번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집사람에게 말하며, 당대표가 경상도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소사구 주민에게 고마워서라도 그런 말을 꺼낼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을 해서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서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도, 경상도 빼고 제가 전국 최다 득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서 절대로 전라도 사람을 홀대할 일이 없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팔도에서 다 옵니다. 경기도는 비빔밥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광주 출신입니다. 경기소방본부장도 순천 출신입니다. 주요 상위 공직자는 전라도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절 지역감정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도지사냐' 하며 말투 먼저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고쳐집니다. 지금도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두 번째로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689대 경기도 관찰사 중에서 제가 최장수입니다. 저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전라도는 청정 지역이지만 우리는 소, 돼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전국 피해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축산이 발달한 것은 서울이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강점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라는 2,500만 명의 인구가 좁은 땅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녹색 전남의 제품이 신뢰가 높고 청정 농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남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단체, 군부대 급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의 거의 3분의 2가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이 세 개가 있고 DMZ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의 화장장, 그린벨트 전부 경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제약도 많은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농업·축산 부분, 조금 천일염에 관해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전남은 섬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이 섬을 관광지로 발전시켜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수도권 전부가, 전남 남해안 해안에서 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F1을 방문했는데 정말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처음 타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자동차 성능, 기능, 시험뿐만 아니라 좋은 레저로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이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제가 요즘 일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배우고 포항제철·삼성전자·LG전자·기아자동차 등이 일본을 캐치업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을 능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도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살률도 일본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성장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어려운 점은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리더십의 위기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이유는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째, 청와대는 총리와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임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 총리와 장관 전부 대통령만 쳐다보고 힘이 없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은 지방에 4할 정도의 예산과 권한을 넘겨줘야 합니다. 농업진흥 지역, 그린벨트 등의 문제는 중앙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0% 이상 지방 재원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의 40%는 중앙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항구·도시계획·산업 이런 부분은 지방에 이양해야 대통령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 수평적 소통과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대통령 욕도 할 것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제각각 잘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방 안보를 강화하고 분단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우리가 패전 국가였습니까? 독일은 패전 국가이자 전범 국가입니다.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를 하는데 그 당시 국민들이 히틀러를 뽑아 줬습니다. 히틀러는 전범이고, 독일은 패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식민지국이었고, 전쟁으로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전범·패전 국가도 아닌데, 왜 분단이 됐습니까? 일본은 왕이 전범입니다. 저는 일본 왕이 히틀러 이상으로 전범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도 안 하며 잘살고 있고, 일본은 분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옆에 있는 한국이 분단됐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공부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힘이 없어서 식민지 국가가 되었고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우리를 나뉘던 것입니다. 우리 분단의 책임은 일본, 미국, 소련, 러시아,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 UN과 중공군 즉 중국에게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고, 통일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이 되겠느냐고 합니다. 개성은 경기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도 분단 도인데, 북한에서 대포를 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곳이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의 절반이 군사시설입니다. 도로도 낙후돼 있습니다.

말라리아모기가 북한에서 날아와 북부 지역의 주민과 군인들이 물

립니다. 그래서 그곳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현혈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모기약 등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말라리아 환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모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철조망을 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부분에서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임진강에서는 해마다 북한 시체가 많이 떠내려옵니다. (수습해서) 관문점에 주고, 안 찾아가면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 남북 간에 통일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대사는 독일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초기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리더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업입니다. 부모가 귀찮다고 부모를 안 모시고, 돈 든다고 자식을 안 돌보니까? 그것이 필수적인 의무이듯이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자살하면 안 되고, 남녀 간에 사랑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자식도 낳아서 길러야 합니다. 그 속에 낙이 있고 그 속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은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 두만강, 압록강, 전 세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남미에서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합니다. 미국 가서 배우라고 말하면 아니라 합니다. 이베로아메리카 총장이 어렸을 때 코리아타운에 살았는데, 한국인들이 남미로 농업 이민을 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컴퓨터 입찰을 하려고 보니 전부 한국 컴퓨터, 삼성·LG 제품이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의 코리아타운과 지금의 코리아가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더러운 세상' 이룹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을 존경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경기도 군포 출신입니다. 군포에는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천까지 찾아가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피나는 연습을 한 결과 세계 1위 스케이트 선수가 됐습니다.

역대 한반도의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공무원들은 지금 이 시대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으며 아무리 깊이 땅을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자원이 부족한 이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이 코리아를, 전 세계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코리안입니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공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이십니다.

세종대학교 특강

일시 2013년 6월 1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ROTC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국학과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도 좋습니다.

저는 총장님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제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태균 학생은 경영과 3학년 학생인데 제 책 세 권을 가져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와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실컷 먹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세 끼 먹을 때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다 이뤘습니다. 제 꿈은 배불리 실컷 밥을 먹는 것이었는데 다 이뤘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 강국이 돼서, 일본의 식민지는 절대 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 국민이堂堂하게, 뚝뚝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코리안이라는 자체가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 학생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듭니까? 저는 아닙니다.

한미 간에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는데, 한미동맹 없이도 대한민국 통일이 가능합니까?

(학생 : 미군이 저희 군사에 도움이 많이 되기에 한미동맹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생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칭 무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핵도 생화학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화학무기는 품질이 좋은데 우리 스스로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인류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확산 금지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 확산 금지조약) 가입 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핵이 가진 강력한 파괴력이 무엇인지 아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핵은 첫째, 터지면서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와서 그 주변의 것을 다 파괴합니다. 둘째, 빛이 어마어마한데 보면 눈이 멀니다. 그리고 열이 어마어마해서 주변의 것을 다 녹이고, 방사능이 인간의 인체와 모든

생물을 파괴합니다. 핵을 상대할 수 있는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을 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를 많이 갖고 있어도, 핵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군에서 21억 이상 하는 좋은 무기도 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는 인체에 너무 무서울 정도로 파괴가 큽니다. 핵, 잠수함, 특전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강한 비대칭 지역입니다.

남북 간의 가장 비대칭은,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인데 북한에는 야당도 없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언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도 대통령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합니다. 수평적인 평준 관계여서, 누구나 욕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북파는 남한에 있으면서도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고 존경한다고 북한에서 그러면 사형을 당합니다. 북한은 국론이 통일돼 있고, 우리는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군사를 제일 우선합니다. 그것을 선군정치라 합니다. 군사를 우선하는 정치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학생들은 스펙, 점수, 취직이 우선입니다.

저는 취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도 안 하고 오직 점수, 취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덕체(智德體)라는 말을 아십니까.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지지(智智智)입니다. 그런데 또 시시시(試試試)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직 시험만이 목표인 시대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학생에게 점수를 물어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성적을 0점 받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했더니 진짜 자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1등입니다. 결혼율도 저조합니다. 제 주변에는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도 시집, 장가 안 간 조카들이 수두룩합니다. 의사들 및 전문가들에게 결혼 적령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어머니는 23살에 스티브 잡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중동 시리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여성인데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가톨릭 신자인데 절대로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결혼이 안 된다고 반대해서, 23살에 아이를 낳고 바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양부는 중졸 출신, 양모는 고졸 출신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했습니다.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부모님이 없고 입

양을 했어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확률은 높을 수 있지만,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린 사고를 해야 합니다. 주변 친구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반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학 졸업은 25년 만에 했습니다. 44살이 돼서야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을 2년 6개월 했고, 공장 생활을 7년 했습니다. 청계천 미싱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주로 했습니다. 큰 공장에 가서는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집사람을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구로공단의 컴퓨터 키보드 만드는 공장에서 아내는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시다시피 조금 비판적입니다. 우리 둘이 결혼해서, 비판적이라 말다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싸우지 말고 긍정적인 칭찬을 자주 하자고 합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조금 말랐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지만, 못생겨도 잘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의 정신이 긍정의 말을 낳고, 긍정의 행복을 낳고, 긍정의 습관을 낳고, 긍정의 인생을 만들고, 긍정의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데모를 하다 수배됐을 때, 어머니가 제 품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냐'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부모님 속을 너무 썩여도,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제입니다.

저는 경북 영천 사람인데 집사람은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경상도 집안에서는 왜 하필 전라도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깨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많이 싸우고 헤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교도소를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 가게에서 번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곤 해서 빚이 많았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집의 재산이 늘었고,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후에는 오히려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집사람은 신발을 거꾸로 신지 않고 면회 오고 기다려 줍니다.

저는 고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옳은 소리를 해도 왜 대드느냐며 교도소 안에서도 별방에 갇혀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죽고 싶어도, 투구를 씌우고 손을 뒤로 묶어서 자살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시켜 주지 않았지만 집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허용해 줍니다. 저는 광주교도소에 있었는데, 집사람이 면회를

왔다가 제가 별방에 갇혀 있어서 면회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집사람 왔다는 말을 해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가면 아이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장이, 아파트가, 희망이 안 보여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녀 간에 사랑하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고 저는 반문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프러포즈를 했는데, 집사람은 결혼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엄령 상태에서 더는 도망을 갈 데가 없을 때, 집사람 동생이 하는 빵집 뒤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풀리고 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해고되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2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은 무턱대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나이는 제가 서른한 살로 조금 있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추워서 겨울에 요강이 얼고 우리 딸아이 손이 다 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지만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도지사를 두 번 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689대 관찰사 중에서 최장수 도지사입니다.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집도 아이도 없었을 것이고, 어젯밤에도 쓸쓸히 잤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베트남 등에서 색시를 데리고 옵니다. 착하고 예쁘고 해서,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백 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동성끼리의 결혼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별로 찬성은 안 합니다. 기왕이면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요즘에는 국고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족집게 과외를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너무 따지는 것은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210등입니다. 아이는 1.4명밖에 안 낳고, 인구가 없어서 아파트도 안 팔리고, 도시도 자꾸 줄어듭니다. 온 사회가 노인들만 많고 아이는 없습니다. 명절에 세뱃돈을 줄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한미 간의 동맹이 튼튼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6·25 때도 (직전 해에) 미국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빈 라덴을 십 년 이상 추적해

서 사살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시 죽은 군인들의 시신을 북한에서도 데리고 와서 명예를 지켜 줍니다.

우리는 (북한에) 국군포로가 그렇게 많지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천안함을 폭격해서 44명이 죽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나라를 해치는 나라는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갚습니다.

북한은 미국 사람들의 머리에 폭탄을 못 쏙니다. 하나를 쏘면 열 배로 갚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를 때리면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바로 중국 베이징 등을 다 때리게 됩니다. 강력한 보복 타격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타격물을 갖는 포가 공군에 있지만 20여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가장 위대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헌영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고, 이승만과 김성수의 한민당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하고서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8년 5·10 선거에서 출마를 안 했습니다. 반쪽으로 세우는 나라는 안 된다고 반대했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김구 선생은 반일운동, 독립 투쟁의 최대 공로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입니다. 의료도 미국 이상으로 잘합니다. 암 진단, 관절 수술, 치아 수술 더 잘합니다.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식민지를 겪고 배고픔을 겪고 분단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의 기적으로 일궈야 합니다. 우리가 국론을 단결하고, 역사와 외교도 알고, 전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ROTC 학생들이 많이 오셨는데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주인 정신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찾아보기

주제	행사	쪽수
경기북부 균형발전	북부기우회 (2012년 9월 12일)	77
	북부기우회 (2012년 11월 29일)	183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5
	북부기우회 (2013년 2월 7일)	329
	북부기우회 (2013년 5월 9일)	520
경제성장 · 경제살리기	6월 월례조회	553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기우회 (2012년 9월 21일)	85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224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노사민정 협의회	487
과학 · 기술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2012 IT 청년창업 콘테스트	128
	2012 경기도 산학연 R&D 성과박람회	133
	11월 월례조회	141
	동원대학교 특강	148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232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8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395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60
관광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224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333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주제	행사	쪽수
교육과 인재 양성	4월 월례조회	432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선수단 해단식	83
	특성화고 토크콘서트 청춘불패 초청특강	165
	2012 경기 평생교육 글로벌 포럼	208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306
	고지도 자료 기증 MOU	336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505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09
	6월 월례조회	553
	전남도청 특강	578
교통 · 도로 · 철도	2012 경기도 산학연 R&D 성과박람회	133
	북부기우회 (2012년 11월 29일)	183
	분당선 복선전철 개통식	191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210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49
	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3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5
	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0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82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북부기우회 (2013년 2월 7일)	329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446
	북부기우회 (2013년 5월 9일)	520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국가 경쟁력	노사민정협의회	93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2012 경기도 산학연 R&D 성과박람회	133
	11월 월례조회	141
	동원대학교 특강	148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171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경기농협 리더아카데미	228
	청산포럼 특강	233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348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초청특강	480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주제	행사	쪽수
국가 비전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캐논코리아 시화MTV 신공장 준공식	551
국방·안보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기우회 (2012년 8월 31일)	49
	9월 월례조회	66
	민관군 협력 안보테마공원 개장식	98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217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평택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5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북부기우회 (2013년 2월 7일)	329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348
	기우회 (2013년 2월 22일)	361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3월 월례조회	376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4월 월례조회	432
	안보체험교육	460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노사민정 협의회	487
	세계기자단 초청 투자설명회	496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	517
	경기·인천권역 화랑훈련 사후검토 보고회	523
	6월 월례조회	553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세종대학교 특강	590
국제교류·협력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217
	청산포럼 특강	233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3월 월례조회	376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385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규제	안보체험교육	460
	북부기우회 (2012년 9월 12일)	77

주제	행사	쪽수
규제 개혁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전남도청 특강	578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기우회 (2012년 8월 31일)	49
	기우회 (2012년 9월 21일)	85
	화성 고용센터 개소식	139
	시흥 스마트 허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QWL밸리 비전 선포식	161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 공동협약서 체결	168
	다이소 남사 물류 허브센터 개소식	222
	북부기우회 (2013년 2월 7일)	329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기우회 (2013년 2월 22일)	361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4월 월례조회	432
	기우회 (2013년 4월 26일)	500
	북부기우회 (2013년 5월 9일)	520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의왕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5
	하광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84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4월 월례조회	432
	기우회 (2013년 4월 26일)	500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전남도청 특강	578
기업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19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기우회 (2012년 8월 31일)	49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75
	경기도-텍사스주립대학교 기업지원프로그램	131
	북부기우회 (2012년 11월 29일)	183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224
	의왕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5
	광명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7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0
	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3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5
	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0
	오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2
	평택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5

주제	행사	쪽수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8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82
	하광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84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용인 씨게이트 코리아 R&D 디자인센터 준공식	346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395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노사민정 협의회	487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캐논코리아 시화MTV 신공장 준공식	551
꿈나무 안심학교	제17회 경기여성주간기념 콘서트	23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나눔과 봉사	KRA 시흥 승마힐링센터 개원식 및 MOU	81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디딤톡 콘서트	412
	RCY 단원 리더십캠프 특강	449
남북협력·북한인도적지원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217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전남도청 특강	578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171
	청산포럼 특강	233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385
	디딤톡 콘서트	412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초청특강	480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전남도청 특강	578
	세종대학교 특강	590
노사 상생	노사민정협의회	93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노사민정 협의회	487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505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09
노인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91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녹색성장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60
농업·축산업·수산업	제41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53
	2012 경기축산 G-페스티벌	115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개장식	120
	농업인의 날 행사	124

주제	행사	쪽수
	경기농협 리더아카데미	228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전남도청 특강	578
다문화 · 외국인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개소식	304
대한민국 역사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기우회 (2012년 9월 21일)	85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동원대학교 특강	148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초청간담회	326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348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385
	이승만 대통령 탄신 138주년 기념식	403
	경기도 의용소방대 워크숍 초청특강	512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세종대학교 특강	590
도시계획 · 주택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19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광명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57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8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2월 월례조회	318
	북부기우회 (2013년 2월 7일)	329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395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399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4월 월례조회	432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440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446
	노사민정 협의회	487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505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09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도재정위기 · 극복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75

주제	행사	쪽수
	북부기우회 (2012년 9월 12일)	77
	2월 월례조회	318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399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446
	노사민정 협의회	487
리더십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385
	RCY 단원 리더십캠프 특강	449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전남도청 특강	578
무한돌봄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91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210
	청산포럼 특강	23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디딤돌 콘서트	412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문화·예술	호국 의승군 추모행사	122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171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333
	고지도 자료 기증 MOU	336
	한국도자투어라인 개통축제 오픈식	526
문화산업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개막식	58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90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333
	3월 월례조회	376
미군기지 이전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348
민관 거버넌스	민관군 협력 안보테마공원 개장식	98
	'마을기업 성장지원 공동협약' 체결식	193
	2013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358
민원전철 365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바람직한 공직자상	종무식	248
	시무식	252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초청간담회	326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363
	4월 월례조회	432
보건·의료·생명공학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보육	제17회 경기여성주간기념 콘서트	23

주제	행사	쪽수
복지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아이러브맘 카페 개소식	159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청산포럼 특강	233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북한독재 · 세습비판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505
북한인권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의 달 선포식	63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사회적기업	북한인권의 달 선포식	63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도규제	'마을기업 성장지원 공동협약' 체결식	193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서민 · 민생	전남도청 특강	578
	2월 월례조회	318
섬유 · 염색산업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소상공인 · 전통시장	2013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358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소방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광명소방서 이전 준공식	117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청산포럼 특강	233
	시무식	252
	경기도 의용소방대 워크숍 초청특강	512
소통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09
수도권 규제	북부기우회 (2012년 9월 12일)	77
	기우회 (2013년 2월 22일)	361
수출 · 무역진흥	4월 월례조회	432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224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0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어린이	노사민정 협의회	487
	제5회 경기도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99
언론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232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주제	행사	쪽수
여성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440
	제17회 경기여성주간기념 콘서트	23
	제5회 경기도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99
	아이러브맘 카페 개소식	159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기우회 (2013년 2월 22일)	361
유니버설스튜디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여자캠퍼스 초청특강	480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3월 월례조회	376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일자리	캐논코리아 시화MTV 신공장 준공식	551
	일자리센터 수원역상당실 개소식	17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19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9월 월례조회	66
	장애청년 바리스타 '나는 카페' 1호점 개소식	136
	화성고용센터 개소식	139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395
	기우회 (2013년 3월 29일)	408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노사민정 협의회	487
	기우회 (2013년 4월 26일)	500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505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509
	캐논코리아 시화MTV 신공장 준공식	551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자살예방·생명존중	카네이션하우스 업무협약식	494
자유 민주주의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기우회 (2012년 9월 21일)	85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장애인	KRA 시흥 승마힐링센터 개원식 및 MOU	81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	96
	장애청년 바리스타 '나는 카페' 1호점 개소식	136
정치 개혁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440
	국민행복기금 경기남부지역 설명회	498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지방자치·지방분권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9월 월례조회	66
	북부기우회 (2012년 9월 12일)	77

주제	행사	쪽수
	11월 월례조회	141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 공동협약서 체결	168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210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217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송년회	224
	청산포럼 특강	233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8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3월 월례조회	376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399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440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	446
	노사민정 협의회	487
	기우회 (2013년 4월 26일)	500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전남도청 특강	578
창업	2012 IT 청년창업 콘테스트	128
	G-창업페스티벌	163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청년	북부기우회 (2012년 9월 12일)	77
	2012 IT 청년창업 콘테스트	128
청렴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9월 월례조회	66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171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청산포럼 특강	233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0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향토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초청특강	348
	3월 월례조회	376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체육	런던올림픽 선수단 격려	73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격려	96
	10구단 유치협약식	137
	10구단 유치 관련 간담회	254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MOU	324
	3월 월례조회	376
	동계체전 종합우승 12연패 해단식	406

주제	행사	쪽수
출산 · 육아장려	동원대학교 특강	148
	아이러브맘 카페 개소식	159
	영천문화원 초청 명사특강	171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210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0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4월 월례조회	432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전남도청 특강	578
	세종대학교 특강	590
치안 · 안전	제41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53
	9월 월례조회	66
	제5회 경기도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99
	경기경찰 충훈탑 개막식	383
	경기도 의용소방대 워크숍 초청특강	512
통일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9월 월례조회	66
	서울대학교 초청특강	101
	제10회 민족화해상 수상	217
	부천상공회의소 특강	338
	제9회 전국고교학생회장 초청특강	385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전남도청 특강	578
	세종대학교 특강	590
투자 유치	경기도-일본 NAD사 투자유치 협약식	97
	2월 월례조회	318
	일본 브이텍스코리아(주) 준공식	401
	세계기자단 초청 투자설명회	496
한류월드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333
	기우회 (2013년 2월 22일)	361
	4월 월례조회	432
한미 관계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경기도-텍사스주립대학교 기업지원프로그램	131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363
	3월 월례조회	376
	4월 월례조회	432
	안보체험교육	460
	북부기우회 (2013년 5월 9일)	520

주제	행사	쪽수
한센인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세종대학교 특강	590
	포천 장자마을 문학의 밤	215
	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0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306
한일 관계	디딤톡 콘서트	412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경기도-일본 NAD사 투자유치 협약식	97
	3월 월례조회	376
	일본 브이텍스코리아(주) 준공식	401
	안보체험교육	460
한중 관계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경기언론인클럽 특강	26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363
	4월 월례조회	432
	안보체험교육	460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현장 행정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청산포럼 특강	233
	2월 월례조회	318
	경제활성화 대책회의	395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440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화합과 국론 통합	기우회 (2012년 9월 21일)	85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	417
	안보체험교육	460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조찬포럼	463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특강	528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51사단 사령부 초청특강	559
	3군사령부 안보 특강	570
	세종대학교 특강	590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60
환경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 공동협약서 체결	168
	북부기우회 (2012년 11월 29일)	183
365 · 24언제나민원실	한국행정연구원 초청특강	195
	청산포럼 특강	23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 특강	308
DMZ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60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90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287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 추진	333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4월 월례조회	432

주제	행사	쪽수
GTX	북부기우회 (2013년 5월 9일)	520
	전남도청 특강	578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45
	북부기우회 (2012년 11월 29일)	183
	기우회 (2012년 11월 30일)	188
	경기도민회 정기총회	210
	기우회 (2012년 12월 21일)	243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49
	군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0
	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3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65
	성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278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	301
	2월 월례조회	318
	북부기우회 (2013년 2월 7일)	329
	기우회 (2013년 2월 22일)	361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363
	과학기술포럼 특강	366
	3월 월례조회	376
	한국감정평가협회 초청특강	537
	6월 월례조회	553
G마크	제41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53
	2012 경기축산 G-페스티벌	115
	농업인의 날 행사	124

김문수 경기도지사 연설문집

제 7 권

2012. 7. 1 ~ 2013. 6. 30

발행처 | 경기도청 대변인실

발행일 | 2014년 7월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 비 매 품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